

열린 마음으로 open
 감춰놓기로 hidden
 숨겨진 신비로움 hidden
 ... 그리고 우리들의 life
 11개의 숨겨진 이야기

n

내가 묻는 방식, 여성주의 저널 n(엔)
 창간호



No. _____
Date _____

내가 묻는 방식,
여섯글자의 저널 n (엔)



창간호(통권 2호)

2007. 11.

남동하에 n(엔) 편집위원회

열린 마음으로 openⁿ

관계를 맺기로 hyphⁿ

숨겨진 신비로움 hiddeⁿ

... 그리고 우리들의 Anⁿ

ⁿ 개의 데리니즈

니엘의 목소리는 무엇일까요?

니엘의 목소리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널 니엘은 여성주의 저널으로써 학교 안에서 여성주의적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여성주의 목소리는 무엇입니까? 불편한, 공격적인, 격앙된 목소리인가요? 흔히 떠올리는 여성주의의 목소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미지는 맞다고 판단할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이미지가 여성주의의 모두로 판단되기에는 여성주의에는 너무나 다양한 색깔이 존재하기 때문이지요. 여성주의가 아직도 많이 부당스러우시다면 여성주의를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하나의 틀로 가두어 두지 말고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보세요.

여성주의에서의 '여성'이라는 두 글자는 여성주의를 받아들이는데 있어 누군가에게는 시작이 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장애물이 됩니다. 여성주의에서의 '여성'은 오직 생물학적인 여성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여성의 권익만을 보호하고 주장하려는 것은 더욱 아닙니다. 여성주의는 자신을 긍정할 수 있는 힘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여성됨'과 '남성됨' 고정된 역할에 자신을 억지로 끼워 맞출 필요가 없음에 대해, 고정된 의무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음에 대해서 말합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온전히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게 합니다.

니엘의 목소리는 하나로 정의내릴 수 없으며 계속 변화해 나가는 무정형의 것입니다. 니엘의 목소리는 지면을 채워나가는 필자들의 목소리이기도 하지만 니엘의 목소리는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의 목소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시작이자 첫 번째 시작

이번에 펴내는 니엘은 두 번째 시작(통권 2호라는 의미에서)이기도 하지만 그와 동시에 첫 번째 시작(창간호라는 의미에서)이기도 합니다.

제 멋대로 쓰고 싶은 글을 쓰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읽히면서 니엘의 목소리를 찾아가는 실험적인 시도였던 창간준비호는 예상치 못한 많은 사랑과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 덕분에 가능할 수 있었던 니엘 창간호의 특집 주제는 〈군사주의, 안에서 밖으로〉입니다. 여성주의를 통해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논의 가운데 유독 뜨겁게 달아오르는 문제가 있다면 바로 군사주의입니다. '군대도 안 가는 여성'인 여성주의자와 '군대를 가야 하는 남성'인 병역대상자 간의 성대결로 비화되며 논의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논란만 남아 버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니엘은 진정된 논의를 이루어내고자 합니다.

'군사주의'를 기획의 주제로 삼게 된 계기는 저널 니엘이 창간준비호를 발간하고 갖게 된 '니엘과 친구들' 독자모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군대를 갖 제대한 남성들의 딱딱하고 각이 진 목소리와 만났을 때의 어색하고 불편했던 느낌은 각 개인들만이 발견할 수 있었던 예민함이라고 생각했지만 독자모임을 함께했던 사람들 대부분이 공유할 수 있는 무시할 수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본래 자신의 목소리에 덧붙여진 딱딱하고 각이 진 군사주의라는 틀에 대해서 주목하게 되었고, 이는 군대를 경험한 사람들에게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군대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도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음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니엘 편집위원들은 개인의 예민함이라며 덮어두었던 군사주의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따옴표 바깥으로 꺼내놓기로 했습니다. 그리하여 여름방학부터 여섯 차례에 걸쳐 진행된 '육체한 세미나'와 그 밖의 편집회의를 통해 군사주의에 대한 고민을 더해

있습니다. 군사주의는 결코 군대 안에서만, 군대라는 공간을 경험한 사람에 한하여 논의될 수 없었으며 군대를 넘어서 우리의 일상 곳곳에서 논의될 수 있었습니다. 우공uGonG의 「군사주의를 벗어나 삶의 안보를」은 군사주의를 강화시키는 두 개의 축, '젠더와 국가' 그리고 '국가안보와 삶 안보'에 대한 고민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낄레의 「의무를 지지 못한 자의 의무」는 군사주의가 작동하기 위해 매개되어지는 성별정치학을 분석하고 있으며, 재(재영)의 「예비군을 위한 군사주의 힐링 프로젝트에서, 모두를 위한 군사주의 힐링 프로젝트로, 마침내 모두를 위한 군사주의 바이러스 백신」은 일상 속 군사주의 바이러스의 위험성과 치유책으로서의 백신을 제시합니다. 꿈의택배의 「일상, 허물고 다시 세우기」는 일상 속에 발견되는 군사주의의 흔적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편집위원 글들은 군사주의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수록 늘어나는 물음의 흔적들입니다. 이 밖에도 특집기획에서는 군대와 일상, 그 경계에서 군사주의를 바라며 보는 좌담회 「군사주의 트위스트」와 군사주의, 국가, 남성 그리고 일상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대한민국은 군대다」의 지자 권인숙 씨와의 인터뷰를 담았습니다.

특집기획이 더불어서 창간호에는 다양한 주제의 다양한 글들이 있습니다. 우선 잃어버린 밤길을 되찾고 싶은 땀방, 꿈의택배의 글이 있습니다. 그리고 1하기를 (재 생각엔) 뜨겁게 달구었던 리엔 세미나의 흔적을 독자들과 공유하는 전우와 낄레의 글이 있습니다. 알의 고통을 나누는 김건우의 글, on style를 벗어던지고 off style을 외치는 낄레의 글이 바로 그것입니다. 어느 여름날 라오스로 훌연히 떠나 돌아온 꿈의택배의 여행기, 성적소수자와의 관계 맺기에 대한 고민을 담은 우공의 글, 페미니즘으로 바라본 KTX 승무원에 대한 생각을 전하는 벨라Rella의 글도 있습니다. 또 새로운 코너 (함께 나누고 싶은 페미니즘)에서는 피자매연대의

소책자 「우리의 삶을 되찾자」와 '엔들이 추천하는 페미니즘 책'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낄레가 푹푹푹 신나게 만들어낸, 주류 미디어에서 사라진 목소리를 살려내는 <갑소사 프로젝트>도 만날 수 있습니다. 창간준비호보다 더 풍성해진 리엔을 소개하다 보니 리엔의 눈에 띄는 '자라남'에 뿌듯해집니다.

창간준비호를 내고 난 후이자 창간호를 준비하고 있는 요즘, 편집위원들이 독자들에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리엔 다음 호는 언제 나와?'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현재 저널 리엔이 하고 있는 고민을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재미있었어', '다음 호는?'

여성주의 저널 리엔을 낸다는 것의 의미는 단순히 대학 내에 새로운 매체가 하나 더 생기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저널 리엔을 읽는 독자들의 일상에 여성주의적 관점을 제시하고 여성주의적인 물음을 던지는 등의 말걸기를 통해 여성주의적인 담론을 형성하는데 있습니다. 저널 리엔을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개인들의 뜨거운 후원과 저널 리엔이 나온 후의 칭찬의 말들은 편집위원들에게 큰 힘과 용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널 리엔을 계기로 여성주의에 대한 다양한 말과 행동들이 시작되기를 기대했지만 한 권의 '말 걸기'는 '재미있었어'라는 말들로만 돌아왔습니다.

창간호의 경우에는 창간준비호 발간 당시의 후원을 통해 마련된 재정을 통해 펴낼 수 있지만 2호부터는 어떻게 발간할 수 있을지 안정적인 재정확보에 대한 고민이 큼니다. 후원이라는 방식은 리엔과의 관계를 맺

는 좀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서 ni엔이 하고 있는 여성주의 운동에 동참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원이라는 방식을 계속 이어나갈 계획이지만 앞으로 어느 정도의 재정이 확보될 수 있을지 알 수 없다는 면에서 불안하기도 합니다.

현재 저널 ni엔은 다섯 명의 편집위원(날래, 땡땡, 렐라, 꿈의택배, 우공)이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창간호에서는 창간준비호를 함께 만들어온 클물이, 창간호를 준비하는 초기 과정에 잠시 함께 했던 술술이의 모습은 볼 수 없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인해 ni엔 활동을 잠시 쉬게 되었는데요. 그렇지만 다음 ni엔에서는 훌쩍 성장한 모습으로 새로운 이야기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창간호를 준비하는 마무리 과정에서 렐라가 편집위원으로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그래서 안타깝게도 이번 호에서는 렐라의 특징기화를 만날 수 없습니다). 창간준비호를 꼼꼼히 읽어주신 분들이라면 '여성 그리고 여행'이라는 주제로 필리핀에서 보내온 렐라의 서신을 기억하실 텐데요. 앞으로 ni엔에서 그녀만의 독특한 서신을 만나게 되실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ni엔을 내기 위해서는(또 다양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라도) 함께 할 사람들이 더 필요합니다. 꼭 편집위원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글을 통해서 만날 수도 있고, 당신이 그리고 싶은 그림을 통해서도 함께 할 수 있어요. 사진이어도 좋고 함께 보고 싶은 영상을 들고 와도 좋아요. ni엔을 통해 만나고 싶은 사람을 이야기해주셔도 좋아요. 당신이 꿈꾸는 것, 고민하고 있는 것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저널 ni엔은 편집위원만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저널 ni엔을 읽는 것도 저널 ni엔을 만들어가는 행위의 일부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저널 ni엔의 고민을 공유하고자 하는 이유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수많은 관계 속에서 ni엔의 시작이 가능했듯이 ni엔의 고민도 그 관계를

통해서 해결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창간호가 발행될 수 있도록 함께 해준 소중한 친구들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ni엔 세미나> 그리고 이후의 <불편한 세미나>를 함께한 친구들, 기꺼이 군사주의에 대한 인터뷰에 응해주신 권인숙 씨, 이리 비를 저리 비를 군사주의와 트위스트를 함께 쓴 좌담회 참석자들, 표지 디자인을 해주신 결 씨, ni엔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해주시는 많은 분들 등 이름을 하나하나 이 자리에서 열거할 수는 없지만 이 분들이 없었더라면 ni엔은 발행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럼 이제 '아! 아!' 소리내보세요. 오랫동안 꼭 다문 두 입술을 열고 당신의 목소리를 내주세요. 누구로부터 요구받아지는 강요되어지는 목소리가 아닌 진짜 당신의 목소리말예요. ni엔을 당신만의 목소리로 읽어주세요. 하나 둘, 시이작!

차례

발간사	리엔의 목소리를 찾아서 행행 4
특집기획 군사주의 안에서 밖으로	군사주의를 벗어나 삶의 안보를 우공(Goong) 17
	의무를 지지 못한 자의 의무 날래 27
	예비군을 위한 군사주의 힐링 프로젝트에서, 모두를 위한 군사주의 힐링 프로젝트로, 마침내 모두를 위한 군사주의 바이러스 백신 행행 39
	일상, 허물고 다시 세우기 풍의해 51
	[좌담회] 군사주의 트위스트 — 군대와 일상, 그 경계에서 군사주의를 말하다 날래, 행행, 박동민, 여정훈, 장현지 65
	[인터뷰] 『대한민국은 군대다』의 저자 권인숙 선생님을 만나다 권인숙, 풍의해, 우공 86
달빛 되찾기	밤거리의 나를 내버려둬요 풍의해 111
	달빛 아래 평화롭게 나돌아 다니는 미친년 아닌 여자 되기 행행 115
세미나 흔적	동굴 속의 우리들, 그리고 앞에 대한 고통 김진우 123
	'Off Style'을 외쳐라 날래 127

여행 관계 노동	살은 여행, 여행은 또다시 살 풍의해 133
	계속되는 대화 우공 151
	페미니즘으로 바라본 KTX 승무원 멜라(Mella) 157
함께 나누고 싶은 페미니즘	'엘들이 나누고 싶은 페미니즘 도서 163
	주류 미디어에서 사라진 목소리, 여기에서 살려보자, '갑소사 프로젝트' 169
	피자배달대가 작은책을 펴내는 이유 170
리엔 다시보기	창간준비호 비평글 나비 175
	창간호 비평글 은실 179
... [범범범]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187
	창간준비호 결산 189
	창간준비호 목차 190
	편집후기 191

n

준서각이,
안에서 밖으로

군사주의를 벗어나 삶의 안보를

우공uGonG_편집위원

전쟁과 평화, 그리고 군사주의

전쟁은 오늘날 우리 삶을 위협하고 있다. 전 지구적으로 볼 때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순간은 없다.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과 아프가니스탄 무장조직에 의한 '한국인 피랍 사건'은 한국인들이 전쟁을 더 가깝게 느끼게 하고 있다. 전쟁은 잔혹하고 슬픈 것이다. 포탄과 총알이 오고 가는 전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제 본 가족과 친구들을 내일 볼 수 없게 될 수도 있다. 이 참혹함이 없어지길 바라는 사람들은 전쟁이 사라지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렇기에 우리는 어떻게, 왜 전쟁이 일어나는지 구체적으로 묻고, 생각하고 행동해야만 한다. 이러한 행동의 대안으로 '평화'가 이야기되고 있다.

'전쟁의 시대'에 '전쟁과 평화'라는 중립적인 질문은 '전쟁이나 평화

나라는 적극적인 질문으로 변형되기도 한다. '전쟁과 평화', '전쟁이나 평화냐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지만 '전쟁 상태'와 '평화 상태'를 분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일한 사유를 공유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구분이 가능한 것일까. '전쟁은 무엇이고 '평화'는 무엇일까. 오늘날 한국은 전쟁 상태일까, 평화 상태일까. 전쟁과 평화를 분리하는 생각은 전쟁을 사라지게 할 수 있을까.

질문을 바꿔보자. 전쟁을 준비하는 '군대'를 특정 남성들이 일정한 나이에 가는 것을 '국민의 의무'로 법제화하고 있는 사회는 '평화 상태'일까 '전쟁 상태'일까. 전 국민이 군대에 가야 하는 '개병(皆兵)제' 국가인 한국에서 이러한 질문은 매우 현실적인 질문이다. 하지만 전쟁과 평화를 분리해서 생각하는 한 우리는 이 질문에 답하기가 쉽지 않다. '물리적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시기라고 해서 군대와 군대에 관한 활동들이 멈추는 것은 아니다. 병역을 거부하는 것이 국가 안보를 거부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국가주의가 강한 한국 사회에서는 일상적으로 병역이 관리·유지·운영되고 있다. 군대의 유지와 군대에 관한 준비 등 군사화가 행해지는 시기에 '물리적 전쟁'이 없으므로 우리는 이 시기를 '평화의 시기'라고 불러야 할까. 만일 이 시기가 '평화'라면 우리는 '군사화된 평화' 혹은 평화를 위해 군사화하는 시기라고 불러야 할 것이다.

이처럼 '평화 상태(시기)', '전쟁 상태(시기)'를 구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전쟁을 행하는 집단인 군대와 징병제가 사람들의 일상적인 삶 속에 들어와 있는 사회에서는 더욱 힘들다. 우리는 이런 사회를 군사화된 사회, 군사주의가 깊게 새겨진 사회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군사주의란?

이와 같은 질문들에 답하고 생각하기 위해서는 다음 질문을 피해갈 수 없다. '군사주의(Militarism)란 무엇인가.' 개인적으로 이 질문은 군사주의, 군사화를 이야기함에 있어 지속적으로 하게 되는 질문이었다. 우리가 군사주의란 말과 함께 떠올릴 수 있는 단어들이 있을 것이다. '군(대)문화', '군사문화', '예비역 문화' 등. 이 중에서 사회학자와 여성학자들이 연구하여 개념화한 것은 '군대문화', '군사문화'이다. 군대문화는 군대 안에서 병사들이 만드는 문화를 말하는 것으로, 시민사회 영역에서 형성된 하위 문화라고 개념화된다.¹⁾ 하지만 군대문화가 군대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군대 밖에서도 확인될 수 있는 만큼 군대 안의 문화를 지칭하는 것으로만 군대문화가 한정될 때 이 개념은 그 생명력을 잃는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군사문화'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군사문화는 '군대문화가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이야기한다. 하지만 이런 개념화로는 현재 군대와 전쟁, 우리의 삶을 조망함에 있어 부족한 면이 있다. 왜냐하면 군대와 사회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상호영향을 주고받으며 형성되는데, '군대문화'는 군대와 사회를 너무 단선적으로 구분하고 '군사문화'는 군대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군대→사회)만을 설명할 뿐 사회가 군대에 미치는 영향(사회→군대)에 대한 설명은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런 면에서 다음과 같은 권인숙의 말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군대라는 조직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군대의 존립이나 강화에 대한 정당성을 이해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회에서 형성된 각종 역할과 가치관, 문화적 속성에 군대가 영향을 받을뿐더러 이에 의존하여 유지·지지되고 있음을 설명하지 못한다(...).²⁾

1) 홍두승, 『한국군대의 사회학』, 나남, 1996

군사문화, 군대문화의 이와 같은 한계를 넘어서는 생각을 펼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생각과 주장을 군사주의라는 단어를 통해 풀려고 한다. 물론, 군사주의라는 말을 써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⁵⁾

(...) 복합적인 신념 체계로서 군사주의는 군대의 존재와 힘의 부여를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이다. 또한 효율적인 조직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위계와 통제와 훈련이 핵심이라고 믿고, 효율적인 병사 역할을 위해 필요한 남성성에 가치를 부여하고, 민족과 우방이나 대단위 집단의 이름하에 집단 목적을 사용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가치 등이 서로 상호 작용하는 것이다.⁶⁾

이것은 권인숙의 군사주의에 대한 정의이다. 이 정의는 한 구절 한 구절을 분석하면 읽고 이야기할 내용이 많지만 그것은 차차하기로 하고 우선 여기서는 '복합적인 신념 체계', '상호 작용'이라는 말에 초점을 두었으면 한다. 왜냐하면 군사주의는 매우 복잡하고 역동적인 현실을 분석하려는 말이기 때문이다. 또한 군사주의는 우리 삶이 얼마나 군사화되었는지를 체계(-ism)적으로 분석하려고 한다. 즉, 군대에 있는 권력적인 힘에 복종하는 상명하복의 위계질서를 학교의 선후배 관계와 교수(사)와 학생 관계에서, 기업의 조직 내에서, 가부장제의 가족에서 동일하게 경험할 수 있는 이유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문승숙은 "군사화된 군대성"이란 개념을 통해 한국 군대의 경제 발전에서 핵심적인 사상은 군사주의였다고 말한다. 특히 국가의 의무 병역과 산업 경제 건설에서 성별에 따라 차별적으로, 즉 남성은 생계 부양자로, 여성은 양육과 집안 살림 담당자로

5) 권인숙, 「대한민국은 군대다」, 창년사, 2005, 26-27쪽, 강조는 필자.

6) 권인숙, 앞의 글, 24-25쪽.

4) 같은 글, 26-27쪽, 강조는 필자.

분리시켜 동원하였으며, 이것이 군사 독재 이후 남성과 여성의 시민성을 젠더화시켰음을 규명하며 군사주의가 국가, 산업, 경제 발전, 시민들의 정치적 주체성과 얼마나 긴밀한 관계가 있는지를 규명하고 있다.⁵⁾

군사주의를 강화하는 두 개의 축, 젠더와 국가

그렇다면 군사주의는 어떻게 현실에서 작동되는 것일까. 왜 군대, 학교, 가족, 기업, 국가 등에서 군사화된 위계구조를 동일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일까. 이것은 우리에게 숙제와 같은 크고 중요한 질문이다. 우리가 이 이유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면 우리는 군사주의를 넘어서는 대안을 만들고 상상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군사주의를 전 사회적으로 퍼지게 하는, 즉 군사화는 젠더(Gender) 문제와 긴밀한 관계가 있다. 어떤 사람은 '남자들만 가는 군대에 왜 성별 문제?'하고 반문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조금만 생각하면 이 질문의 답은 간단하다. 남성성은 항상 여성성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군대의 핵심 목적은 국가 안보, 즉 나라를 지키는 것이다. 현대 한국사회에서 병역은 남자들의 의무이다.⁶⁾ 그렇다면 여자들은? 약한 존재이거나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로 인식된다. 생존을 위협하는 적으로부터 보호의 대상인 여성을 지키는 주체로 남성은 설정되는 것이다. 이런 도식은 일상에서의 남성성, 여성성 개념이 명확히 구분되어 받아들여졌을 때, 즉

5) 문승숙, 「군사주의 관현 군대」, 이현경 역, 토하나의문화, 2007.

6) 혹자는 최근 국방부가 발표한 전 국민이 군대를 가도록 하겠다는 '사회복무제도'와 여성들도 군대를 가는 대표적인 사례로 이야기되는 이스라엘을 말하면서 여성들도 군대를 간다고 이야기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사회복무제도와 이스라엘을 포함해 군대 내 여성들의 역할은 무기를 들고 싸우는 군인이 아니라 군대 내 서비스와 행정 업무를 보는 존재로, 여전히 젠더화된 주체일 뿐이다.

젠더적 구분이 명확할 때 가능하다. 이것은 군대가 군인을 재생산하기 위해서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

연로에 따르면 일상에서의 성별화된 군사화(gendered militarization)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남성성, 여성성의 개념이 명확히 구분되어 받아들여져야 하고 (...) 이 때 남성들에게 '남성성-군인'으로 받아들여지게 함으로서 군인의 재생산이 이루어진다. 남성은 군대에 복무하지 않으면 남성다움(manliness)을 입증할 수 없다고 느끼도록 해야 하고 그것을 통과(passing)한 것, 즉 군대를 복무한 것이 남성성의 증거로 보이도록 해야 한다. (...) 남성권력의 획득 과정인 군대는 과거나 현재에도 남녀의 엄격하고 차별적인 역할, 그와 관련된 이데올로기적 믿음을 끌고 오지 않고는 군인을 유지하고 생산할 수 없으며 헤제모니를 가질 수도 없다.⁷⁾

이런 성별화된 군사주의는 '여성'을 매개로 하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다. 우선 어머니의 존재가 그렇다. 현실에 실재하는 어머니의 다양한 모습과는 상관없이 군대에서의 '어머니'는 항상 '따뜻한 희생하는 어머니'로만 인식되고 호명된다. 그것의 극명한 예가 군 관련 텔레비전 프로그램이다. 예전의 <우정의 무대>에서 최근 종방한 <청춘! 신고합니다>까지 어머니의 모습은 한결같이 동일하다.⁸⁾ 그리고 '에인'으로서의 여성이 있다. 왜냐하면 "한국 사회에서 젊은 남성이 군대에 가면, 또래 여성은 에인으로 성역할을 강하게 요구받는데, 이는 개인 차원의 연애를 넘어 탈영과 같은 일탈을 방지하는 일종의 간접적인 국방 행위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매우 극명한 예는 '일본군 위안부', 즉 성노예이다.

7) 권오분, 「군대정형의 의미화 과정을 통해서 본 군사주의 성별정치화」,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석사학위 논문, 2000.

8) 좀 더 자세한 논의는 남재, 「의무를 지지 못한 자의 의무」, 『성공시대 여성주의 지남』 14(연말 간호) (통권2호), 2007년 11월을 참조하라.

9) 정희진, 「군사주의와 남성성」, 『페미니즘의 도전』, 교양인, 2005, 249쪽.

일본군은 군인들의 탈영을 방지하고 사기 증진을 위해 '위안부'를 군 정책에 핵심 부분으로 다뤘으며, 이것은 오늘날 군부대 주변과 미군기지 주변에 성매매 집결지가 같이 있는 것을 통해 '계승'되고 있다.

한편에서 이 과정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다. 이 과정은 국가로부터 계속해서 관리되고 생산된다. '징병에 대한 대중적인 저항은 예외적인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것'이었으며 그렇기 때문에 징병제 초기 국가의 가장 큰 고민은 군대를 가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자진해서 군대를 가게 만드는 것이었다.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국가는 경제 논리 등 각종 이데올로기적 홍보와 활동을 펼쳤다.¹⁰⁾ 이런 점은 우리에게 몇 가지 쟁점과 과제를 던져준다. 우선, 국가가 끊임없이 군인과 남성성을 동일하게 하려고 노력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군인-남성성'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런 만큼 '탈군사화-탈남성화'도 당연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군사주의와 남성화가 긴밀하지만 각각 독립적인 체계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면서 군사주의와 젠더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군사화, 젠더 각각의 영역에서 독립적인 활동이 필요함을 말해준다. 다른 한편으로는 군사주의에 있어서 국가 역할이 얼마나 핵심적인지를 알 수 있다. 사실 이것은 당연한데 왜냐하면 군대를 돌려 쓴 가장 강력한 신념은 '국가안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국가안보는 오늘날 한국의 가장 강력한 신념 중 하나이기도 하다.

국가안보와 살안보

국가안보는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하라"라는 슬로건으로 정리될 수 있다. 이 슬로건에서 '국가안보는 국가의 군사적 안보, 국가이익을

10) 문승숙, 앞의 글, 72-80쪽.

추구하고 지키기 위한 것'이다. 이런 생각은 '국가 간의 전쟁은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국가안전보장을 위해서 국가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전쟁을 준비해야 한다'¹¹⁾는 생각을 기반으로 두고 있다. 국가를 지키는 영웅, 국가를 위한 희생 등의 논리는 모두 이런 국가안보에 대한 생각을 밑바탕에 깔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국가안보의 정의에서 좀 더 나아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국가안보가 나의 안보, 우리의 안보와 동일하게 인식된다는 점이다. 이 (국가)안보 논리는 생존의 논리와 직결된다. 즉, 국가가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전쟁 시 죽게 된다는 논리이다. 그리고 젠더화된 군사주의에서 군인은 '남성'이므로 남성들이 국가안보를 지키지 않는다면 후방의 '여성'은 안전하지 못하다는 논리로도 쉽게 변명이 가능하다.¹²⁾

한국 현대사는 한편으로는 국가폭력 기관인 군대에 의한 학살의 역사이다. 1948년 제주 43 사건은 해방 이후 한반도 남쪽 지역만의 총선거를 반대한 제주도민들을 우익 청년단체와 군대의 학살이 있었으며, 1950년 전후에 시작되어 1953년에 휴전한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 학살의 주요한 주체는 남한 정부의 군대였고, 최근 드라마, 영화, 만화 등을 통해 주목받았던 1980년 5월 광주항쟁 당시 학살의 중요 주체도 또한 군대였다. 그리고 어디 한국군이 내국민을 대상으로만 활동했는가. 한국의 군대는 베트남 파병에서부터 이어져 오늘날 이라크 파병까지 파병의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기도 하다. 한국 현대사뿐만 아니라 군대 국가의 군대는 항상 폭력의 주요 도구였다. 한국에서는 이와 같은 군대의 '피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분단 상황에서의 냉전 이데올로기로 인해 군대 폭력 혹은

학살의 역사가 '망각의 강' 저 깊숙한 곳에 흐르는 것처럼 보인다. 박노자는 러시아 현대사에서 소련군의 아프가니스탄 침공과 학살, 소련에서 독립하려던 아제르바이잔과 발틱 공화국에 대한 침공과 학살로 인해 지식인뿐만 아니라 대학생 사이에서도 군대는 '살인 기술을 배우는 집단', '살인자 집단'으로 널리 인식됨에 반해 한국은 비슷한 현대사에도 불구하고 군 복무가 '신성한 국방'의 의무로 이해되는 것이 매우 이상하다고 말한다. 그는 이런 사회는 '폭력이 충만한 사회'라고 말한다.¹³⁾

이것은 한국 사회가 국가주의에 깊게 침식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이며 또한 개인 삶의 안보와 국가안보가 동일하게 인식되는 상황을 설명해주는 중요한 사례이기도 하다. 하지만 위에서 확인한 것처럼 군대를 통해 지켜지는 국가안보는 인간의 삶의 안보가 될 수는 없다. 그럼으로 우리는 우선 '안보'라는 말에서 '국가'라는 말을 떼어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는 안보라는 말을 새롭게 규정해야 한다. 그렇다면 안보는 어떻게 새롭게 규정되고 이름 지어질 수 있을까.

안보 개념을 다시 정립할 필요가 있다. 안보는 안보를 생각하는 사람이 어느 지역에 살고 있느냐에 따라 정의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시골지역 여성들에게 안보문제는 환경에 대한 안보 즉, 자신과 가족들의 일상을 위해 필요한 것이다. 환경이 오염되고 일상이 파괴될 때, 이 여성들에게는 이것이 안보 위협을 뜻할 것이다. 또 가난한 지역에 사는 사람에게 안보는 자연재해에 대한 공포를 뜻하기도 한다. 자연재해로부터 피해가 그들의 안보를 위협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안보는 일상 속에서 폭력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안전한 생활을 뜻할 수도 있다. 여성들이 성폭력의 위협 없이, 폭력의 두려움이 없이 사는 것이다. 또, 성폭력 피해자가 다시 피해를 받는 위협에 시달리지 않는 것이기도 하다.

11) 김영희 외 지음, 『세계화와 여성안보』, 한울, 2007, 24쪽.

12) 여기서 경계해야 하는 점은 보호 받는 대상으로 여성들이 설정된다고 해서 '군사화'와 관련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군인 부인들, 군사기지 주변의 성매매 여성들은 대표적인 군사화된 여성들이다(권인숙, 앞의 글, 31쪽).

13) 박노자, 『아직도 폭력이 충만한 사회』, 『당신들의 대한민국』, 한겨레신문사, 2001.

이 말은 2005년 동북아시아 평화 국제회의에 참석한 전쟁저항자인 터내셔널(War Resisters International, WRI)의 노르웨이 활동가 엘렌 엘스터가 인터뷰를 통해 제안한 안보 개념이다.¹⁴⁾ 엘렌은 구체적으로 일상에서 안보 개념이 구축되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다. 각각의 일상과 그들이 사는 '위치가 다른 만큼 안보 개념은 단일할 수 없다. 안보는 다양하고 구체적인 것이다. 이처럼 안보는 우리 삶이 안전과 연결되어야 한다. 우리가 안보를 국가의 주권적 시선으로부터 독립시키는 상상과 행동을 계획할 때 군사주의를 벗어나 삶의 안보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공장에서 쫓겨난 노동자가 원직복직하는 것이 평화
두꺼비 똥웅이 도롱뇽이 사식처 잃지 않는 것이 평화
가고 싶은 곳을 장애인도 갈 수 있게 하는 것이 평화
이 땅을 일구는 농민들이 더 이상 빼앗기지 않는 것이 평화
성매매 성폭력 성차별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세상
군대와 전쟁이 없는 세상 신나게 노래 부르는 것이 평화

— 노래 '평화가 무엇이나' (문정현 작사/조약광 작곡)

14) 윤정은, 「페미니즘이 말하는 안보」, 『여성주의 저널 2월』, 2005년 6월 28일.

의무를 지지 못한 자의 의무

남래 편집위원

"대한민국 국군의 50%가 여군이 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뛰어보겠다고 했는데 그러지 못해 좀 아쉽고요……"

KBS 〈청춘 신고 합니다〉(프로듀서 함형진)의 MC를 맡아 온 윤인구 아나운서는 2007년 4월 26일 〈청춘 신고 합니다〉의 마지막 방송에서 이렇게 아쉬움을 표했다. 아마도 그는 4년 전 첫 방송에서 '대한민국 국군의 50%가 여군이 되는 그날을 위해 열심히 뛰어 보겠노라고 각오를 밝혔었나보다. 〈청춘 신고 합니다〉라는 프로그램의 목표가 정병의 대상을 여성에게 화



KBS 〈청춘 신고 합니다〉



그림 10

나고 내 멋대로 오해한다면 좀 안심이 될까? 자신은 병역을 면제받았거나 기피했거나 거부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군필을 하였으니 당당하게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 밝혀지더라도 한다면, 녹화 도중에 장병들로부터 돌을 맞거나 집단 린치를 당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아마도 이 프로그램 외에 공중파 방송사의 어디에도 다음과 같은 인사말로 방송을 시작하는 프로그램은 없을 것이다. '예비역 병장 윤인구입니다. 단결'

1989년 〈우정의 무대〉를 시작으로 하여 '대한의 아들, 60만 군인과 함께'한다며 군인 층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줄곧 있었다. 지금처럼 예능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않았던 시절에 〈우정의 무대〉는 시청률이 높은 편이었지만, 그 이후에 제작된 〈TV 내무반 신고 합니다〉, 〈청춘 신고 합니다〉 등은 시청률보다는 사회적 위문차원에서 제작되는 경향이 컸다. 사실 군대와 사회가 대립어로 쓰일 만큼 현재의 병영 조건에서 군인들은 사회문화적으로 소외되어 왔다. 군대에 있으면서도 사회문화적 자원들에 쉽게 접근하고 외부와의 소통이 자유로우면 좋으련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 군인들은 일회적으로나마 문화적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나는 군대를 사회의 일부로 파악하고

대하는 것이라고 잠시 착각이라도 한 것일까? 아니면 그것이야말로 '대한민국 육군 장병들의 한결같은 바람일까? 차라리 '아나운서 은퇴할 때까지 프로그램의 MC를 맡고 싶다'는 마음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겠

군인들의 생활에 대해 다루고 그들의 목소리 또한 외부로 표출될 수 있도록 방송뿐만 아니라 사회 곳곳에서 군대와 사회의 연결 고리를 더 많이 만들어내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군인 층을 대상으로 한 지금까지의 프로그램들은 군대-간 군인들을 단순히 위문하는 차원에서만 접근해 왔다. 이러한 접근은 군대가 사회로부터 분라고립되어 외부에 존재한다는 관념을 안정화하면서 폐쇄적이고 보수적인 군사주의를 옹원하는 역할을 해 왔다. 따라서 프로그램 내용의 반은 '대한의 아들'들이 용맹하게 총을 쏘거나 일사분란하게 움직이고, 사병 간의 우애는 돈독하지만 군기는 바로잡혀 있는, '진정한 남성다움'의 결정체를 홍보하는 것으로 채우고, 나머지 반은 고된 생활에 지친 장병들에게 정서적으로 위로를 주기 위한 내용으로 채우고 있다. MC와 출연자들은 밤낮없이 '조국을 지키기 위해' 수고하는 군대와 군인을 향해 존경과 감사의 태도로 대한다. 군 복무에 대한 전사회적인 기피 정서와는 다르게 그것만 보고 있으면 마치 군대가 최고의 남성, 최고의 인간을 길러내는 곳인 것 마냥, 그리고 군인들은 그러한 자질을 갖춘 것이 가장 자랑스러운 일인 것 마냥 행동하고, 거기에 만족하고 있는 듯 보인다.

이런 프로그램들이 표면적으로는 평상시에 잘 공개되지 않는 군대를 단순히 민간에 소개하고 있는 것 같지만 내용적으로는 국가안보의 중요성과 강력한 군대의 필요성, 국민 개병제의 정당성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있다. 군사주의는 학자에 따라 약간씩 다르게 정의하지만 이것이 군사주의의 한 축을 이루는 기본적인 정서가 된다고 볼 수 있다. 일본의 정치학자인 마루야마 마사오(井山眞男)는 군사주의를 '한 국가 또는 한 사

회에서 전쟁 및 전쟁준비를 위한 배려와 제도가 구체적으로 자리를 차지하고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등 국민생활의 다른 영역을 군사적 가치에 종속시키는 사상 내지는 행동양식"으로 본다.(권오분, 2000) 사회적인 위문이 필요하게 되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다. 대한민국을 지키는 군대가 있기에 국가와 국민 전체가 있을 수 있다는 신성한 믿음을 깨거나 적으로부터 국민들을 지켜주는 그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가 계속되지 않는다면 군사주의는 유지될 수 없다. 군인들이 개별적으로는 군 복무가 죽을 만큼 싫고, 전역하는 날짜만 세고 있다고 하더라도, 군사화된 사회는 계속 군 복무가 의미 있는 것이라고 추켜세운다.

나는 군사주의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성별정치화**를 매개해야 한다는 사실에 주목하고자 한다. 군대, 군인, 안보, 군사화 등은 남성들의 영역이라는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에 마치 여성들은 그로부터 완전히 배제된 채 아무런다는 듯이 인식하게 되는 것은, 여성의 역할을 비가시화하는 **성별화된 군사화**의 결과이다. 군사주의는 군인의 재생산을 위해 용맹한 남성성을 군인 됨과 일치시키는 데 주력하는데,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먼저 남성성과 여성성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하고 '남성성=군인'이라는 믿음을 강화시켜야 한다. 그것은 보호해야 할 대상의 '여성성'을 유지하고 강화시키므로써, 또한 그에 맞는 '여성적 역할'이 수행됨으로써 가능하다. 따라서 군사주의가 작동될 때 여성이 필수적으로 매개될 수밖에 없고, 여성은 군사주의로 인해 일방적으로 피해를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군사주의가 일상적으로 재생산되고 유지되는 과정에서 하나의 행위자(agent)로 역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렇게 본다면 남성들과 마찬가지로 삶과 군사주의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지만, 군대를 다녀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군대나 군사주의에 대한 발언권 자체를 빼앗긴 여성들에게

도 성찰과 개입의 여지가 열리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일상 속의 군사주의를 제대로 분석하고 탈군사화나 반(反)군사주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남성적으로 정의된 군사주의를 넘어서 성별 정치학을 주요한 틀로 삼는 여성주의적 비판담론이 필요하게 된다.(권오분, 2000)



(청춘 신고양) 중 한 장면

군사화된 사회에서는 남성을 군대와와 관련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 현역 군인, 예비역, 민방위, 미필, 면제, 특례, 기피/거부자 등등, 군인 층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에서 남성이 나오면 그는 바로 이런 식으로 설명되어야 한다. 윤안구 아나운서는 데 최마다 예비역 병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했고, 자식을 군대에 보낸 아버지가 나올 경우(이미 '자식을 군대에 보낸'으로 연관되지만, 군 복무 내용이 언급되는데, 집안 대대로 해병대 출신일 경우 부자(父子) 사이가 평정한 자부심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종종 볼 수 있다. 해병대의 경우 유난히 그러한 경향이 강한데 <청춘 신고양>에서도 해병대 특집에서는 해병대 출신 연예인(대표적으로 김홍국)들이 나와 군기와 위계, 전우애(남성연대)를 과시했다.

그렇다면 여성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여성은 딱 두 가지로 분류되는데 하나는 어머니이고 다른 하나는 애인이다. 마치 세상의 모든 여자는 어머니, 애인, 애인 있는 여자, 애인 없는 여자로만 설명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이다. 더 정확히 말한다면 '이성애적 대상으로서의 의미'가 그녀를 설명하고 판단하는 유일한 기준이다. 여자친구가 없는 장병들이

나와 '싱글女'를 찾아 짝을 짓는 '싱글을 찾아라'라는 코너에는 네 명의 여성이 등장한다. 그 중에서 두 명은 '싱글女'이고 두 명은 부대에 남자친구를 두고 있다. 실제 남자친구인 장병이 나와 자신의 여자친구에 대해 설명한다. "다리가 꼭 빠졌고 예쁩니다" 만약 누군가 나를 그렇게 설명한다면 그게 누구든(나를 사랑한다는 사람이라면 더욱 더!) 그 순간부터 그와는 상종도 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그러한 설명이 사실과 정확하게 일치한다고 하더라도 말이다. 적지 않은 한계가 있지만 실제로 우리는 사람들을 그런 식으로 분류하고 설명할 수는 있다. 'A는 B의 여자친구다.', 'C는 여자고 애인이 없고 한 번 사귀어보고 싶은 여자다.', 'D는 몸매가 꼭 빵한 여자고 남자친구가 없는데 페미니스트다.' 등등. 그러나 이러한 방식이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가?

〈우정의 무대〉는 '그리운 어머니'라는 코너를 통해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다. "엄마가 보고를 때, 엄마 사진 꺼내 놓고~" 이 노래가 나오면 한 편의 가슴 찡한 드라마가 연출된다. 자신의 어머니가 아니라는 것이 확실한데도 장병들은 서로 자신의 어머니가 맞다며 우기고, 거기에 출연한 '어머니'는 어머니를 만나지 못한 장병들을 위로하는, 모든 장병들의 어머니가 된다. 그녀는 '어머니' 이외에는 아무 것도 아니다. 어머니와 애인은 남성의 '마음'을 보살피는 존재라는 의미에서는 구분되지 않는다.

누군가에 대해 설명한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을 바라보는 방식과 그와 나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기도 하다.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안다는 것은 언제나 나의 관점을 통하고 난 것이며, 관계는 내가 그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이뤄지고, 알아간다는 것은 관계를 맺는 과정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내가 무언가를 설명하기 위해 이 글을 쓰고 있

는 지금도 문제를 바라보는 나의 관점과 문제와 관계 맺는 나의 방식이라는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 즉, 내가 A에 대해 '그녀는 우리 엄마야'라고 설명하는 것은 그녀에 대한 설명이라기보다 내가 그녀를 대하는 방식과 우리의 관계에 대한 설명이다. 그녀가 우리 엄마인 것은 분명히 사실이지만 '그녀는 나의 딸이야', '그녀는 정규직 노동자야', '그녀는 동네 아줌마야', '그녀는 우리 집 단골이야', '그녀는 매우 진취적이야' 등등의 설명 또한 가능하듯, 사실 여부조차 관점이나 관계와 무관하게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 엄마에게 내가 '그녀는 우리 집 단골이야'라고 설명하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것처럼 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설명하는 방식을 통해 그 설명에 녹아있는 특정한 관점과 특정한 관계를 파악할 수 있으며 그것이 파악되어야만 온전한 이해가 가능하다.

군사주의적인 시선이 어머니나 애인으로만 여성을 설명하는 것은, 여성을 '보호받아야 할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다. 베트남 전쟁에 파병된 젊은 병사에게 "당신 옆에 여성 병사가 동료로 서 있다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라고 묻는 방송이 있었는데, 그 병사는 곤혹감을 나타내며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우리는 고향의 아내나 연인을 지키기 위해 싸운다고 배웠는데 보호받는 당사자인 아내나 연인이 전선에 나타난다면 무엇을 위해 싸우고 있는지 알 수 없게 된다."(우예노 치즈코 1999, 75쪽) 전쟁이나 군사화된 사회에서 '자신의 아내나 연인을 지켜야 할' 남성들은 군인이 됨으로써 곧바로 국가로 표상되는 데 반해 '보호받아야 할' 존재인 여성들은 '안전한' 가정적 영역을 할당받는다. 여성들은 어머니나 아내, 애인이라는 위치에서 여성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국가로 표상되는 남성(군인)을 통해 국민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러한 역할은 여성에게 할당되어 왔던 모든 노동이 그러하듯이 가시화되지도 않고 주변적인 것으

로 치부된다. 이 역할의 핵심은 위안을 주는 것이다. 일상적으로는 군대간 아들의 선임을 몰까지 음식을 장만해 면회를 가는 어머니와 군인을 내조하는 아내, 고무신을 거꾸로 신지 않고 끝까지 기다려주고, 고참에게 인정받는 편지를 보낼 줄 아는 '곰신녀'에서부터 간호사, 대운부까지 군사주의 여성들의 역할 없이는 제 기능을 할 수 없다. '보호하는 주체=남성=군인=국가/보호받아야 할 대상=여성=가정'이 서로 명확하게 구분되고 그에 따라 주어지는 차별적인 역할이 수행되어야 군사주의의 틈나바퀴는 아귀가 잘 맞아 떨어져 원활히 굴러가게 된다.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도 군사주의의 틈나바퀴에서 빠져선 안 될 틈나가 되어 군사주의의 유지와 재생산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여성이 군인이 되어도 군사주의의 성별 정치학은 그대로 작용한다. 대부분의 사관학교들이 여성들에게도 입학할 허용하고 남녀 구분 없이 누구나 '능력만 있으면' 직업군인이 될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실제로 군 안에서 여성들은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에 놓이게 된다. 남성들과 똑같이 훈련받고, 똑같은 조건으로 대우받음으로써 '남성'이 되어야 살아남을 수 있거나, 치마 재복이나 화장을 통해 차이를 강요당하기도 한다. 한편, 결혼(같은 직업 군인이라도 남성과 여성에게 결혼의 의미는 다르다. 남군은 결혼하면 아내가 내조를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하듯이 여군은 결혼을 하면 직업에 상관없이 가사에 책임을 요구받기 때문이다.)이나 임신, 출산의 문제에서 조금이라도 차이를 가지려고 하면 주년 병과를 선택해야하거나 심지어 전역을 해야 한다. 80년대 후반에 여군의 결혼과 임신이 법적으로는 허용되었지만 여전히 현실적으로는 남성적 군 문화 속에서 차이를 드러내기도 인정받기도 어렵다. 군대뿐만 아니라 일반 직장에서도 여성 노동자들은 생리, 결혼, 임신, 출산이라는 차이(기준은 언제나

나 남성이다. 결혼은 여성도 남성도 똑같이 하지만 이것은 분명 차이로 규정해야 할 영역이다)를 드러내게 되면 곧바로 차별받게 되는 경우가 흔하다. 더욱 가관인 것은 경찰대학교,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의 모습

국군간호사관학교를 통틀어서 성별로 입학을 제한시키는 곳은 국군간호사관학교가 유일하다는 것이다. 다친 군인을 보살피는 것은 '건강 수호천사', '한국의 나이팅게일'인 여성들의 역할인 것이다. 나는 이 글을 쓰기 위해 (정말 재미없는) (청춘! 신고 합니다)를 몇 편 보다가 '국군 간호사관학교' 편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그동안의 프로그램 분위기가 전투적이고 용맹스러웠던 것과는 다르게 갑자기 사랑한 분위기에 댄 춤을 놀라고, 갑자기 생도(라기보다는 마치 슈퍼모델인 듯한)들의 군복 패션쇼가 연출되는 것을 보고 또 놀랐다. 황당함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들이 훈련을 받는 장면이 나왔는데 '겨레의 능글한 아들로 태어나 조국을 지키는 보람찬 길에서-'라는 가사의 군가를 부르는 것을 보고 기운이 완전히 빠져버렸다. 여성과 여성의 성에 대한 타자화와 동일화의 이중 메시지(정희진, 2005) 속에서 땀따르려야 하는 분열. 이들은 '군인'인가, '수호천사'인가, '슈퍼모델'인가, '아들'인가? 아니면 '군인'이면서 '수호천사'이고 '슈퍼모델'이기도 하며 '아들'일 수도 있는가? 성별화된 군사주의 속에서 이들은 '수호천사'나 '슈퍼모델'이 아닌 군인일 수도 없으면서, 여성으로서의 차이를 가질 수도 없는 '아들'이어야 하는 것이다.

마치 누가 나를 봉대로 칭칭 감아 놓은 것처럼 나는 군사화된 사회



나이팅게일선서 중

세계관이라든가 나의 주체적인 능력과 의지에는 관심조차 없으니, 나는 '여자가 되어야만 의미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압박. 게다가 <청춘 신고 합니다>의 시선과 '리얼 로맨스 연애편지'의 시선이 과연 다른가? 그 둘의 시선은 내가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람(여기서 여성도 배제할 수 없다)들의 시선과는 달랐는가? 그렇다면 나는 그런 사회와, 그런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을 수 있는가? 내가 군사화된 사회와 관계를 맺기 위해 총을 들고 평화를 짓밟는 법을 배워야 할 의무는 지지 않아도 되지만, 그들이 허락해 준 공간 안에서 그들을 위안하고 그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아차피 삭제될 노동인) 의무를 다하는 것이 내게 주어진 국민 됨의 최상의 방법인 것이고, 그것이 그들과 맺을 수 있는 관계이다.

내게도 이 역할은 너무나 당연해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 역할을 하고 싶은지 아닌지, 이 불편함은 무엇인지 의문을 갖기는 커녕 인식하지도 못했다. 군대에 간 친구에게서 전화가 오면 수신자 부담이든, 다른 사람과 함께 있든, 중요하게 해야 할 일이 있든, 밥을 먹고 있든 최대한 받아줘야 한다고 생각했고, 별로 할 말이 없어도 끝까지 성실하게 매번 힘들다는 얘기 들어주면서, 안됐다고, 몸 건강하라고 있는 걱정 없는 걱정 다 해주는 게 자연스러웠다. 그런 억지스러움이 나는 자연스러웠다. 의무를 지지 못한 사람들은 아마도 군대에 간 친구가 휴가를

나와서, 혹은 군대에 다녀 온 남성이 군대 이야기를 꺼냈을 때, 말도 안 되는 얘기에는 억지로 웃느라고 힘들었다는 얘기에는 동정어린 표정을 지으려고 애썼던 경험이 있을 것이다. 화제를 돌리자고 말도 못 할 만큼 군대 얘기만 나오면 나를 수동적하게 만들었던 것은 괜히 내가 빚을 진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내가 해야 될 일을 그가 대신 더 많이 하게 된 것 같아 괜히 미안했다. 또한 그것은 일종의 금기였다. 그의 경험은 곧 국가적 경험과 일치하고, 그런 그에게 위안을 주는 것이 국민 된 자로서 내가 해야 할 일이고, 그의 경험과 그가 경험을 계속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 문제의식을 나타내거나 반감을 드러낸다는 것은 마치 국가에 대해 대항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군대에 가기 전까지만 해도 이런 저런 고민도 같이 만들어가고 서로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맺어오던 관계도 친구가 군대에 간 뒤에는 철저히 국가화된 남성 존재와 위안해 줘야 하는 존재로 만나. 관계는 거기에 매몰되고 서로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어나가지 못했다. 둘 다, 성별화된 군사주의가 사람을 바라보고 설명하는 방식으로 스스로를, 상대방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관계 속에 성별화된 군사주의가 그대로 드러나게 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그렇지 않은 관계는 어떻게 가능한가? 그 친구가 군대에 가기 전에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스스로를 설명하는 방식을 가지면 된다. 나를 칭칭 감고 있는 '보호받는 대상', '여성성', '여성의 역할', '이성애적 대상으로서의 의미', '위안'이라는 압박 봉대를 풀어 찢고 그러한 틀로 설명되지 않는 나를 내보이는 것이다. 국가 따위는 필요 없고, 국민 따위는 되고 싶지 않고, 어머니로 애인으로 환원되지 않는, 군사주의적 시선은 금금해 하지 않을 나만의 개성을 말이다. 내 친구는 '상병'이라는 계급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풍부한 사람이다. 얼메이지

않을 때 가장 아름답고, 가끔 방황해도 삶의 아름다움은 끝끝내 추구하며, 사소하고 유치한 것에 진심을 다하는 내 친구. 그는 나를 어떻게 설명해줄까?

참고문헌

권오분, '군대경험의 의미화 과정을 통해서 본 군사주의 성별정치학 : 남녀공학대학 사례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석사학위 논문, 2000.

우에노 치즈코, 이성이 옮김, 『내셔널리즘과 젠더』, 박종철출판사, 1999.

정희진, 『페미니즘의 도전』, 교양인, 2005.

예비군을 위한 군사주의 힐링^{healing} 프로젝트에서 모두를 위한 군사주의 힐링^{healing} 프로젝트로 마침내 모두를 위한 군사주의 바이러스 백신^{vaccine}

개발자 땡땡, 편집위원

이 백신은 군사주의에 대한 고민의 시작부터 고민의 마무리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평평평... : 알뜰임표 정도는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백신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것은 스물 한 살 봄부터 이어온 답답한 이 군사주의에 대한 고민 가운데 간간이 찍힌 엄표 덕분에 가능했던 것이기도 하다. 나의 고민을 함께 하며 대화를 해왔던 나의 소중한 친구들에게 무한한 감사(드려! 감사! 그런데 이런건 원래 마지막에 하는거 아니?) 이 백신을 고안한 개발자 자신이 너무 기뻐하다.

고민의 시작

대학교 1학년에서 2학년으로 한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나는 더 많은 친구들을 사귀게 되었다. 모든 게 어색하고 어설픈 1년을 보내고 나니 학교도 좀더 익숙해지고 낯선 사람들과의 만남도 덜 어렵게 된 덕분에 학교 안에서 만나게 되는 새로운 사람들과 차츰차츰 친구가

될 수 있었던 것이다. 학교 안에서 만날 수 있었던 새로운 사람들은 학교에 갓 입학한 새내기과 복학생들이다. 이들과의 관계 맺기는 봄의 활기찬 기운이 더불어 기분 좋은 일이었다. 그와 동시에 '군사주의에 대한' 고민의 시작이기도 했다. 이전에는 마주칠 수 없었던 정후들이 나에게 너무나도 새롭고도 불편하게 마주쳤기 때문이다.

첫 번째는 '예비군'¹⁵⁾이라는 개념이다. 새하기를 맞이하며 새롭게 알게 된 친구들 가운데에는 군대를 갔다온 친구들이 있었다. 그 뿐이었다. 친구들과와는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데 그 친구들이 다른 친구들과 다른 점은 (나는 경험하지 못한) 군대에서의 경험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는 것뿐이지 그 친구가 군대를 다녀왔다는 사실이나 안 다녀왔다는 사실은 나와 그 친구가 관계를 맺는데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 그런데 '예비군'이라는 개념이 전에 없이 특별하게 다가온 까닭은 새내기들이 올라오는 계시물에서 드러나는 일부 여론이었다.

'예비군은 무언가 다르다'는 의견들은 나에게 있어 새로웠다. 그래서 궁금해졌다. 무엇이 그렇게나 다르다는 것인지. 차이를 발견하는 것은 힘들었다. 작은 차이라면 적어도 그들은 '멋진 형이자 오빠'였다. 동생들을

15) 향토예비군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 향토예비군(郷土豫備軍, ROKHRF, ROK Homeland Reserve Forces)은 평상시에는 사회 생활을 하다가 유사시에 징집되는 대한민국의 비정규군이다. 전역이란 주로 현역에서 예비역으로 편입되는 것을 말한다. 직 또는 무장공비의 공세와 대남공격에 대해 향토방위태세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

(<https://ko.wikipedia.org/wiki/%ED%96%A5%ED%86%A0%EC%9D%88%ED%8F%64%EA%25%20>)

“향토 예비군의 이름은 호국의 부사로서, 군정의 동지로서, 국민의 자제로서 ‘일하면서 싸우고, 싸우면서 일하는’ 범국민적인 자유방위의 역군이며 사명은 예비군은 동원체제의 확립으로 국가 유산지 안전군의 확장을 위하여 참여하고 적의 간첩침략과 파괴에서 향토를 방위하며 자주국방 의지의 배양을 위하여 신분이 없다.”이다.

한도 예비군의 임무는 전시·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하에서 현역군부대 편성이나 작전수요를 위한 동원에 대비하여 적이나 무장공비의 침투 또는 무장소요가 있거나 그 우려가 있는 지역안에서 적이나 무장공비의 소탕과 무장 소요를 진압하고 중요시설 및 병참선을 경비하여 기타 민방위기초법에 의한 민방위업무의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http://vebagan1.mil.kr/homepage/ext/html/knowledge_012.htm)

잘 챙겨주고 다른 학우들이 잘 나서지 않는 곳은 일도 도맡아 열심히 해
내는 멋진 형이고 멋진 오빠였다.

두 번째는 예비군 훈련날의 풍경이었다. 훈련날 당일 저녁 캠퍼스는 푸른 군복으로 뒤덮혀 있었다. 내가 알고 있던 많은 친구들의 군복을 입은 모습이나 남자친구의 군복 상의를 걸쳐입은 혹은 군모를 쓴 여자친구의 모습은 충격적으로 느껴졌다.

세 번째는 학생회 게시판에 '예비군'인 친구들이 주도했던 솔로부대라는 표현을 이용한 농담조의 게시물 등 이었다. 나는 불편하게 느껴졌다. '적'의 개념화도 적에 대한 '싸움'도 너무 쉽게 이루어지지만 이 모든 것은 누군가를 실제로 해치기 위해서도 아닌 단지 '웃음'을 위한 농담이었을 뿐이었다. 아무렇지도 않게 등장한 이 농담들이 나는 '위험하다는 무섭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나는 이들(예비군)들의 문화라고 쉽게 선을 그어버렸다. 지금 생각해 보면 대한민국 국민의 절반의 사람들이 군대에 가야 하는 사람(군대를 가야 하는데 못 가는 사람, 군대를 가야 하는데 안 가는 사람 포함)과 군대를 갔다 온 사람으로 구분되고 또 그들과 나는 관계를 맺고 있다. 군대와 나의 일상은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닌데 나는 군대와 군인에 대해서 굉장히 거리를 두고 생각했던 것이다.

고인의 대안

나의 이런 불편하고 무서운 감정은 나만이 느끼는 거라고 그냥 덮어 두었지만 다른 친구들과 우연히 이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많은 부분을 나와 비슷한 감정을 공유하고 있었다. 그리고 앤의 창간호 기획을

'군사주의'로 창하게 되었고 나는 '예비역을 위한 힐링 프로젝트'라는 기획을 구상했다. 1학기 때 들었던 인권과 평화라는 수업에서 참전했던 군인들이 일상에 적응하는 것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들었고 그것에서 모티브를 얻은 것이다. 전쟁이라는 참혹하고 비인간적인 상황을 경험한다는 것은 한 인간으로서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큰 충격을 주게 되고 그래서 전쟁이라는 비일상에서 일상으로 나왔을 때 적응하는데 장애가 많다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국가에서는 그들을 위한 일종의 치유 프로그램이 있다고 강의를 해주신 분이 말씀해 주었다. 그 기억을 통해 나는 생각했다.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만큼은 아니지만 전쟁을 대비하여(혹은 준비하는) 훈련되어지는 군대에서의 경험 또한 한 개인에게 강요되어 지는 것들을 통해 상처가 될 수 있고 그 상처는 2년이 지나 전역을 하고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 적응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치유프로그램이 있다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대안에 대한 반론 그리고 수정

이런 나의 기획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비판을 해 주었던 사람은 군대를 경험한 나의 남자 친구였다. 나의 기획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불편하게 생각했는데 우선 '예비역'이라는 대상을 타자와 내지는 대상화시켰다는 것이다. 예비역과 예비역이 아닌 사람은 크게 다르지 않고 예비역이라는 군대를 경험한 다양한 다수를 하나의 대상으로 묶어버린 것은 잘 못 되었다고 말했다. 또 '치유가 필요한 대상'과 '치유가 필요하지 않은 대상'은 어떻게 구분 될 수 있냐고 지적했다. '치유'라는 개념에 대해 동의 할 수 없으며 '군대를 경험한 사

람 모두는 치유가 필요하다'는 생각은 위험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비판과 더불어 군사주의에 대한 공부를 해 나가면서 '군사주의'를 인식하는 데 있어 군대라는 틀 안에서만 사유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군대는 독립되어 존재할 수가 없다. 외부의 적과 그 적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할 대상이 있어야 (나라를 가축을 지키는) 군대의 존재는 정당화 될 수 있다. 그러므로 군사주의의 대상 또한 군대를 경험한 사람만이 아닌 군대와 관계된 모든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대상과 대상이 아닌 사람을 구분하는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었다. 또 군대 안에서 비판되어지는 나쁜 속성(권위성, 위계성, 공격성, 폭력성, 성별성 혹은 성차별성 등)들은 군대 밖 사회에서도 여실히 드러나는 것들이었다. 군대의 안과 밖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며 유지되는 것들이기도 했다.

그래서 예초의 프로젝트를 수정하기로 했다. '모두를 위한 군사주의 힐링(healing) 프로젝트'로 그리고 더 생각하다 보니 마침내 '모두를 위한 군사주의 바이러스 백신(vaccine)'으로 결정했다.

군사주의에 대한 정의

그렇다면 도대체 군사주의란 무엇일까? 군사주의란 '안전'을 이유로 폭력을 정당화 시키는 신념체계이다.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폭력은 필요하며, 이러한 폭력(또는 전쟁)이 언제든 가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훈련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것은 언제 어디서든 가능하다. 가정, 학교, 장난감, 패션, 영화, 책, 결혼, 스포츠 등 호전적인 가치에 의존하고 전쟁을 준비하는데 동원되는 것을 정당화 시킬 수 있다. 나는 군사주의가 가르치고

있는 두 가지에 주목한다. '우리(아군)'와 '그들(적군)' 그리고 '남성'과 '여성'이다. 이 것은 군사주의를 유지시키는 중요한 구분이라고 생각한다.

모든 차이가 '우리' 안으로 포함될 수 있다면 전쟁은 일어날 수 없다. 전쟁이 그리고 군대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우리와 구분되어지는 그들(적)은 꼭 필요하다. 다름이 갈등을 일으키고 그것은 적개심으로 발전되어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강인한 전사(군인)로서의 남성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남성다움을 보완시키기 위해 상대적으로 연약하고 보호가 필요한 여성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가부장제와 군사주의는 상당 부분이 맞닿아있다.

이러한 군사주의는 우리의 일상 곳곳에서 발견될 수 있다.

#1-1 중국음식점에 여러 사람이 식사를 하러 갔을 때 메뉴를 정함에 있어 권위(나이랴던가 직위를 통해 획득한) 있는 한 사람이 "함뽕으로 통일, 군말 없지?"라고 선언하는 것

#1-2 여럿이 식사를 할 때면 '물을 마와야 하는 사람, 고기를 말 없이 구워야 하는 사람'은 '위 아래' '선배와 후배' 등의 기준에 따라 고정적으로 정해져 있다.

⇒ 위계질서의 문화(상명하복, 上命下服의 문화), 힘의 논리를 발견할 수 있다.

#2 고등학교 시절, 자율학습 시간 몇 명의 친구들이 떠들었다는 이유로 반 전체가 기합 또는 체벌을 받았던 기억

⇒ 연대책임/집단지합의 문화(목적을 통해 집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목적성때, 집단을 위해 개인의 행복과 인권은 무시되어도 좋다는 집단주의), 인격모독

#3 초등학교 때부터 중고등학교 때 이 때에는 주로 여학교를 다녔던 학생들이 이까지 재향사간이나 국어사간에 모두가 싸야만 했던 '고마우신 군인이저씨'로 시작되던 위문 편지.

⇒ 나라를 지키는 군인 '아저씨'와 군인 아저씨의 보호 안에서 아저씨께 고마움을 표현하는 '소녀', 이 소녀는 자라서 군대 간 남자친구를 맞바라지 하며 고무신을 자꾸로 신어서 안되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

#4 군대 간 남자친구와의 관계를 고민하는 여자친구에게 "자칫하면 00이 탈영할지도 몰라. 다시 한 번 잘 생각해봐."라고 조언하는 상황

⇒ 군대 간 남자친구와의 이별은 국가 안보에 위기를 가져다 주는 것이다.

#5 칠없는(칠었다고 보여지는) 친척 오빠에게 어른들이 "저 녀석 언제 사람되나? 빨리 군대나 갔다 와!"라고 말하는 것

⇒ 군대에 다녀와야지 '대한민국의 정상적인 어른 남성'으로서 인정 받을 수 있다. 군대는 국가와 사회가 인정하는 남성 훈육기관이다. 나라를 지킨 '대한민국의 정상적인 어른 남성'은 이육고 '내(배우자)'를 지키고 '가정'을 지킨다.

#6 군사적 긴장과 군비 경쟁에 대한 언론의 보도

⇒ 위기와 위협은 늘 강조된다. 그에 따라 더 강한 군대, 더 강한 안보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된다. 그러나 어떤 국가도 자신만의 힘으로 절대안보를 구축할 수 없다. 군비경쟁만 지속될 뿐이다. 또한 국가안보패러다임은 인권과 시민의 평화라는 근본적인 가치들을 약화시켜왔다. 군사력은 증강될 수 있어도 개인의 평화적 생존권은 보장되지 못한다.¹⁶⁾

16) 군대가 평화 대추리, 도두리 주민들의 평화로운 일상을 지켜주었는가? 군대가 여성들의 무서운 밤길을 지켜줄 수 있는가? 군대가 장애인들의 보행에 위협적인 장애물들과 싸워줄 수 있는가? 군대가 가난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빈곤과 자연재해의 위험을 막아주는가? 등의 다양한 질문들이 가능하다.

※ 태국 전사(戰士), 한일전(戰), 사령탑(司令塔)

⇒ 축구는 단지 스포츠가 아닌 전쟁이다. 선수는 전사며 감독은 사령탑이다. 전술에 따라 싸우고 경기의 승패는 국민들에게 큰 영향을 끼친다. 스포츠만큼 언론에 보도될 때 군사용어를 빈번하게 사용하는 것도 없을 것이다.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즐기고 있는 문화 곳곳에 아무렇지도 않게 군사주의가 감춰져있다.

군사주의에 감염되면 이런 점이 불편합니다

증세1. 불안합니다

사방에는 적들이고 적들은 더 많은 무기, 더 강한 무기를 개발하고 또 사들입니다.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르지요, '위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위기 상황'은 사회를 사람들을 불안하게 합니다. 불안은 중요하고 기본적인 가치인 '인권' 등을 잊게 하고, 여성, 노인, 아동, 장애인, 등과 같은 배제되는 사람들을 발생시킵니다. 조급하게 되고 싸움이 더 쉽게 발생 가능하게 됩니다.

증세2. '난 하기 싫는데' 강요되는 역할(의무)을 수행해야 합니다

국가 안보를 위해 개인은 자신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국가에 의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군대에 가야 합니다. 여성은 군대에 가야 하는 의무를 수행하는 불쌍한 남자들을 뒤에서 지원해주어야 합니다.(애인의 모습으로 어머니의 모습으로) 나라를 지킨 남성은 가정도 지켜야 합니다. 여성은 가정을 잘 돌봐야 합니다. 선배 또는 높은 직위의 사람이기 때문에 적어도 후배 앞에서는 위엄 있어야 하고 약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고 후배들에게 밥도 사주어야 합니다. 후

배 또는 낮은 직위의 사람이기 때문에 선배들의 가급적 말에 따라야 하고(말대꾸는 안 됩니다.) 알아서 눈치껏 미리 잘 해야 하는 일도 많아집니다.

증세3. 아픔입니다

위계질서를 유지(또는 힘의 논리를 관철시킴)하기 위해, 집단의 목적에 개인들을 귀속시키기 위해 폭력은 자주 이용됩니다. 그리고 폭력은 가하는 사람과 당하는 사람 모두를 아프게 하지요. 군사주의는 전쟁의 가동성을 줄여주지 못합니다. 전쟁은 많은 사람을 아프게 합니다.(많은 사상자와 부상자를 낳습니다.)

군사주의 바이러스 백신

① 우는 건 부끄럽지 않아요

남자는 태어나서 세 번 운다고 했던가요? 남성들은 생물학적으로 여성에 비해 눈물샘이 발달하지 않은 까닭에선가요? 사회가 군대가 그러니까 군대화된 사회가 요구하는 남성의 모습에는 '눈물을 흘리는 모습'은 존재 하지 않아요. 그러나 남자라고 항상 용감하고 씩씩할 수는 없겠죠. 자신의 모습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은 아름다워요. 자신의 욕망을 감추고 개성과 감성을 희생하면서까지 '용감한 전사'의 역할을 수행할 필요는 없어요.

② 의무감으로 위문편지를 쓰지 마세요

군대를 가는 남자친구들이 불쌍해요. 나는 안 갈 수 있는 군대이지

만 강제적으로 군대를 가야하는 친구들, 웬지 나에게도 주어진 의무를 대신해 주는 것 같아 한편으로는 미안한 마음도 들어요. 그러나 미안한 마음의 방향을 바꿔보아요. 군대를 가야 하는 의무를 지는 사람과 의무를 지지 않았기 때문에 미안한 사람, 그 둘이 정해져 있다는 것은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3] 살림은 나의 힘

당신은 어떻게 삶을 구성하고 계신가요? 당신에 대한 예상을 인질로 사랑하는 누군가에게(어머니 또는 아버지, 부인 혹은 남편, 여자친구 혹은 남자친구 등)에게 자신을 위한 그림자 노동을 요구 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와 동시에 상대의 삶을 야금야금 갉아먹고 있는 건 아닌지요? 당신 자신의 삶을 직접 보살피고 살아나게 하는 소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버리고 계시지는 않나요?

살림은 한국 여성들이 매일 하는 가정일을 일컫음. 예를 들면 나무하기, 물 길기, 음식하기, 빨래하기, 배 짜기, 아이 키우기, 병감호, 노인 돌보기, 꽃·나무 가꾸기, 우물 지키기, 소·닭·개 키우기, 그리고 집의 영들을 돌보기 등. 살림은 또한 망가지는 것(냄비, 신발, 그리고 가솔 등)을 고치는 일을 일컫음. 한국 사람들이 '저 여자 살림꾼이네' 하고 말하면 그것은 그 여성이 모든 것을 살아나게 하는 기술, 예술, 전문성이 있음을 말함. 예를 들면 모든 사람을 배부르고 행복하게 먹이는 것, 가족의 평화, 건강, 풍요함을 끌어내는 것이 때의 가족은 모든 종류의 생명을 포용하는 큰 가족 개념을 의미). 아름다운 삶의 환경을 만드는 일 등.¹⁷⁾

살림을 한다는 것은 자신의 삶을 직접 구성하는 것을 넘어 또 다른

다양한 감수성이 열릴 수 있게 합니다. 먹거리를 직접 고르고 요리하며, 매일 청소를 하고 쓰레기를 모으고 버리며, 입을 옷을 빨래 하고 널으며 전에 없던 고민들이 생겨나고 반성하게 되고 성장하게 됩니다. 모든 살아 있는 것과 연관되어 있는 나 자신을 발견 할 수 있습니다. 잊고 있던 무시했던 내 안에서 죽어버렸던 관계들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4] '적'은 없어요

역사책에 나오는 거의 모든 전쟁은 이렇게 시작하죠. '평화롭게 살고 있던 우리나라를 적이 침략했기 때문에 그 적을 무찌르기 위해 전쟁은 시작되고야 말았다.' 그렇다면 그 적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모든 군대는 침략을 위해 존재한다기 보다는 방어를 위해 존재하지요.(또는 존재한다고 하지요.) 그렇다면 적은 없어요. 군대는 무엇으로부터 '국가'를 지키는 것일까요?

군대는 국가 안의 사람들의 평화를 보장해주고 있나요? 그렇다면 군대는 무엇으로부터 무엇을 지키는 것일까요?

우래(아군)와 그들(적군)을 가르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다름이고 그 다름을 차별적으로 인식 하는 것이라면 이제는 그 다름을 인정하고 일원화된 기준과 가치를 거부하는 것은 어떨까요?

[5] 군기(軍紀) 잡아야 할까요?

군대의 기강, 다시 말해 군대의 규율과 법도를 이르는 '군기'라는 말은 신기하게도 군대 안에서 만큼이나 군대 밖에서도 자주 쓰이고 있으며 그 중요성 또한 강조되고 있습니다. 작년 봄, 한 언론의 보도에서 체대 내에서의 폭력적인 군기 잡기에 대해서 보도¹⁸⁾하여 화제가 된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체육계 뿐만이 아니라 예술계, 학교, 직장 등 다양한 곳에서

17) 현경, 『살림이스트 선언』, 『미래에서 온 편지』, 열림원, 2001

'군기가 빠졌다' '군기를 잡다' '군기 반장' 등의 말들은 일상적으로 쓰이고 있지요. '극기 훈련'이나 '병영 체험' 등의 체험 활동은 학교나 직장에서 정규 과정으로 편성하는 경우가 많아요.

'군기를 잡는다'는 폭력을 통해 위계질서를 체득해 나가는 것으로 타율적이면서도 자발적인 복종을 요구합니다. 또 '군기 잡기'는 계속 되풀이되며 폭력을 재생산시킨다는데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고정된 위계적 질서는 평등하고 자유로운 평화적인 관계 맺기를 방해합니다. 군기 '계속' 잡아야 할까요?

[6] ? : 또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군사주의를 요구하는 힘들은 너무 많아요. 자본주의도 민족주의도 가부장주의도 권위주의도 그밖의 많은 '힘있는' 주의. 주의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유지시키려고 군사주의를 붙잡고 있지요. 군사주의를 해체해나가는 일상적인 움직임, 그 모든 것이 평화라고 생각합니다.

순응을 요구하는 관성에 저항하기 위해 다양한 움직임이 시작될 수 있어요. 국가에 대한 경례 거부하기, 청소년 인권운동에 동참하기, 대안 생리대 사용하기, 자전거 타기, 채식위주의 식사를 지향하기 등 당신의 고민이 깊어지고 넓어질 수록 하고 싶은 일은 할 수 있는 일은 많아질 거예요. 요구되는 '역할과 의무'를 수행하기보다는 좀더 창조적인 '나만의 할 일'을 구상하고 '평화적이고 소통적인 관계'를 고민하는 것부터가 시작이지요.

18) 김창금, 「2006년 3월 체육대학은 아직도 '병영」, 『한겨레』, 2006년 3월 9일자;
김창금, 「여긴 감금」-「저긴 처벌」-체대 폭력 실태 분석, 『한겨레』, 2007년 3월 11일
박주희, 「체대서 또 군대보다 더한 '군기잡기」, 『한겨레』, 2007년 11월 6일

일상, 허물고 다시 세우기

공의택배, 편집위원

키 그 겨울, 그 강의실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나?

지난겨울, 먼저 이 이야기의 시작은 그 때로 거슬러 갑니다. 제가 막 2학년이 되고 새로운 1학년 친구들이 입학식을 하기 직전, 바로 그때입니다. 그 날은 예비 1학년들을 위한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되던 날이었습니다. 당시 학교 측은 영어 수업의 수준별 분반을 위해 입학생을 대상으로 일방적으로 영어 시험을 진행하려고 하던 중이었고, '비대위'19)가 (당시 저는 이 모임에 속해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부당성을 오리엔테이션 장소에 모인 1학년 학우들에게 전하는 과정에서 아주 뜻밖인 '그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시험에 관련하여 비대위 중 한 친구의 입장 전달이 끝나고 몇 분 후, 여전히 오리엔테이션이 한창 진행 중이던 강의실로 갑자

19) 당시 학부의 임시 학생회, 이하 '평의회'로 표기함.

기 한 교수님께서 들어오셨지요 그리고 '야 비대위, 다 나와 어디서 첫 날부터 선동이야' 라며 크게 소리 치셨고 그 분과, 또 다른 교수님께서 강의실 밖으로 나온 비대위 친구 중 몇 명에게 일방적이고 고압적인 방식으로 폭언을(이런 과격한 단어를 선택해도 될까요. 다른 적절한 단어가 떠오르지 않네요) 하셨지요.

솔직히 말하자면 그 몇 분간은, 저에게 있어 너무도 놀라웠고 또 공포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그 교수님과 또 다른 교수님께서 몇 명의 학생인 우리들에게 다짜고짜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시는 그 상황은 한 친구에게는 눈물을 쏟게 할 만큼, 저에게는 얼떨떨할 만큼의 공포를 만들어 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뒤 개강을 했고 저희들은 그 일을 어떤 방식으로든 문제 제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수님들께 '비대위의 이름으로 편지를 보냈으나 그 교수님들로부터는 아무런 답변을 받을 수 없었고 그 일은 잊혀져갔습니다. 당시 새 학기의 정신없음과 지쳤다는 이유로 그 사건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던 것은, 지금까지도 두고두고 아쉬운 일입니다.

비대위의 입장에 철저히 잘못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때의 교수님께서 취하신 방식은 납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잘못 전한 정보였다면, 지적하고 시정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요. 하지만 그 때 저와 친구들을 비롯하여 막 학교에 입학하려고 하던 1학년 친구들 또한 일방적으로 겪은 그 상황은 저에게 있어 사실 '폭력'에 가깝게 느껴졌습니다. 또한 교수님들의 그러한 방식은 학생은 학교 전반의 행정 사항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인 것 같이 들리기도 했습니다. 저는 존경과 학문적, 사회적 지위를 가진 교수님들이 학생들에게 일방적으로 큰 목소리로 소리를 지르시는 상황이 '대학'이라는 공간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에 아마도, 그때 꽤 놀랐던 것 같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우리가 솔하게

보아오던 교사와 학생의 관계, 불평등하고 차별이 빈번이 이루어지고 학생의 복장, 언행, 인격에 대한 온갖 간섭과 무시가 자행되고 있던 그때의 '교육의 현장'과 이 대학 사회는 분명히 다르다고 1년 간 믿어왔던 저에게, 그것은 아마도 마치 충격과도 같았던 모양입니다. '지성의 전당'으로 불리고, 학생과 교수가 학문적인 토론이 가능하다고 하면, 학생들이 바꾸고 만들어낸다고 믿었던, 인격과 고등 학문을 배우는 곳인 바로 이곳에서요, 무엇보다, 제가 이전까지 겪어온 불합리한 교사-학생, 학교-학생 간의 관계가 이 '대학'이라는 공간에서도 재현되고 있다는 것에 말입니다.

여전히 대학 또한 이전의 공교육의 모습과 다르지 않은 많은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일방적인 학사 행정에 학생들은 종속되어야 합니다. 최근에 학교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몇 가지 일들을 보아도, 행정 전반의 일에는 학생이 '투쟁' 없는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학교는 학교, 학생은 학생, 교수는 교수. 과연 우리들이 함께 이 학교를 이끌고 있는 게 맞나요? 우리가 애정을 갖고 있는 학교라고 해도, 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위에서 시키는 대로 따를 뿐입니다. 당시의 영어시험은 어쩌면 학생들이 질 높고 훌륭한 영어 수업을 받을 수 있을 기회가 될 수 있었을 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이 공간에서 그러한 일들을 함께 결정하거나 '선택' 할 수 없는, '명령' 받고 따라야 하는 수동자일 뿐입니다. 그 때의 우리들은 명령체제를 거부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교수님으로부터의 고압적인 폭언을 들으며, 바로 그 자리에서 학교와 교수의 '권위'에 도전한 값을 묵묵히 치러낸 것이지요. 위에서 지시 내리고, 밑에서 군소리 없이 따라야 하는 체계 속에서 그 교수님 또한 자유로울 수 없었던 것입니다.

#2 나의 2년 전을 기억하나요?

그런 우리들의 중고등학교 시절을 모두 기억하시지요? 자극히 평범하고 '정상적' 코스의 공교육 학생으로 자라온 저의 교육과 머리 모양은, 심지어 가방까지도 학교 친구들과 모두 똑같은 모습을 한 채 색깔이 있는 신발도, 머리끈도, 양말도 허용되지 않던 시절. 그것이 고작 저로부터는 2년 멀어졌을 뿐입니다. 그 똑같은 겉모습이 실제로 우리를 얼마나 통합시키고 협동시켰는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른 여고와의 체육대회에서 일사불란한 모습으로 응원 했고, 옛 명문 여고의 빛나는 이름을 더럽히지 않도록 행동해야 한다는, 그런 주문이 우리를 향한 지시 속에 공기처럼 내리고 있었음을 저는 감지했습니다. 교사와 학생의 경계가 명확한 공간 속에서 학생들은 즐기나, 반항했고 중학교 시절 나의 선생님들은 우리의 가방을, 주머니 속을 더듬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담배가 발견된 아이들은 복도로 불러나가곤 했습니다. 그런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낸 제가 이런 글을 쓰고 있는 것조차도 아주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아, 평소 제가 자위하는 대로 공교육의 실패를 몇 년 동안 몸소 겪으며 자라 와서 그것에 대해 무뎠지는 대신 도리어 불평으로부터 비판적 통찰이 생긴 건가요? 우리들이 대학에 와서까지 수업 시간의 질문에 침묵하는 것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이것이 마치 갑작스럽게 '열려버린' 사회처럼 느껴집니다. 중·고등학교 때로부터 달라져 갑작스럽게 열려진 공간이라는 생각 말이죠. 이삼 년 동안 조용히 문제집만 풀어내고 수용하는 수업에 익숙해져있던 우리들에게 수업시간에도 너네가 직접 발제를 하라 하고, 끝없이 질문 하라 하고, 왜 너네는 호기심이 없냐고 묻는 수업 시간이, 그렇게 고작 1년 사이 갑작스레 변해버린 이 공기가 낯설었던 것은 지 쯤일까요? 학교에서 학생들은 즐시기와 경쟁을 배우지요.

그리고 '복종하는 법'을 배웁니다. 말대꾸하지 못하는 법을 배웁니다. 학교는 공부 잘 하고 말 잘 듣는 '평균적' 학생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평균적인 '학생', 복종하는 '국민'을 양성해내는 가장 효과적인 장소는 예전부터 학교였습니다. 자유 경쟁 자본주의 시대의 학교는 보호, 선발, 교화, 교육이라는 네 가지의 기능을 담당했는데 이 중에서 제도화된 생산 노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어린이 세대의 격리 '보호', 숙련된 노동자 '선발'과 국가주의적 인간을 만드는 '교화' 기능을 중점적으로 수행해 왔습니다. 다시 말해, 당시의 학교는 국가를 위해 반복적 노동을 사명감에 차서 해내는 노동자, 그들 위에 군림하는 관료, 전쟁이 발발하면 울분에 차 전쟁에 자원해 나가는 애국 청년을 기르는 데에 그 목표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한국의 학교는 일제 강점기에 대중화되었고 당시 일본 제국주의적 지배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해방 후 최근까지 지속되고 있는 제도 교육 역시 정당성 시비에 시달리던 정권 아래서 그 정당성을 확인해 주는 역할을 해왔지요. 이러한 역사적 사실들은 교육이 근대화를 위한 자율성을 갖기보다 정권의 하부 구조로서 존재해 왔다는 것을 말해주며, 이는 현재 학교 문화가 얼마나 관료적 권위주의 체제로 굳어져 왔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²⁰⁾ 최근에 읽은 책에서 현재 한국 사회 문화적 위기는 '새로운 인력을 길러내야 할 교육이 권력에 종속된 데에서 기인'²¹⁾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한 것은 그리하여 설득력을 갖습니다. 이처럼 학교 속에서 학생들은 똑같은 가치를 교육 받아왔고, 지금도 그러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이 글에서 좀 더 규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 조한배정, 「1. 교육 역사 그리고 문화」, 『학교를 거부하는 아이, 아이를 거부하는 사회』, 토리나의문화, 1996.

21) 조한배정, 「청소년, 그들이 살아갈 세상에 대하여」, 『왜 지금, 청소년?』, 토리나의문화, 2002.

여름 방학 동안 이 기획을 위해 군사주의에 대한 세미나를 하며 우리는 군대에서 대학과 소수자, 일상으로 그리고 안보와 국가와 문제로 나아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군대와 국가, 뭔가 냄새가 나지 않나요? 아니면 군대 얘기 하는데 왜 국가가 나와야하는지 좀 뜬금없으신가요? 우리는 군대에서 안보를 담보 받고 있습니다. 국가의 안보와 우리 개인의 그것이 완벽히 동일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대의 국가는 징병제으로써 남성들을 국가의 중심으로 두었고, 군대에 가는 것을 '국가에 대한 신성한 의무'라고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반공 의식을 고취했습니다. 그리고 국가에 대한 충성심, 애국심을 고양해왔지요. 국가의 평화는 곧 너의 평화, 군대가 너희를 지켜 주리라는, 그러한 굳은 믿음. 그렇기에 군대에 대한 문제제기는 곧 국가에 대한 비판입니다. 도전입니다. 군대를 가지 않는 것은(그것이 기피든, 거부든) 겁쟁이의 '정정당'이 되거나 '범죄로' 확정됩니다. 그것은 국가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기 때문이죠. '아니, 신성한 국가의 부르심에 감히 반기를 들다니!' 하고 말입니다. 너희들의 평안과 안보를 보장해 줄 것이 너무나도 분명한 신성한 그 군대에 대해 말입니다. 그렇기에 연예인들이 군복무 하는 것이 그의 아주 큰 자랑이요, 연예계 '훈훈한 미담'처럼 여겨지는 것도 한국 안에 존재하는 군대와 국가의 권위를 나타내주는 훈훈한 지표입니다. 그 권위는 더 미시적으로 들여다보면 국가 속에 존재하는 개인과 집단에서, 학교나 회사 혹은 단체에서의 선배-후배 간의 관계, 연명주의 등과 맞닿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성에게 군대에 갈 의무가 주어졌는지 않은 것은 단순히 여성을 '군대 가지 않아 부러운 존재'로만 만드는 것이 아닌, 여성으로부터 정당

하고 당당한 국민이 될 자격 또한 자연스레 박탈하는 것입니다. 이는 여성 뿐 아니라 장애인, '정상적이고 평균적'이지 못한 남성에게 또한 그러합니다. 이들은 당연히 군대를 다녀온 '정상인 남성'들이 경험하고 공감하는 '예비역 문화'라는 것과 '형제애'(그것은 마치 전장에서의 전우애와도 같은 끈끈함으로 점철된 듯 해 보이더군요) 등으로부터도 소외됩니다. 저는 물론 그 '예비역' 문화 혹은 '형제애'에 동화되거나 거기에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러한 군사주의, 권위주의적인 문화들로부터 소수자는 배제되거나 주변화 되며 그것들이 학교나 많은 집단 내에서의 일상을 만들어낸다는 데 있습니다. 전 어느 누구라고 해도 어렵지 않게 겪을 수 있는 권위주의가 이 나라에 당당히 존재하고 있는 징집제, 군사주의로부터 뿌리 깊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군대를 가지 않았지만 그리고 10인의 편집위원 중 어느 누구도 군대의 경험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삶 속의 군사화에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네 삶이 곧 '군사화'의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권인숙 씨가 군사화된 적이 있었던 여성의 삶을 분석하라는 과제로, 해병대령이던 아버지를 둔 여성에게 전화했을 때 오히려 그녀로부터 "당신의 삶이 군사화 되었던 것 아닌가요?"라는 물음을 받았을 때²²⁾의 당혹스러움, 한 번도 자신의 삶은 군대와 연결 지어 생각해 보지 않았던 당혹스러움이 전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했던 그 충격과도 비슷한 느낌이라고 말해도 될까요? 저희가 군사주의를 고민하게 된 이유는 거기 있습니다. 군사주의와 군대 문화라는 것이 이미 우리를 깊숙이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해체하지 않고는 우리의 일상을 재편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22) 권인숙, 「대한민국은 군대다」, 창년사

지난 8월, 저는 앤 친구들과 처음으로 '1인 시위'라는 것을 했습니다. 무뎠던 그 여름 날, 우리는 작열하던 태양보다 더 오랜 시간동안 강렬했던 '국기에 대한 경례와 맹세'에 안녕을 고한 것이지요. 제가 초등학교를 다닐 적 매주 두 번, 우리들은 모조리 운동장에 일렬로 모여 섰습니다. 언젠가 코미디 프로에서 슬하게 모방되던, 교장 선생님을 모시고 몇 명 학생들이 퍽퍽 쓰러질 때까지도 이어지곤 하던, 바로 그 장면 말이에요. 당시 그 '애국조회'와 '전체조회'에서의 저는 오히려 자극히 '모범생'에 가까웠습니다. 조회 초반부, 교장 선생님 훈화 말씀 전 항상 따라붙던 '국기에 대한 경례' 시간에 다른 친구들처럼 떠든다거나 껄껄하고 '불순한 자세'로 임하는 것은 웬지 뭔가 커다란 잘못된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아마 그 시간은 그렇게 꼳꼳한 자세와 경건한 마음으로 임해야 하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국기에 대한 충성이 왜 위험한 것인지, 무엇을 숨기고 있는 것인지, 내가 복종해야 하는 '국가'의 실체는 무엇인지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말 해주지 않았고, 알아낼 수도 없었지요. 그때의 저는 이미(그 어린 나이에) '국민 됨'에 익숙해져 있었던 겁니다. 그랬던 제가 인권이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2002년 여름 다들 황홀해 마지않던 '대-한민국'의 열기 속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어릴 적 경건한 마음으로 임했던 바로 그 '국기에 대한 맹세와 충성'의 정체는 실제로 얼마나 허상인지, 그리고 그게 어떻게 날 억압하고 나에게 어떤 것을 강요하는지 어렵듯하게나마 알게 된 것입니다. 국가는 군대를 이루고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국민'을, '시민'을 형성해왔습니다. 문승숙은 '군사화된 근대성'이라는 개념으로써 사회 정치적, 경제적 구조가 형성되는 과정의 세 가지 중심 요소를 밝힙니다. 반공 국가인 근대 국가를 건설

하는 것, 국가 구성원들을 '국민'으로 만드는 것, 징집제를 산업화하는 경제조직으로 통합하는 것, 이 세 요소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군사화된 근대화 시기(1963~1987)에 물리적 강제력과 무코가 말한 '훈육'의 혼합이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²³⁾

우리들이 유치원에서부터 죽을 때 까지 학교, 군대, 온갖 행사장, 의식 등에서 끊임없이 교육 받는('세뇌'받는) '국가에 대한 맹세와 충성' 또한 그 '훈육'의 맥락 위에 함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든, 국가의 일에 대한 시민의 불복종을 허하지 않는 무조건적인 충성의 관계. 그리하여 시민은 국가에 종속되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을 다한다'는 그 무시무시한 맹세는 국가를 위해서라면 개인의 존엄과 인권쯤은 충분히 부차적일 수 있다는 것인데, 이는 국가라는 이름으로 개인에게 행하는 폭력일 뿐 아니라 한국 사회의 대표적 속성인 군사주의적 권위주의로 이어집니다. 군대에서의 가장 기본은 그들이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거의 유일한 공식적 집단이며 군대는 곧 국가와 동일시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군대에 대한 도전은 곧 국가에 대한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국가에 대한 맹세와 경례 불복종의 조류는 국가 뿐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 내재해 있는 군사주의적 폭력성을 성찰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흐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5 이데올로기, 국가, 학교, 군대, 다시 일상으로

이데올로기와 국가, 그리고 학교와 군대는 마치 일직선 위의 점과도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 그 일직선 위에 우리의 일상도 위태롭게 위

23) 문승숙, 『군사주의에 갇힌 근대』, 또 하나의 문화

치하고 있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것이 '우리 안의 파시즘'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국가주의적 발상과 권위주의에 기반한 교육, 그 속의 관계맺음 방식은 군사적 가치가 뿌리 깊은 한국 사회와 깊이 이어져 있습니다. 군대는 사실 위계관계를 '가르치는' 곳, 아랫사람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곳. 그렇게 말한다면 이진 지나친 비약일까요? 여자인 제가 군대에 가지 않는(갈 수 없는) 제가 뭘 모르고 하는 말인가요? 항상 여성인 내가, 게다가 '페미니스트'인 내가 '군대에' 말 할 때면 어떤 장벽에 부딪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군대에 갈 의무가 없는 '여자', 군대에 가기에 '연약한 여자', 그저 고분고분 '보호'를 받으면 되는 여자, 그런 '여자'인 내가 군대에 대해 말할 때면 '군대에 갔다 오지 않아서 모르시겠지만' 혹은 '군대에 가지도 않는 여자가...' 등등의 말로 입막음을 당한 기억이 있기 때문입니다. 비엔의 군사주의 기획글들을 보고 대체 이들이 무얼 알 것이냐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을지도 모르죠. 아니, 어쩌면 확실히요. 하지만, 경험해보지 못한 자는 말 할 수 없다면 그것은 더욱 편협해 질 뿐입니다. 그리고 더 정확히 말하자면, 우리는 '경험하지 못한 자'가 아닙니다. 여성도 군대에 가지 '못'하는 장애인 혹은 '비정상적' 남성들도 '광의의 군대'를 경험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말입니다.

전 오랫동안 군대를 떠올리면 연상되는 그 불합리성에 대해 생각하곤 했습니다. 모든 것이 권위와 명령의 체계로 귀결되는 곳. 거기에는 어떠한 이성과 '정의'도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사회에서는 그렇게도 쉽게 통용되던 연명주의와 학벌주의조차도 그 틈에는 들어갈 수가 없지요. 그 걸 뛰어넘을 만큼 견고하게 솟아있는 벽. 그것의 실체는, 과연 무엇으로 설명될 수 있을지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군대에서는 모든 이들은 흔히 말하는 '짬밥'으로 존재합니다. 그들은 '상병', '이병', '일등병' 등으로

설명됩니다. 그 속에는 그들이 무얼 잘 하는지, 무얼 좋아하는지,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군대가 아닌 어떤 곳에서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무형의 그 누군가(어떤가)를 향해 총을 잡는 일이 아닌 다른 어떤 것에 대한 욕망이 있는지, 후임병에게 이곳의 문화를 '전수'하기 위한 '복음기'가 아닌 다른 어떤 창조적인 일을 하고 싶어 하는지, '막내'라는 이유로 후임의 군화를 닦아주거나 TV 채널을 돌려주는 일이 아닌 무엇에 마음이 있는지, 그런 개개인들의 특성으로는 아무것도 그를 설명해내지 못합니다. 아니, 설명 이전에 그것은 고려되지조차 못합니다. 그 사람의 '짬밥'이 어떻게 되는지, 나보다 얼마만큼 선임이고 후임인지 그것만이 그가 누구인가를 이야기해줍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그들 사이를 지배합니다. 그들의 관계를 규정합니다. 군대 시스템을 장악하고 구성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위계 관계와 서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없이는 군대는 존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상명하복 시스템은 군대 밖의 사회로까지 확대 재생산됩니다. 군대에서 아랫사람을 어떻게 부려야 하는지, 윗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약자로 존재해야 하는지를 철저히 배워온 이들은 군대 밖에서 또 다른 군대를 구성해냅니다. 회사에서 학교에서, 선후배 관계에서, 여자 친구와의 관계에서, 이렇게 일상온 군사화 되어갑니다.

46 언어로부터 관계 맺기

많은 사람들은 자신보다 어리다는 (혹은 어려보인다) 이유로 저에게 "말 너무 되지?"라고 선언하듯 묻곤 합니다. 그건 초면일 때조차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처음 보는, 그러나 자신보다 어린 사람에게 아무렇지

도 알게 반말을 해도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나이'라는 절대적 잣대를 통해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를 먼저 규정하는 것인데, 그것이 언어에 또 다시 '권력'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보통 말에서부터 관계는 시작되곤 합니다. 자신보다 나이가 적다는 이유로, 지위가 낮은 사람이라고 해서 선연적으로 자신이 단연코 호칭과 권력의 우위를 점해도 좋다는 그 자신감. 그게 권위주의로부터 나왔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2007년 지금의 대학가에서는 여전히 '사발식'이라는 것이 역사적이고 자랑스러운 전통인 양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의 선배에게 90도로 허리를 굽혀 인사하고 극존칭조차 아끼지 않아야 마땅할 '선배'님이며(저는 이것을 이미 고등학교 시절 방송부 친구들에서 보았습니다) 후배와 선배 사이에는 보이지 않지만 명확한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모두를 알고 있지요. 그 모든 것이 언어에서 시작되고 지배될 수 있습니다. 제가 누군가를 처음 만나, 그가 분명히 나보다 나이가 어리다고 하더라도 쉽게 말을 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그런 이유에서, 관성적으로 권위적인 관습에 젖어들지 않기 위한, 저 자신의 의지와도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7 다시, 일상 세우기

그것이 나의 '일상'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일상을 '사생활'로 숨길 수만은 없을 만큼 그것은 지극히 '정치화'되어 있습니다. 가장 사적인 것도 또한 가장 구조적이고 정치적이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속에 권위주의와 폭력성이 침범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만나 그에게 말을 걸고 관계를 맺고, 선후배와 술을 마시거나 대화를 나누고, 학교를 다니고

교수님에게 배우는 그 모든 것들이 나의 일상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권위주의와 군사주의가 있습니다. 느껴지시나요? 우리 주변의 익숙한 풍경 속에 그곳이 마치 제자리인양 공간을 메우고 있는 그것들이? 그런데 거기에는 내 자리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그 방식이 아닙니다. 내가 나의 의지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나와 당신이 유쾌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래야 하는 나의 자리예요. 당신의 자리라고요.

제 삶의 반경 속에 파편처럼 폭력처럼, 침범해 있는 것들에 저는 분노합니다. 너무 사소한가요? 그냥 서로 편하자고 쉽게 말 놓는 것, 선후배 간에 예의를 차리는 것, 그저 국가를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하던 대로 국가에 대한 경례를 하자는 것, 윗사람을 존중하고 아랫사람은 맞춰주면 되는 것, 군대 몇 년이면 '사람'이 되고 '진정한 남자'가 되어 나온다는데, 시키면 시키는 대로, 주면 주는 대로 편하게 하면 되는 건데 그런 것들, 너무 사소한가요? 하지만 그런 너무도 사소한 것들이 나를 이루고 있습니다. 허락하지 않았는데 저의 일상에 살금살금 침범해 들어온 그들이, 나의 삶을 위협합니다. 내 삶을 다시 재편하기 위해, 일상을 다시 세우기 위해 나는 이것들을 내 속에서 해체하려 합니다. 이 글은 내 일상을 진짜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한 시도인 것입니다.

군사주의 트위스트

— 군대와 일상, 그 경계에서 군사주의를 말하다

'총대를 매다', '군기가 빠졌다', '깜밥이 안 된다', '총력을 기울이다', '집합하다' 등 우리들이 자주 쓰는 말들 중에 군대식 용어들이 많다. 군사정권을 오래 경험하였고, 대부분의 남성들이 군 복무를 하는 한국에서는 학교나 직장 등 사회 곳곳에서 군사주의의 흔적들을 찾아볼 수 있다. 강한 안보의식이나 획일성, 집단주의, 권위주의, 상명하복 체계 등 '군대식' 문화에 낯설지 않은 우리들이다. 그러나 일상적인 것일수록 우리의 무의식/의식 속에 여과 없이 들어오기 때문에 질문하는 것 자체가 금기시 되거나 불가능하다. '군사주의'라는 특집 기획 속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비판적이고, 또 비판적일 수밖에 없는 연은 다양한 사람들과 우리들의 일상 속의 경험을 통해 다양한 수준에서 군사주의에 접근하고자 하였다. 좌담(이것은 말 그대로 한 자리에 모여 앉아 의견을 나눈다는 의미다)에서는 서로의 경험과 입장이 다른 만큼 꽤 긴 시간 동안 편안한 분위기에서 많은 이야기들을 주고받았는데, 그것들 지면으로 옮기고 난 뒤, 아쉬움이 남는다. 군사주의로 트위스트를 휘브자며 이리 저리 비틀다보니 (우리는 나름대로 재밌었지만) 독자들에게는 뜬금없는 이야기도 있을 것이다. 군대와 일상, 그 경계 위에서 아슬아슬한 트위스트가 시작된다.

참석자 (말초 안의 내용은 본인의 요청대로 작성하였습니다.)

날래 (씨엔) 편집위원, 명명 (씨엔) 편집위원, 박동민 (군대 부적용자)

여정훈 (병역거부자의 친구), 장현지 (명명의 친구)

사진: 꿈의택배

‘군인-남성-인간’?

정훈 저는 주로 일하고 있는 교회에서의 일들을 이야기 하고 싶어요. 아
외에서 고기를 굽거나 물건을 나르는데, 고기를 못 구워도 군대를
안 갔다 와서라고 하고, 복사를 못해도, 사다리를 못 타도 군대를
안 갔다 와서 그렇대요. 한 명의 성인 남성이 되었다는 것과 군대를
갔다 왔다는 것이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맹맹 대개 대우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추석 때 친척 오빠나 삼촌들을
만나면 군대에 갔다 왔는지 아닌지를 통해서 존중해줄 만한 존재와
아직 미성숙한 어린애를 나뉘요. 그리고 빨리 갔다 오라는 독촉이
어루어지지요.

정훈 제가 오하려 군대 다녀온 사람들에게 “너는 군대도 갔다 온 놈이
이런 것도 못하나? 고기도 못 굽고”라면서 놀리기도 해요.

남래 그럼 ‘군대 갔다 와야 성인 남성이 된다’라는 게 고기 잘 굽고 복
사 잘 하고 사다리 잘 타고 이렇게 된다는 거네요?^^;

현지 저는 학교에서 여러 가지를 볼 수 있어요. 저랑 같은 학년인 사람
들은 죄다 복학생이고 거의 다 군대를 다녀왔죠. 그리고 밑에 1학년
애들은 다 군대를 안 갔어요. 해병대도 있고 공군도 있고 특례도 있
고 몸이 안 좋아서 못 간 사람도 본 적이 있어요. 단순히 나이 차
이 때문일 수도 있지만 군대 다녀온 사람들은 풍기는 이미지나 말
투도 많이 달라요. 1학년들보면 군대 갔다 오라는 말이 나오게 하는

행동들을 많이 하는 경우도 있어요.

남래 여자 후배들 중에도 애는 군대 좀 갔다 와야 된다 싶을 때가 있
나요?

현지 저는 학과 특성상 여자는 많이 볼 수가 없거든요. ^^ 어쨌든 여자의
경우에는 그런 적이 없어요.

정훈 남자한테 기대하는 이미지가 있다는 거죠.

맹맹 어떤 행동을 보면 군대 좀 갔다 오라는 말이 나오나요?

현지 저희 학교는 학년보다는 나이별로 체계를 좀 따져요. 1학년이 나이
가 좀 있는 선배에게 대든다거나 말을 막한다거나 이런 경우를 봤
을 때 그래요. ‘잔말 말고 군대나 갔다 와라.’

동민 아까 정훈님의 경우를 보면 주로 육체노동의 경우에 그런 말을 많
이 하잖아요. ‘군대다녀온 남성-인간’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
각해요. 위계질서를 잘 따르나, 육체노동을 잘 하느냐. 군대 갔다 와
서 웬만해서는 삼절을 한 거 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깐 육체노
동을 잘 할 수밖에 없지요. 하다못해 막일을 해도 군대 갔다 온 사
람을 더 우대하게 되고 또 위계질서가 잡힌 것을 원하니까요. 군대
는 일종의 재사회화 기관임에 동시에 직업 훈련이나 교육기관의 의
미도 크다고 생각해요.



동민

"전역하고 나서 영화 <스쿨 오브 락>을 봤어요. 그걸 보고 '이 놈의 국가는 2년 동안 나에게 세드백할 할 권리도 빼앗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죠."

병명 자꾸 꿈이 생각나요. 꿈이 쑥과 마늘을 먹고 백일이 지나면 사람이 되잖아요. 남자도 꿈인거죠. 쑥과 마늘을 먹고 견디야 사람이 되는 건데 쑥과 마늘을 못 먹고 도망가는 남자들은 호랑이 같은 거죠^^

아픔의 미화

현지 군대를 갔다 온 사람들은 군대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해요. 일상에서 군대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도 안 한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비유도 많이 쓰구요.

동민 2년이라는 시간동안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이상한 일을 정말 많이 겪게 되거든요. 할 얘기가 딱히 없다고 해도 미화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거든요. 자기의 의사를 완전히 무시당한 채 2년을 탄 곳에서 있다는 게 아픈 경험이다 보니 이야기를 하면서 이상하게 그런 걸로 우위를 가리게 되요. '나 군대에서 뭐했다', '야 년 뭐 그거 밖에 못했나?' 하면서요.



현지

대부분 남자인 사회에서는 군대에 다녀오는 게 큰 이점이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학생시절에도 그렇고, 졸업 후에 사회진출을 한다고 해서 그런 사회가 깨질 것 같지도 않아요."

병명 일상생활에서 아픈 기억을 타인에게 말한다는 것은 다시 한 번 그 상처를 떠올리는 일이잖아요. 군대에서의 경험이 진정한 아픔의 경험이었다면, 그 기억을 이야기 하기 위해 다시 떠 올린다는 것이 무척 아프고 힘들 것 같은데 정작 군대 이야기를 할 때는 내심 자랑하는 뉘앙스가 많지 않나요?

동민 사회에 있을 때는 실연의 상처를 겪는다거나 힘든 일이 생기면 밤새 술을 마신다거나 하면서 풀 수 있잖아요. 그런데 군대는 그럴 기회가 완전히 박탈된 상태예요. 고통스러운 기억이지만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미화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마이너스

날래 군대에 2년을 끌려왔다는 생각이 들 때 국가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 드나요?

동민 전역하고 나서 영화 <스쿨 오브 락>을 봤어요. 그걸 보고 '이 놈의



전훈

"국가인보는 개인인보라는 틀 속엔 가족 이해를로기가 작용한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단군의 자손이고 국가는 가족이라는 이해를로기로."

국가는 2년 동안 나에게 헤드뱅잉 할 권리도 빼앗았구나라는 생각
이 들었죠. 사회를 남성들이 주도하고 청년실업 같은 사회적인 불안
요소가 별로 없었을 때는 군대에 2년 갔다 오는 것이 그렇게 큰 문
제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요즘은 사회적인 불안요소
가 점점 커지면서 인구의 절반(여성)에게 느끼는 박탈감이 생기게
되었어요.

정훈 저도 그런 박탈감을 느껴요. 만약 제가 다른 사람들처럼 군 복무를
하면 2년, 대체복무를 하면 3년이잖아요. 대체복무가 시행되는 2009
년에 전 26살인데 복무가 끝나면 29살이에요. 석사를 같이 했던 다
른 사람들은 그 시간이면 어느 정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을 텐데 저는 계속 가야 할 길이 끊겨버리는 거니까 그 박탈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현지 제가 있는 곳은 남자가 대부분이고 여자가 소수예요. 기계공학 쪽
에는 여자들이 더 크게 늘어나는 추세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대부분
남자인 사회에서는 군대에 다녀오는 게 큰 이점이 된다고 생각해요.



명명

"저는 군대 안에서만 군사주의가 작동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군사주
의의 작동의 틀은 일상 속에 숨겨진 채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저도 군사주의에 대해서 경험했다고 생각하고 이에
대해 이야기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학생시절에도 그렇고, 졸업 후에 사회진출을 한다고 해서 그런
사회가 깨질 것 같지도 않아요. 남녀평등이라는 게 여자가 많은 사
회에서나 어느 정도 먹히지 제가 경험하는 사회에서는 존재하지 않
아요.

용민 공무원들에게 주어지는 '군가산점' 문제에 대해 남성들이 왜 발끈했
겠어요. 어떤 여성이 "요즘 군대는 여섯시 땀 치면 일도 안 한다는
데 잘 때까지 4시간씩 공부하면 되잖아요" 이런 말을 했다는데 정
말 군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도 못하고 한 말일뿐더러
남성들을 억울하게 하죠. 남자들이 2년이란 생활이 마이너스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자신과 관계도 없는 일인데도 군가산
점에 대해서 발끈했을까요? 군대에 갔다 오는 건 아직 사회적으로
플러스알파가 훨씬 크긴 하지만 보상은 점점 줄어들고 마이너스는
점점 커지기 때문에 거기서 생기는 문제가 크다고 생각해요.



남래

"상벌화된 국민 퇴기의 측면에서 보면 여성이나 남성이나 군사주의와 국가에 대항해서 싸울 수 있는 존재인데, 국가는 사실 괜히 여성들과의 대립만 조장해서 병역의 의무를 다한 남성들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문제를 끝내고 말죠"

여자도 군대에 가야한다

땡땡 군대에서 삼질도 하지만 주되게 하고 있다고 인지되는 일이 나라를 적으로부터 지키고 있다는 거잖아요. 군대는 지키는 사람과 지킴을 당하는 사람으로 사람을 나누는데 사회에 나와서도 그런 분류가 쉽게 대입이 되지 않나 싶어요. 내 가정을 지키는 사람, 내 아내를 지키는 사람, 난 지키는 사람으로부터 벗어날 순 없는 건가…… 지켜달라고 한 적 없는데, 나도 지켜주고 싶은데,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통민 우리 혼자만 평화를 원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것도 상당히 군대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일본,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이 군사력을 키우고 있고, 아무리 평화주의를 외치려고 해도 위기의식 같은 건 어느 정도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스라엘은 여자도 군대 다 가잖아요. '군삼녀' 얘기 나오면서 여자들도 군대를 보내자고 얘기가 나오는데 여자들이 군대를 가야 된다는 논의 자체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여성들을 군대에 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얼마나 그게 불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요. 아까도 얘기 했듯이 징병제로 인한 강제적 병역이 개인적으로도 마이너스지만 사회적으로도 마이너스가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인식시키기 위해서는 사회 전체적인 공감대 필요한데 사실상 잘 안 드러나거든요.

땡땡 그 절반(여성)의 불편이 없기 때문에 상대적인 박탈감에 대해서 전 사회적인 공감대 형성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통민 남자들이 느끼고 있는 상대적인 박탈감에 대해서 잘 공감대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처음으로 내가 군대를 갔다 온 사람이구나 느끼게 된 게 '군삼녀' 이야기를 보면서 제가 육했을 때였어요. 내가 정말 2년이란 시간을 헛되게 갔다 왔다는 게 다시 한 번 느껴졌어요.

땡땡 '군삼녀' 아세요? 어떤 여자가 군가산점에 대해 인터뷰를 했는데 '요즘 군대 2년 밖에 안하지 않나, 2년 너무 짧다, 3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한 게 인터넷에 엄청 화제가 되어서 시리즈가 있을 정도였어요.

통민 '관습녀'라고 '남자 군대가는 거 관습 아니예요?'라고 얘기한 것도 있어요. 그거를 보면서 군대가 누군가에겐 폭력이고, 마이너스인데, 너무나 당연하게만 생각 하는구나 했던 거죠.

남래 그 얘기를 여자가 해서 더 화제가 된 거라고 생각해요. 보통 어른들은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요즘 군대는 군대도 아니라고, 국가 안보의 중요성에 대해 엄청난 집착을 보이는 것도 대부분 남성

들이죠 여성들이 반대해서 징병제가 사라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군대를 다녀온 남성들이 더 옹호를 하잖아요.

통민 미디어에서는 일부러 노리고 그렇게 한 게 맞아요. 그게 훨씬 이슈가 되고 그림이 되거든요. 하지만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군대를 갔다 왔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왜 군대도 갔다 오지 않은 그 여자 분은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이 교육받은 대로 그런 말들을 재생산하고 있듯이, 그 여자 분도 군대를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요?

날래 그렇죠. 이 문제는 남성과 여성이 대립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자는 국가안전 문제에는 군대에 다녀온 남성들이 국가를 대상으로 싸워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계속 이 문제를 여성들을 대상으로 생각하는 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 문제가 여성들에게 어떻게 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오히려 여성들과 남성들이 함께 국가에 대해서 싸워야 하는 것일지도 모르죠.

사실 여성들은 국민으로서의 의무조차 주어지지 않은 거잖아요. 징병제가 유지되는 데에는 '남성성'이 굉장히 중요한 기제가 되고, 동시에 반대급부로서 보호받아야 될 존재로서의 '여성성'이 유지되어야만 군대가 유지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군사주의 자체가 이미 성별화에 기반을 두고 있고 국가는 그것을 국가 성원으로서의 자격으로 확장시키고 있어요.

성별화된 국민 되기의 측면에서 보면 여성이나 남성이나 군사주의와 국가에 대항해서 싸울 수 있는 존재인데, 국가는 사실 괜히 여성들과의 대립만 조장해서 병역의 의무를 다한 남성들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문제를 끝내고 말죠. 결국 아무런 문제도 해결되지 않잖아요.

병병 페미니스트라거나 페미니즘에 관심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 "여자도 군대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더라구요. 웬지 '여자도 군대 가야 된다'라는 말을 되게 듣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정훈 나만 가면 억울하죠. 고등학교 때도 두발자유화에 대해서 설문을 했는데 1, 2학년들은 두발규제 철폐하자는데 고3들은 계속 두발 제한을 3선티로 유지해야한다고 했거든요. 우리만 당할 수 없다는 거죠.

통민 머리가 관심사가 아닌 거죠. 이미 그 때쯤 되면, 이스라엘은 여자도 군대를 간다면서요?

꿈 (촬영을 도와주던 꿈의택배가 이야기에 잠시 참여했다) 여행을 갔다가 이스라엘 친구를 알게 되었어요. 이스라엘은 여자들도 군대를 가니까 자기는 군대를 갔다 왔고 다음달에 대학을 들어갈 거래요. 군대에서 비서 일을 했대요. 여자는 총 들고 칼 들고 그런 건 전혀 안하고 비서나 간호사 같은 일들만 한다는 거예요. 군대에서도 여성화된 일을 하는 거죠.

정훈 그럼 여성에게도 총을 들 권리가 있다는 문제가 되는 건가요?

꿈 제게 들었던 생각은 그냥 모든 사람을 동원하기 위해 끼워 맞추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정훈 필요에 따라 동원하는 거죠.

명명 국민으로서의 역할에도 성별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남자 국민으로서의 역할과 여자 국민으로서의 역할이 말이예요. 여자도 군대 가야 된다는 말이 왜, 어떻게 시작되는 걸까요? 정말 여자들이 군대 가길 원할까요? 여자들이 군대를 간다면 남자들과 똑같은 일이 주어질까요? 그런 의문이 들어요.

여성도 (광의의) 군대를 경험한다

동민 우리나라 웬만한 남성잡지 회사들은 군대가 사라지는 순간 망할 거라고 생각해요. 군대에서는 그런 데에 대한 판타지를 많이 키우죠. 그런 얘기들 하면 재밌으니까요. 서로 웃고 하면서 원래는 잘 모르던 사람도 배우고 나오게 되고, 여성을 성적으로 대상화하는 문화가 확대 재생산되는 과정인 건 맞죠. 하루 종일 앉아서 연애 얘기, 여자친구랑 잤던 얘기, 뭐 했던 얘기가 전설이 되면서 돌아다니기도 하죠.

쇠고기 햄버거는 소 한 마리의 한 부위를 가지고 만드는 게 아니라 수백 마리의 소의 똑같은 부위를 섞어서 다시 수백 개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광우병에 쇠고기 햄버거가 위험한 거예요. 여러 개로 퍼져 있을 때에는 잘못된 문화가 하나였는데, 군대를 통해 여러 개의 문화가 한 군데 섞였다가 수백명어리가 되어서 다

시 나오는 거예요. 광우병 걸린 쇠고기 햄버거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게 수백 개가 되어서 나오는 것처럼요.

정훈 이제 불고기 버거만 먹어야겠다^^

날래 여성도 넓은 의미로 군대를 경험한다고 생각해요. 군대는 군사화된 문화가 밀집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확대 재생산되는 곳이잖아요. 물리적으로는 2년만 '갔다 오는' 것이지만 살로 계속 연장된다고 생각해요. 남성들에게 이뤄지는 군사와 형식은 다르지만 여성들에게도 군사주의를 유지시킬 수 있는 동일한 기제들이 작동하고 있고요. 남성들이 계속적으로 여성을 대상화하는 문화는 실제로 존재하는 여성들을 대하는 방식과 직결되는 거잖아요. 군사주의에 대해서 여성주의 진영에서 비판적 연구가 많이 나오는 것은, 남성들에게는 그 문화에 적응하면 그만인 것이지만, 여성들은 군사화된 사람이 나를 대하는 태도, 군사화된 사회가 나를 대하는 태도가 계속적으로 불편하게 느껴지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해요.

명명 군대와 사회를 가르는 경계가 있기는 한 걸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창간호의 특집으로 정한 이 주제가 저한테 너무 어려운 주제였어요. 처음엔 뭣 모르고 공부하고 싶기도 했고, 이 문제가 제게 불편하다고 생각해서 고민해보고 싶었던 건데 막상 이 문제를 파고들게 되니까 되게 어려운거예요. 군대 얘기를 할 때마다, 특히 군대를 경험한 사람과 얘기를 할 때는 제가 군대를 갔다 오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는 부분이 있다며 경험의 차이를 부각시킨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군대 안에서만 군사주의가 작동된다고 생각하지 않

고, 군사주의의 작동의 틀은 일상 속에 숨겨진 채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저도 군사주의에 대해서 경험했다고 생각
하고 이에 대해 이야기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국가안보 = 개인안보’?

정훈 군사주의라는 단위보다 더 큰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국가가 탄
생하는 과정에서 군사주의를 필요로 했다고 생각해요. 군사주의를
말하기 위해서 군사주의보다 더 큰 단위, 국가나 사회 자체의 요구
그게 먼저 있지 않았나 싶어서 군사주의를 단지 군사주의로만 다루
기에는 어려운 것 같아요.

날래 군사주의에 대한 세미나를 하다가 국가 안보 얘기가 나오자마자
극명하게 선을 달리하게 됐던 적이 있거든요. 군대에 다녀온 두 남
성과 안 다녀온 피엔 편집위원들이 ‘국가 안보가 있어야 내 안보가
있다/국가 안보가 내 안보가 아니다’로 나뉘게 됐어요. 군대에 대해
비판적으로 보다가도 국가 안보 문제가 대두되면 입장이 돌아서는
경우가 좀 있었어요.

통민 그건 우리만의 문제가 일단은 아니기 때문이기도 하죠. 사실 미군
이 개입된 이상 우리는 전 세계적인 문제에 휘말릴 수도 있고, 우리
가 상당히 이상하고도 애매한 위치에 있는 것 자체가 문제고요.

날래 과연 군대가 외부의 적을 막기 위해 존재하는 것일까요? 군사정권

에 반대하는 광주의 시민들을 진압하고, 미군기지 주둔을 위해 주민
들을 쫓아내는 역할을 군대가 해오지 않았나요? 군대가 있어야 외
적의 침입으로부터 국민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은 국가주의
이데올로기일 뿐이라고 생각해요. 군대에 의해서 내국민들이 폭력의
희생자가 되는 일들이 역사적으로 많았잖아요. 군대가 내 살 집을
뺏어가고 농사짓던 땅을 뺏어가는 데 그 군대가 내 안보를 지켜준
다는 건 허구 아닌가요? 특히나 여성들의 경우 일상적으로 위협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여성주의는 국가 안보가 자신의 삶의 안전이
라는 허구적인 믿음에 도전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정훈 국가안보는 개인안보라는 등식 속에 가족 이데올로기가 작용한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단군의 자손이고 국가는 가족이라는 이데올로기죠.
대통령은 아버지고 육영수 여사는 어머니구요. 그렇기 때문에 군대
에 다녀온 남성들이 ‘나는 어머니와 내 여동생을 지켜달라’는 생각도
하게 되지 않나 싶어요. 하지만 그건 진실하고는 다르죠. 국가의 안
보가 지켜졌다는 게 전 국민이 안전하게 지켜졌다는 게 아니라 단
지 정부가 지켜졌다는 거죠. 그 은유가 상당히 권고한데, 그게 사실
과 다르다는 게 어떻게 전달될 수 있을까 고민이 돼요.

기피와 거부

맹맹 가수 싸이가 병역문제로 무척 시끄러웠을 때 군대에 다녀온 친구
와 이야기를 했었어요. 군대는 가기 싫은 곳이고 어이없는 것도 되
게 많고 힘든 곳이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엔 그렇게 안 좋은 군대를

한 명이라도 덜 가는 게 좋은 게 아닌가 싶었어요. 그 사람이 물론 자신의 돈이라든가 권력을 가지고 편법적으로 병역을 기피한 것은 도덕적으로 잘 못 되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한 명이라도 덜 가면 좋은 거 아니냐고 이야기 했는데 그 친구는 발끈했어요. "병역의무는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지워져야 한다." 저는 말했죠. 그럼 병역 거부와 병역 기피가 다른 건 뭐냐고 말예요.

한편으로 든 생각이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보통 종교적인 이유라든가 평화적인 가치 등 고귀하고 큰 가치들 때문이잖아요. 사람들은 그 용감한 선택에 지지를 보내고 여론도 변화하고 있어요. 제가 아는 친구의 남동생이 있는데 16살인데도 무서워서 밤에 불을 켜고 잘 정도로 겁도 많고 굉장히 순진무구한 친구예요. 무척 착하고 그 친구는 군대가 가기 싫다고 이야기를 해요. 군대가 너무 무섭다는 이유 때문이에요. 그 친구를 보면서 든 생각이 앞으로 병역 거부를 하는 사람들도 많이 나타날 텐데 그렇게 큰 가치를 이야기 하는 것도 좋지만 많은 일반 사람들에게 크게 공감이 되진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가치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모를까.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군대가 너무너무 무서워서 가기 싫다. 총소리 들어도 너무 놀라고 남자들만이 있는 사회가 무섭다. 무서워서 가기 싫다. 그래서 나는 병역을 거부한다.

홍민 좋긴 하지만 받아들여지긴 힘들겠죠. 개인적인 영역으로 치부될 테니까요. 사회가 요구하는 남성상에 못 미치는.

행령 저는 그런 딱딱한 남성상을 무너뜨리고 싶어요. 남자라고 누구나 용감할 수 없는 거고 여자라고 누구나 연약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정상적'이라고 말해지는 틀을 깨고 싶어요.

홍민 병역거부를 하는 사람들은 현재 1년 6개월 이상의 실형을 살고 평생을 전과자라는 낙인을 갖게 되는 건데 과연 무서워서 군대를 안 가겠다는 사람들 중에 그런 활동에 관심을 보이고 대체복무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싫다고 무조건 거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대안을 만드는 게 그 사람의 책임 아닌가요? 그런 의식을 가지고 거부한다면 거부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기피라고 생각해요.

행령 전 무섭다는 감정이 종교적인 이유나 반전평화 만큼이나 존중 받을 수 있는 이유라고 생각해요. '남성문화, 권위주의가 싫고, 군대가기 무섭다'라는 말에 평화라는 커다란 가치가 숨어있다고 생각해요. 무서움은 평화가 위협 당한다는 것에 감각적으로 반응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날래 저도 '평화적 신념'보다는 '군대에서 무슨 일을 당할 꺼봐 무서워서 못가겠다'라는 게 군대를 가는 사람이나 가지 않는 사람이나 누구나 공감하고 있는 감정일거라고 생각해요.

정훈 군대를 가는 것에 대한 무서움이 더 크냐 병역 기피로 낙인찍히는 것에 대한 무서움이 더 크냐는 거죠. 전 후자도 무섭거든요.

명명 무섭다고 이야기 하면서 병역거부를 하는 사람도 굉장히 용감한 거고, 어쩌면 전 그 용감함에도 강인한 남성성의 이미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정훈 그 것도 일종의 용감함이지만 오히려 연약함으로도 보일 수 있는 거죠. 남들이 다 하는 것을 왜 못하냐며 놀림거리가 될 수 있죠.

날래 실제로 병역거부를 하는 사람들도 '남자답지 못하다', '힘든 훈련을 견딜 수 없어서다'라는 낙인을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종교적 신념, 평화적 신념에 따라서 병역거부를 한다고 이야기해도 군대 가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냐며 남자답지 못하다는 공격을 하니까요. 병역거부라고 하는 게 평화나 종교 이런 가치 속에 군사화된 남성성에 대한 거부도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사실 병역 거부자들이 군대를 가진 않지만 충분히 감옥에 다녀올 만큼의 신념을 가지고 있다는 걸 강조함으로써 병역 거부를 정당화 하는 논리를 많이 쓰다보니까, 군대가 요구하는 강인한 남성성이 병역 거부 운동에서도 동일한 맥락으로 재생산 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죠.

동민 군대에 대한 두려움 자체가 병역거부에 대한 발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왜 이런 두려움을 느끼면서까지 가야 될까 고민하는 사람은 사회적인 참여를 한다거나 평화적인 발언을 한다거나 해서 대체복무를 선택하겠죠. 현실상 '핵무기가 무서워서 싫어요'라고 말하면서 아무런 행동을 안 하는 건…….

명명 '군대가 무섭다'라고 이야기 하는 게 단순한 투정으로 받아들여져서

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싶어요. 많은 사람들이 무시하고 '그래, 군대 무섭지. 그래도 다녀와야지. 어쩌겠어?'하면서 그냥 무시하는 감정 이잖아요. 전 그 감정을 끄집어내고 싶어요. 이 감정은 모두가 공유하는 감정이고 전 이걸 무시 못 할 문제라고 생각해요. 자신의 투정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회활동을 할 수도 있겠죠.

사회복무제도와 대체복무제도

날래 대체복무제도는 현존하는 징병제가 바뀌는 게 아니라 징병제는 그대로 있고 양심적인 이유 같은 예외적인 이유로 병역거부 의사를 표현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시행되는 거잖아요. 군사주의를 완화시키는 건 어려운 것 아닌가요?

동민 천천히 이뤄져야 된다는 거죠. 사회적으로 그런 인식이 확산되지 않은 채 군사주의를 없애자는 이야기를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대체복무를 통해서 모든 남성이 군대를 가지 않고 오히려 사회적인 공헌을 하고,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 입증되고 나면 더 발전해서 징병제가 모병제로 바뀔 수도 있고요. 이런 일들이 생긴다면 점점 군사주의에 대해 더 논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사회 시스템 전반 자체가 군사주의적으로 작동되는 상황에서 군사주의적인 걸 완전히 뿌리 뽑으려면 엄청난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정훈 오랜 시간 동안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작용해 온 문화적인 영역에

서의 투쟁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대체복무제도에 대해서 유감이. 자칫하면 국방의 의무에 대한 더 넓은 공감대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거죠. '봐라, 이 사람도 국가를 위해 복무할 수 있다. 국민은 100%국방의 의무를 질 수 있다'라는 식의 논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문화적인 영역에서의 투쟁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지금의 사회복무제도 같은 게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맹명 사회복무제도는 기존의 징병제에서 크게 달라지는 게 없어 보이는 게, 여전히 그 의무를 다 해야지만 국민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거 같아요. 더 확대되고 더 포섭되는 것은 아닌가.

날래 사회복무제도라는 걸 도입을 했는데 평화주의적인 방향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 국민 누구나 평등한 병역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는 믿음을 오히려 강화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유승준이나 싸이를 처벌 안하고, 여성들도 안 가고 무슨 무슨 이유로 다 빠지면 반발심이 더 생기니까 누구나 다 '평등하게 복무를 이행하고堂堂하게 사회 진출하자'는 식으로 더 징병을 확대시키는 거죠.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 안 함으로써 이탈자를 더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제도를 통해 이탈 하는 사람들을 더 강하게 국민으로 포섭하려고 하고 있어요. 단순히 대체복무제도가 도입되는 걸로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봐요. 대체복무제도가 도입되더라도 '대체복무 거부자'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식의 대체복무제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동민 예전에 군대에서 본 정말 기가 막힌 것 중 하나가 장애인 한 분이

군대가고 싶다고 1일 병영 체험하던 거예요. 휠체어를 타고 총을 들고 철책 선을 지키고 있는 게 뉴스에까지 나왔는데 정말 끔찍하더라고요. 얼마나 저 사람이 사회적으로 군대 안 갔다 온 게 파해라는 인식을 갖게 됐으면 또 그 사람이 당한 게 없더라도 그게 얼마나 사회적으로 열망처럼 전파됐으면 저 사람이 저런 생각까지 하게 됐을까. 그 분 말고도 뇌성마비가 있어서 몸도 제대로 못 가누는 분이 군복입고 지금 군대에서는 하지도 않는 실미도식 훈련, 밀에 진흙탕에 물 일부러 뿌려놓고 철책 밀을 기어서 가는 그런 거 보고 정말 끔찍한 거예요. 일단은 인식 자체가 그런데 처음 보기에는 사회복무제도 같은 게 문제가 많을 수도 있죠. 하지만 일단 이런 문제에 대한 사회적인 해소와 함께 조금씩이나마 인식의 확산이 이뤄지면 군사주의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작게 보더라도 병역거부를 함으로써 범죄자로 낙인찍히는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찬성해요.

맹명 오늘 좌담에서 군사주의라는 주제에서 나올 수 있는 얘기는 거의 다 나온 것 같네요. '군사주의 트뤼스트'도 잘 된 것 같구요. 긴 시간 동안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은 군대다』의 저자 권인숙 선생 님을 만나다!

진행·정리 공의택씨 우공
사진 맹맹

장아 아닌 장마가 이어지고, 유난히 덥던 여름, n엔 편집위원들은 더위와 배일
같이 내리던 비보다도 세미나와 씨름(?)을 하고 있었다. 우리들은 방학 내내 '군대',
'군사주의', '군대 문화', 이 개념들과 만나기 위해 세미나를 이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어느 누구도 군대에 가보지 않았기에 우리는 먼저 '군대 알기'로 시작을 열었고, 그
후에는 여성주의와 군사주의, 군사화된 사회와 문화, 국가주의 등에 대한 세미나를
진행했다. 그러나 읽으면 읽을수록, 공부하면 할수록, 알게 되면 될수록 문제는 더욱
복잡해지고 고민은 더 깊어져갔다. '아는 만큼 어려워진다'는 말은 이럴 때 유용하게
쓰이는 말 일 것이다. 편집위원들이 창간호 특집기획으로 군사주의에 대한 각자의
고민이 담긴 글들을 한 편씩 쓰기로 했던 즈음, 우리는 우리보다 먼저 깊이 이 문제
에 대해 고민하신 분과의 인터뷰를 통해 우리의 고민이 한 발자국 더 나아갈 수 있
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n엔과 권인숙 선생님의 만남은 시작되었다.

권인숙 선생님은 보통 학자들이 잘 다루지 않았던 '군대'를 '대한민국은 군대'라고
다소 파격적인(?) 선언을 하며 본격적으로 여성학 내에서 오랫동안 연구해 온 학자
이다. 1982년도 서울대학교에 입학하여 학생운동을 하였고 1985년도부터는 노동운동
을 하였다. 1994년에는 미국 럿거스(Rutgers)대학교에서 여성학 박사 학위를, 허버드
대 한국연구소에서 후기박사과정으로 1년 보냈고 콜롬비아대학 동아시아 연구소의 초
청연구원을 지냈다. 남플로리다 주립대학 여성학과 교수를 역임했으며 현재는 명지
대학교 기초교육대학교에서 여성학을 가르치고 있다. 그녀는 그동안 군사주의나 민
족주의와 여성 그리고 남성성과 관련된 연구에 주력해 왔다. 저서로는 『선택』
(2002), 『대한민국은 군대다』(2005), 『권인숙 선생님의 양성 평등 이야기』(2007)
등이 있다. 여름방학 때 n엔 편집 기획 세미나에서는 『대한민국은 군대다』를 비
롯하여 『우리 살 속의 군사주의』를 읽기도 했었다.

선생님과의 인터뷰가 확정된 후, 몇 번의 이메일로 시간을 조정하고 나서야 미국
출장과 학교 일정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시는 선생님을 만날 수 있었다. 갑작스레 거
울로 접어든 듯한 학각을 줄 만큼 차갑게 불던 바람과, 완연한 가을 햇살이 함께 있
던 시월 중순의 어느 날, 명지대 연구실에서 우리는 권인숙 선생님을 만났다.

“왜 여성문제를 제기하는 걸 싫어할까”라는 의문점이 생겼어요”

우공(공) 안녕하세요, 저희는 미앤의 우공과 꿈의택배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오늘 선생님을 뵙자고 말씀드린 것은 창간호의 특집기획 주제인 군사주의 혹은 군사문화에 대한 말씀을 듣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5월에 창간준비호 독자모임을 할 때 학교 내의 예비역 문화가 싫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미앤 편집위원들이 그 얘기를 좀 더 하고 문제의식을 확장하여 ‘군사주의’를 특집기획 주제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창간호 특집기획에는 선생님과 인터뷰, 다른 편집위원들이 진행한 좌담회와 편집위원 네 명의 군사주의, 군사문화 등에 관한 글이 담길 계획입니다. 저희가 오늘 질문을 만들어서 인쇄해왔지만, 전해드리지는 않을게요. 자연스럽게 대화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이 설명까지가 제가 맡은 부분입니다.”

꿈의택배(꿈) 이후 질문은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께서는 ‘386세대’로 회고되는 대학생 시절에 학생 운동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와 조금 다른 방식의 활동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하는데, 그 당시의 학생 운동 속의 권위성, 가부장성에 대해 나중에 본격적으로 성찰, 비판하게 된 계기나 시기에 대해 말씀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권인숙(권) 결정적인 딱 한 번의 계기가 있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구요. 제가 노동인권화관을 1989년에 열었는데, 그 때가 저의 결혼 시기와 겹쳐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일을 같이 하면서 여러 가지 의문들이 떠올랐어요. 노동운동에 상대적으로 여성들의 목소리가 실리지 않았지요. 지금도 뭐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더 그랬죠. 같이 현장에

서 활동하는 학생 출신 노동운동가들조차도 제가 결혼 생활에서 느끼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그러니까 여성의 가사노동 부담부터 시작해서 생활에서 느끼는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주지 않는 것,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개인주의적인 문제라거나 혹은 덕이 부족한 문제로 몰고 가는 것에 대해서 답답함을 느꼈고, 그때부터 ‘왜 여성문제를 제기하는 걸 싫어할까’라는 의문점이 생겼어요. 그런 것들이 운동권에서의 여성 문제에 대한 보수성에 의문을 갖게 했던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군사주의는 군대라는 조직과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집단의 폭력이 합리화되는 부분이 결합되어 있는 것 같아요”

꿈 공부를 하다 군사주의에 대한 다양한 정의를 만날 수 있었는데요. 군사주의를 어떻게 정의해야 할까요? 그리고 군사주의는 국가주의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해요.

권 군사주의는 일단 군대라는 조직과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집단의 폭력을 합리화시키는, 이 두 가지 부분이 결합되어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군사주의는 군대라는 것이 필요한 조직이고 그런 조직을 유지해가기 위해서 필요한 젠더 역할이라든가 아니면 각종의 이념들, 그런 이념들이 상식화되고 당연시 되는 문제들을 배경에 깔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갈등 해결에서 방어적이든 공격적이든 집단적 폭력수단의 효율성을 믿고 있는 것이기도 하구요. 국가주의란 것은 국가중심적 사고 속에서 현대의 외교라든가 군대의 단위들이 국가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인데 어떤 경계를 나누는 국가 단위, 국가의 기능과 국가중심성에 대한 절대적 믿음, 그리고 국가의 이해와 개인의

이해를 동일시하는 이념 속에서 만들어 집니다. 군사주의와 국가주의는 외형적으로는 비슷하게 나타날 때가 많기는 하죠. 대부분 국가 중심적인 사고를 하는 데 있어서, 군대라든가 군사주의의 힘을 많이 빌리게 됩니다. 왜냐면 안과 밖을 나누려고 했을 때 효율적 수단이 항상 군사적 대립이라든가 갈등이거든요. 그리고 안에서는 평화롭지만 밖의 국제관계 상황은 약육강식의 세계라는 전제를 갖고 국가주의와 군사주의가 같이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에 둘이 맥이 통하고 있지요, 군사주의적인 사회를 모두 국가주의가 강하다고 하거나 혹은 국가주의적인 사회가 모두 군사주의가 강한 것으로 볼 수는 없지만 대체로 둘은 맞물려 있죠.

꿈 군사주의에 관한 자료들을 찾아보면 상당수의 자료들의 필자 및 연구자들이 '여성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성들이 군사주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연구, 고민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한국 사회만큼 군사화의 정도가 강한 나라도 많지 않을 텐데, 그동안 여성학 뿐 아니라 사회, 역사학 등에서도 군사주의나 군사 문화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지 않았던 것은 의문입니다.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권 사실 여성들이 군사주의를 연구한 역사도 오래된 건 아니죠. 군사주의나 군대 문제에 관해서 우리나라 여성 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본격적으로 페미니스트 학자들이 달려들어서 연구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정도부터라고 할 수 있구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제가 1998년도에 군사주의라는 틀로 논문을 쓰려고 왔을 때만 해도 웬만한 정치학자 같은 사람들은 군사주의란 말을 거의 써본 적이 없고 군사주의라는 개념을 모르거나 그랬어요. 민족주의와 국가주의에 대한 얘기는 조금씩 되고 있었지만 군사주의는 1998년도만 해도 낮



선, 지식인들 체계에서조차도 낮은 부분이었죠. 그때까지 군대에 대한 연구도 거의 없었구요. 남자와 여자들의 차이를 나누어 본다면, 남자들의 가장 큰 특징은 상대적으로 군대 경험이 더 많고 국가주의나 민족주의적인 담론들을 더 적극적으로 믿고 있는 것. 실제로 군대에 대해 도전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

어요. 남자들이 군대에 더 많이 포섭되어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용서받지 못한 자』라는 영화가 2005년도에 나왔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영화 산업이나 TV 드라마 등 모든 것에서 남성적 영역에서의 군 사병 간 가학과 피학을 다룬 것은 그게 처음이었고, 소설 같은 다른 매체에서조차도 언급은 되어있지만 그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룬 표현 매체를 만나기가 힘들었어요. 회화화된 것 말고는. 그런 부분들을 보자면, 물론 1980년대 지식인들 중에는 군대를 안 간 지식인들도 좀 있었습니다만 지식인들에게조차도 군대에 대해서 '문제제기 할 수 있다', '문제제기 해야 한다'라는 기본 상상력이 허락되지 않았던 게 아닌가 싶어요. 거기에 남성들이 더 많이 지배받고 있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남자들, 진보적 지식인 남성들을 만나도 거의 다름이 없어요. 거의 똑같아요. 일반인 남성과 지식인 남성들이 뭐가 다른지 구별이 안 될 만큼 '군대란 원래 그런 거다', '사병 간의 위계가 없으면 군기가 유지가 될 수 있는가', '우리나라가 지켜질 것인가' 등, 아무튼 뭔가 좀 새로운 얘기를 하는 남성 지식인들을 만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물론 제가 많이 만나는 건 아닙니다만(웃음). 다른 연구에서도 나타나지만, 군대에서 일어난 폭력조차도 기밀로 여긴다는 얘기가 있는데, 남성들이 국가와 군대에 대한 실질적 필요성, 그리고 거기에서 만들어지는 논리를 더 진지하게 믿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여성들보다. 그래서 그것에 관해 문제 제기할 수 있는 가능성, 스스로의 근거들, 그리고 문제 의식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 등에 있어서 무리인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꿈 선생님 말씀을 들으며 생각이 난 건데 저는 이데올로기와 학교와 군대가 거의 일직선상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남성 지식인이나 남

성들은 거의 군대를 가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맥락에서 남자들이 군대에서 이데올로기와 이념 등을 주입 받고 사회화되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말씀이신건지요?

권 그런 것도 있고 남성성 자체가 힘의 논리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기도 해요. 그것은 국제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지배 구조에서도 마찬가지구요. 그걸 이해하고, 당연히 여기는 것이 더 강한 것 같아요. 사실 군대에서 만들어지는 남성성에 관한 여성들의 문제 제기들이 남자들 사이에서는 많은 경우에 가능하지 않은 면이 있어요. 그건 일반적으로 아주 어렸을 때부터 관계 맺어오는 방식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구성 방식에 대한 예민함, 문제를 지적할 수 있는 능력 등이 덜 발달되어 있는 것도 같구요. 남성들이 그것(힘의 논리)을 전제로 해서 세계를 이해하면 이 세계 질서에 대해서 문제제기할 수 있는 것들이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다 힘의 논리를 통해 서열화 되어 있는 것들, 국제 질서가 약육강식의 장이라든가 하는 기본 전제들에 관해 '왜 그래야 하는 것인가', '왜 그런 식으로 군대가 있어야 하는 것인가' 등 기본 답론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감수성을 키울 구조가 남성들에겐 더 적은 것 같아요.

『한국 사회는 국가 중심적 사고와 부국강병 논리들이 사실 아직 한 번도 상처받고, 도전받은 적이 없죠.』

꿈 2005년 언론을 통해 주목받은 군대 내 성폭력 문제, 영화 『용서받지 못한 자』의 개봉, 선생님의 책 『대한민국은 군대』가 언론에 주목받

으면서 최근 '군대를 둘러싼 문제들이 일반 사람들에게도 광범하게 알려졌다고 봅니다. 사실 군대에서 이런저런 폭력들이 행사된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문제들이 너무 '군대'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 한국 사회에서 '군대의 사회화', 즉 군사주의가 전체 사회와 개개인의 일상 삶 속에서 얼마만큼 들어와 있는지는 그다지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군사주의에서 '군대'는 매우 중요하지만 모든 군사주의에 대한 논의가 군대로만 갇혀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하는데 군사주의 논의가 반복해서 군대로 환원되기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넘을 수 있을까요?

권 어떻게 그게 군대로만 환원이 되었죠?

공 예를 들어 학교에서 학생들과 얘기를 하다보면 군사주의에서 시작하는데 대부분의 논의는 군대에서 어떻게 됐냐, 혹은 여성들이 군사주의나 군대 얘기를 하게 되면 여자들은 군대를 갔다 오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발언력이 없어지는 거죠. 저희들은 군사주의라는 게 일상에 들어와 있다고 생각하고 말을 하지만 군사주의에 관해 말을 하다보면 그 얘기는 쏙 없어지고 주로 '군대를 갔느냐 안 갔느냐', '가야하느냐 안 가야하느냐'로 얘기가 되요. 저희로서는 논의가 군사주의가 삶 속으로 들어가는 것에 관해서가 아니라 자꾸 '군대'로만 가는 걸로 느껴지거든요.

권 그건 징병제 사회의 특징이죠. 지식인 사회 속에서 논의 자체가 군대로만 한정되었다는 말은 정확한 말은 아닌 것 같고, 군대조차도 예기되지 않고 있는 면이 더 많아요. 군대를 나온 사람들이 사회, 지

역 구조 등에서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등에 관해 연구할 부분들이 많은데, 그런 폭력문제 같은 것이 얘기 안 되는 건 사실이지만 단순히 군대로만 한정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화를 하다보면, 징병제가 있는 사회에서는 군대라는 것이 국민을 나누는 너무도 중요한 기준이고 남녀 차별을 나누는 또 다른 근거, 가장 중요한 근거이기 때문에 항상 그 문제로만 환원되는 것은 그만큼 그 사회에서의 징병제 위치가 큰 사회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지요. 하지만 그걸 단순히 '그러지 말라' 라고 해서 그러지 않을 수 있는 문제는 또 아닌 면이 있는 거죠. 다른 증거 사례들이 많이 제시되어야 하는 것도 필요하고 군사주의 사회에서의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문제들이 제기되어야 하지만 그것을 '군대나 징병제 얘길 하지 말라' 해서 안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공 박노자 선생님의 『당신들의 대한민국』을 보면, 러시아에서는 러시아 국가의 군대가 저지른 잔인한 학살들에 대한 반성과 저항으로 평화주의를 택하는 사람들이 많고, 이런 맥락에서 '군대'를 '살인자들의 집단'이라고 보는 의식이 지식인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군대를 '살인자 집단'이라고 직접적으로 지칭하는 사람을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한국 현대사에서 군대의 잔혹함이 드러나는 사건이 많았음에도 사람들은 군대를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인식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권 그게 사실은 우리 사회 속에서 자리 잡고 있는 강한 국가, 부국강병의 논리가 일반적이라는 걸 말하는 거죠. 우리 사회에서 잘 되어야 할 두 가지가 가족과 국가잖아요. '국가가 잘 되는 것이 곧 나와 내 가족 잘 되는 것이다'라는 일치된 정체화가 아주 잘 발달해 있는 편

이고 우리나라의 운동선수가 다른 나라에 가서 어떻게 하고 있다 그런 것들이 모두 강한 국가라는 상징으로 여기면서 몰입하는 모습도 많이 보이죠. 한국 사회는 국가 중심적 사고와 부국강병 논리들이 사실 아직 한 번도 상처받고 도전받은 적이 없죠. 사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부국강병의 논리를 가져가다가 나라가 거의 망할 지경의 경우를 제2차 세계대전에서 당하잖아요. 독일도 마찬가지구요. '국가가 부강한 것이 내가 잘 되는 것이다'라는 논리가 결정적으로 사람들 속에서 무너져 내리는 경험을 한 국가들과, '악한 존재의 국가가 얼마나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가' 만을 반복적으로 경험한 우리나라와 같은 나라가 상대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차이를 극복할 만한 경험과 도전이 없었던 것이 군대에 대한 판단을, 군대 문제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가능하지 않게 만든 것 같아요. 사실 소수인 '여호와의 증인'을 빼놓고도 아주 소수인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1980년대에 한 명도 없었던 것을 보아도 그래요. 학생 운동이나 저항 운동, 사회 운동 세력에서도 이 국가주의와 군사주의에는 거의 도전을 못했죠. 이제까지, 지금까지도 도전을 못했고, 도전한 부분도 아주 미약하고 대중적인 힘을 못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군대에 관한 지배적인 담론에 도전할만한 힘을 가져본 적이 없는 역사적 사실들이 군대를 필요하다고 여기게 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겠지요.

공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공부를 하며 고민을 새로 얻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막연히 대체복무제 등이 도입되면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의 문제도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최근 병역법 개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새로운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대체복무제'를 군 입대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대한

민국의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 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저희는 또 다른 의문이 드는 거예요. 새로운 병역법도 여성과 장애인 등을 '군대 주변'으로 배치된 일을 하게 만드는 것 같기 때문이고, 이것은 여전히 소수자를 배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권 (질문 중간에) 어떤 면에서 보면 여성이나 장애인들 같은 소수자들을 더 많이 배제시키는 것이죠. 또 지금 남자들은 병역 면제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공 그리고 그건 개인이 국가를 위해 '몸과 마음을 다 바쳐야' 한다는 국가주의를 재생산하는 것으로 생각되기도 하구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 좀 더 부연해서 질문 드릴게요. 앞의 질문과 비슷한 이야기인데요. 제가 피부로 느끼며 고민이 되는 것은 사회복무제도가 전면적으로 병역거부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대체 복무제도도 도입 해주었는데 왜 군대를 안 가려고 하느냐?' 라는 질문을 받을 것 같거든요.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제가 궁금한 것은 이런 상황에서 징병제에 대하여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대체복무제도도 군 입대도 모두 거부한다면 적지 않은 사람들이 제 주장에 대해 반대할텐데, 어떻게 활동을 해야 하는지 고민이거든요.

권 ('아휴' 한숨쉬며) 사회복무제 부분은 여성의 입장에서 보면 불리하죠. 이제 남자들 중에서는 '신의 아들'도 '사람의 아들'도 없어지는

그런 수준이고요. 군 복무 기간이 짧아지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이제 남자들은 국가에 대한 '봉사'에서 예외가 없는 그런 시대가 오는 것이고, 특히 장애인들보다는 여성들이 불리하겠죠. 우리 사회처럼 국가주의가 강한 사회에서 여성들이 '봉사' 영역을 함께 하지 않을 때 '양성평등'의 근거들을 내세우는 것이 논리적인 면이나 실질적인 면에서 주장하기가 어려워지는 측면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독일의 양성적 병역거부의 사례를 보면, 군 복무 기간이 많이 줄어들고, 사람들이 대체복무를 많이 선택함으로써 인해 '군대 서비스(군복무)와 '사회 서비스(사회복무) 간의 경쟁 관계가 만들어지면서 새로운 '지평'이 열릴 수 있는 가능성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군 서비스'를 선택하지 않고 '사회 서비스'를 선택하는 '선택'에 문제로 점점 변하기 때문이죠. 이런 두 서비스가 경쟁하면서 '군대 서비스'가 상대적으로 도전을 많이 받는 계기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것은 '대체 복무제도' 도입 후 운영하는 방식의 문제이며, 이것 또한 몇 십 년의 운영 경험과 사람들의 의식 변화가 이뤄져야 하는 만큼 쉬운 것은 아니에요.

1997년 이회창 사건 이후 징병제가 많이 논란이 됐는데, 징병제 논란에서 가장 우위를 차지 한 것이 젠더 문제도 아니고 '나는 가는 데 너는 왜 안가'였어요. 이것이 영향력을 발휘해서 나타난 것이 사회복무제인데, 이 부분에서 여성들이 '젠더' 문제를 얼마만큼 부각시키는지가 지형을 바꾸는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또 다른 변수는 통일 문제이죠. 통일이 되어야 모병제 문제를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볼 수 있겠죠. 여성의 입장에서 사회복무제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일까가 징병제 문제에서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 한국 여성 운동 전영이 사회복무제도에 대해 입장을 맞추고 있지는 못하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징병제 문제에서 우위에 섰던 논리가 어떤

식으로 힘을 발휘했는지 보여주는 수준인 것 같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성들에게는 많이 불리한 제도인 것 같아요.

공 약간 관련이 있으면서도 떨어진 질문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세미나 하면서 강인화 씨의 「한국사회의 병역거부 운동을 통해 본 남성성 연구」라는 논문을 읽었는데요. 선생님도 아시죠?

권 예, 알고 있어요.

공 저는 이 논문을 읽고 조금 힘들었습니다. 남성들이 병역거부를 결심하는 것도 힘든데, 병역거부 운동이 남성성을 재생산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결론을 이끌어 내는 논문이었거든요.

권 조금 위험한 부분이 있는 논문이죠.

공 그런데 저는 한편으로는 일리가 있는 논문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거든요. 강인화 님의 입장에 다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정 부분 병역거부 운동이 남성성을 재생산하는 부분이 없는 것이 아니니까요. 병역거부 하기도 힘든데, 남성성을 재생산하는 면이 병역거부에 있다면 젠더를 흔들면서 징병제에 저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고민이에요.

권 병역거부 운동을 평가하기에는 운동 기간이 짧고요. 논문이 병역거부 운동 내부에서 남성성의 문제를 정리하는 정도였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논문이 병역거부 남성들을 잘 이해하지 못한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병역거부하는 남성들에게는 남성성이

핵심적인 고민이었거든요. 군대에서 병역거부 선언을 한 유정민씨 씨 같은 분은 남성성을 일방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얼마만큼 힘든지를 공개적으로 말한 적도 있죠. 그래서 최근 6, 7년간의 병역거부 운동의 주체들의 의식 변화를 체크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 논문의 주제를 병역거부 운동의 문제로 말하기에는 조사와 내용이 부족한 것 같아요. 논문이 대중 매체나 병역거부 운동을 비판한 남성성의 흐름에 대한 평가로는 맞는데, 병역거부 운동 자체에 대한 평가로는 불공정하다고 나는 봤었어요.

공 저희가 세미나를 하기도 했고, 편집위원 한 사람이 창간호에 쓰기로 한 주제이기도 한데요. '군대', '군사주의'가 여성을 매개로 하지 않으면 존속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군대는 끊임없이 '여성의 보살핌'을 요구하죠. '엄마', '여자 친구', '성매매 여성' 등이 대표적인 예일 것입니다. 저희는 이중에서 군대 간 연인을 둔 여성들의 '감정 노동'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 군 입대한 학생들도 희생자가 아닐까, 하는 고민들을 하기도 했구요. 동시에 '군인들을 계속 '피해자', '희생자'로만 인식해야 하는가?' 라는 고민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는 '군대 간 연인을 둔 여성들은 어떻게 그들과 관계를 맺어야 할까,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할까?'를 고민하기도 했어요. 그에 대한 선생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권 군대, 징병제는 일시적으로 보면 시간의 피해라는 것이 존재하지만 결과적으로 길게 보면 화생을 전제로 한 기득권의 획득과 유지의 과정이에요. 많은 나라에서 나타지만 군대는 시민권 획득의 전제 조건이었고, 희생하지 못하는 할 수 없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만드는 구조의 어떤 결정적 면이 있어서 소수 민족일수록 군대에는 꼭

가려고 하죠. 군대는 기득권 진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정으로 모든 나라에서 인정을 받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단순히 군대를 간 사람은 피해자다, 라고 말하기 힘들어요. 가기 전에는 피해자가 가서는 피해자 같은 느낌이 많이 들지만, 갔다 오고 나서는 거의 '피해자'라고만 믿고 있는 사람은 없거든요. 얼마 전에 나온 여성 정책에 관한 한 통계를 보면 남성들 상당수가 군대를 갔다 온 경험이 자기 삶에 도움이 된다는 부분을 인정하고 알고 있죠. 막연한 피해 의식은 회생을 강조하면서 얻을 수 있는 기득권을 얻기 위한 집단 의식이고, 피해라는 것도 자세히 보면 시간 말고는 우리 사회에서 사병들에게 가해지는 가학과 피해 구조에서 오는 것이예요. 그러니깐 복무 시간보다는 복무 이외의 시간에 내무반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내가 군대에서 뭐 빠지게 뭐했었는데'라고 하게 하는 거죠. 상당수가 사병 간의 가학과 피학 구조에서 온 거고 그것은 정말 많은 나라에는 있지 않은 거죠. 개인 시간이 보장되는 않는 구조도 있고요. 한편으로는 극복하지 못한 자의 문제이기도 하고, 피학과 가학 구조로 군대 문화가 형성된 문제이기도 하다고 생각해요.

여성들의 감정노동 부분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강하게 강조하기는 힘들어요. 사실 군대 간 사람이 더 힘들기 때문이죠. 여성들의 감정노동을 강조하기 보다는 자신의 여성성을 극복하지 않으면 진정한 남자가 될 수 없는, 그러니깐 군대의 젠더 매개가 기본적으로 훈련과 참다운 군인이 되기 위한 그런 요소로 작용을 하는 면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또한 중요한 점은 군대라는 곳이 서열을 어떻게 맺는가가 중요한지를 알려주고, 약자와의 관계를 알려주는 곳이죠. 사회의 '약자층'으로 구성되는 여자들에게 있어서는 남자들이 자신들을 어떻게 다룰지를 2, 3년 동안 훈련받는자를 모르고 축구 이야기만을 듣고 있다는 것만이 위험한 일이죠. 실제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이뤄지는 전혀 모르고 방관자적이고 마치 감정의 빔을 지고 있는 것처럼 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사회생활이나 가정생활에서 여자들이 우리나라 남자와 호흡 맞추기 위해 부적합하고 준비 안 된 상태로 살고 있는 것인지를 얘기해주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군대의 남성성이 해체되는 지점들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면, 교육이나 다른 여러 가지 부분에서 ‘남자답다’라는 신념을 무너뜨릴 수 있다면 그것은 어떤 식의 평화운동보다도 힘을 가지고 있는지도 몰라요’

꿈 이제까지의 가부장적, 남성중심적 가치에 기초한 ‘운동’이 아닌, 여성주의적으로 ‘운동’을 실천한다는 것에 관한 고민이 있어요. 선생님께서는 1980년대 학생운동을 겪으시고 이제는 그와는 조금 다른 운동을 하고 계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선생님의 작업을 보며 오늘날 여성주의적으로 평화와 운동을 재구성한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 궁금해했습니다.

권 (웃으면서) 그거 (질문) 너무 커서.

꿈 (약간 당황) 집회나 구호도 운동이지만, 선생님께서 책을 내는 것도 저화들이 글을 쓰고 저널을 내는 것도 일종의 운동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선생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어떤 형태로 운동을 하고 싶으시냐고 물으면 질문이 좀 좁아질까요?

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가주의나 군사주의 문제는 사람들의 상식선으로 내려와 있고 특히 남성성은 깊게 뿌리내려 있는 부분이라서 어떤 무의식적인 도덕성과 그것에 대한 관념, 이런 부분에 대한 도전

과 해체를 전제로 작업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구호로서는 쉽게 설명되지 않는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분석하고 해체하는 부분이 있죠. 예를 들어 군대의 남성성이 어떻게 도전받아야지 군대가 달라질지 아니면 군대의 남성성이 해체되는 지점들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면, 교육이나 다른 여러 가지 부분에서 ‘남자답다’라는 신념을 무너뜨릴 수 있다면 그것은 어떤 식의 평화운동보다도 힘을 가지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것은 굉장한 도전이 될 수 있죠. 국가 안보에 대한 도전일 수도 있지만 국가 안보에 대한 도전을 떠나서 기본적으로 신념과 도덕 체계에 대한 도전은 접근하는 방식도 다르고 그것이 가져올 수 있는 힘이 다른 것 같아요. 적어도 이제는 애국주의라든가 막연한 민족주의는 지식인들은 편하게 이야기하지 못 하잖아요. 1990년대 말까지만 해도 편하게 얘기했거든요. 이런 것들이 가능했던 힘들은 단순히 구호로 이야기될 수 없는 부분을 글이나 섬세한 도전에서 가능했기 때문이죠. 저는 여성주의적 감수성이나 이를 통해 본 권력 체계, 남성성, 국제관계에 대한 새로운 도전들이 의미가 크다고 생각해요.

꿈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웃음) 이걸 마무리 하는 질문인데요, 최근의 군사주의 연구 내의 동향이나, 새로운 연구 주제에 어떤 것이 있는지, 선생님께서 최근에 가장 관심 갖고 계시는 이슈나 연구 과제가 무엇인지 궁금해요.

권 그냥 닥치는 대로 하는데. (웃음)

꿈 분야를 가리지 않으시고 닥치는 대로 하시나요? (웃음)

권 아니요, 아니요 (웃음) 되는 대로 하죠, 뭐.

공 질문을 하다 빠진 것 같기도 하고 뻥 것 같기도 한데요. 제가 선생님 책 『대한민국은 군대다』에서 국가화된 평화나 강제된 평화를 얘기하시는 부분이 명쾌하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평화와 전쟁에 대해 질문하는 방식을 바꾸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평화냐 전쟁이냐'가 아니라 '평화냐 전쟁이냐가 어떻게 짝여져 있는지를 봐야 한다'고 질문 방식을 바꾸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런 질문 방식을 통해 많은 고민을 해야겠지만 의문으로 남는 것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군사주의라는 것이 상식선으로 많이 내려와 있어서 생기는 부분이에요. 지식인이 하는 말이나 저희 아버지가 항상 하는 말이나 들어 보면 항상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와 같은 분들 혹은 세대에게는 안보문제가 생존 논리의 문제와 함께 묶여서, '군대를 가야 네(내)가 살 수 있다'라고 하시는데 이 부분이 힘들어요.

권 말을 꺼내기가 힘들죠.

공 이런 부분이 많이 난감하더라고요. '평화'의 가장 힘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안보 문제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생존 논리와 싸워야 하는, 평화의 대척점에 생존 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혹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것들이 좀 더 연구가 되어야 하는지가 궁금해요.

권 생존논리이기 때문에 대중에게 접근하기가 힘들다는 이야기는 맞는 것 같아요. 이제까지의 약자라는 관점에서는 전망에 접근해 나가기

가 어려워요. 우리나라 정부가 중국과 일본과의 관계에서 약자적인 관점을 가지고 생존의 논리, 부국강병의 논리를 세우고 있죠. 이것은 지식인 사회에서도 아직까지도 통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식인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은 제 생각엔 쉬운 것 같아요. 저도 고민이 거기에(생존논리이기 때문에 대중에게 접근하기가 힘들다) 머물러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경쟁논리를 통해서 경쟁의 끝에 어떻게 가겠다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일본의 민족주의는 경쟁하면서 우리는 편잡다는 것인지,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강대국 사이에서 지금과 같은 부국강병의 논리가 정말 설득력을 가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대안적 논리들을 많이 만들어 나갈 수 있고, 북한이 부국강병의 논리에서 스스로 자멸하고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지식인 사회에는 어느 정도 설득이 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들지만 대중적 차원에서는 선언적 모델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유럽통합과 같은 이런 식의 통합적 군대, 통합적 군축식의 국가의 손을 벗어나는 군대와 평화의 논리들을 선언적으로 만들어 나가면서 설득을 시켜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합의에 의한 선택은 불가능할 것 같고 지식인들과 정책 담당자들이 앞서서 만들어가는 방식에서 위치가 찾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이 제일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 조금 더 대중적 활동, 그러니까 '강한 국가가 정말 자신을 잘 보호하는가', '이라크는 약해서 자신들을 못 보호한 것인가' 등을 시작으로 하는 활동은 가능한데 확대된 범위의 활동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지식인인과 상층의 여론 메이커들에 대한 작업이 더 의미 있게 진행되면서 만들어져 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 이 답답한 부분들을 다른 곳으로 풀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공. 꿀. 네. 바쁘신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권 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선생님은 인터뷰에 참석한 '평평', '우공', '공의택배' 각자의 이름과 그 뜻을 물어 보셨고, 특히 '평평'이란 이름을 재밌어 하셨다. 그리고 큰 키로 우리보다 먼저 엘리베이터로 성층권을 걸어가세서는 우리를 위해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러주셨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사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페미니스트가 되었어요?" "재미어요. 페미니즘 하는 거?" 라고 물으셨는데, '평평'과 '공의택배'가 동시에 "네"라고 말했다. 그러곤 우리가 '선생님은요-?'라고 다시 묻자, "난 말 키우는 것만 재밌어요"라고 대답하셨다. 인터뷰를 위해 읽었던 권인숙 선생님의 「선택」에서 선생님의 말 자랑을 익히 본 우리는 '아, 그 말'이라고 생각했다. 책 속에서 만난 권인숙 선생님은 다소 차갑고, 냉정한 눈을 한 '학자'처럼 느껴져서 사실 조금 걱정을 했던 게 사실인데, 우리가 실제로 만난 권인숙 선생님은 웃음도 많고, 사랑스러운 말 자랑을 스스로없이 하시는 그런 분이셨다.

군사주의 세마나를 하며 우리들은 풀리지 않는 질문들을 갖게 되었고, 이 질문들을 모아서 선생님께 질문했다. 우리는 군대에서 남성이 여성을 다루는 폭력적인 방식은 구체적으로 모르면서 여성이 남성 군인들에게 축구한 이야기만을 들으며 여성이 뭔가 남성에게 빚진 사람처럼 신다는 말들과, 군가산점 논의에서는 부각되지 못한 젠더 문제를 여성들이 사회복무제 도입이 논의되는 상황에서 얼마만큼 부각시키지가 현재 중요하다는 말을 들으면서 통쾌함과 명쾌함을 동시에 느꼈다. 물론 군사주의에 관한 모든 의문이 풀린 것은 아니다. 맨 마지막 질문인 생존논리와 긴밀하게 연관된 국가안보의 논리는 여전히 우리에게 고민이다. 생존과 국가안보 사이의 연계고리를 우리는 어떻게 보고 어떻게 변화시켜야 할까. 구체적인 활동과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라 더욱 그렇다. 아는 만큼 어려워졌지만, 아는 만큼 우리의 고민은 더욱더 풍부해졌다. 그리고 알고 실천하는 우리의 발걸음은 계속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인화, 「한국사회의 병역기부 운동을 통해 본 남성성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 청구논문, 2007.
- 권오분, 「군대경험의 의미화 과정을 통해서 본 군사주의 성별정치와 남녀공학 사례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석사학위논문, 2000.
- 권인숙, 「우리를 살 속의 군사주의 여성의 군사주의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제17차 춘계여성학의 학술대회 자료집, 2003.
- , 「대한민국은 군대다」, 창년사, 2005.
- 김현영, 「죽이고 싶은 여자가 되는 법 : 군가산점 논란에 나타난 남성지배문화」, 『페니스 파사즘』, 개마고원, 2001.
- 김현옥, 「일상생활 속의 군사주의 재생산과 성별 경험: 의식 경험 행위간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 여성학』 제18권 1호, 2002.
- 나윤경, 「군사주의가 재현, 강화, 학습되는 공간으로서의 남녀공학대학교」, 한국여성학회 21차 추계학술대회 발표문, 2005.
- 문승숙, 「군사주의에 갇힌 군대」, 도하나의문화, 2007.
- 심영희 외, 『세계화와 여성안보』, 한울, 2007.
- 오미영, 「군사주의와 젠더화된 위계질서」, 『여성연구논집』 13호, 2002.
- 우에노 치즈코, 「내셔널리즘과 젠더」, 이선이 옮김, 박종철출판사, 1998.
- 윤종빈 감독, 영화 〈용서받지 못한 자〉, 2005.
- 정화진, 『페미니즘의 도전』, 교양인, 2005.
- 조약글, 「평화를 지켜내는 힘-국가안보에 맞서 사회적 참여로」, 『인권하루소식』 제284호, 2005년.

n[앤]이 말해요 1

독자모임, n[앤]과 친구들에 초대합니다

여성주의 모임 n[앤]과 청간호에 대해 이야기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청간호 준비 과정의 뒷이야기, 여성주의에 대한 다양한 생각을 나누는 자리에
독자분들을 초대합니다. 따뜻한 차와 간식도 준비했어요^^

일시_ 2007년 12월 5일 수요일 오후 7시

장소_ 중앙도서관 (카페 아시아)

(도서관 정문으로 들어오셔서 한층 아래로 내려오세요)



달빛 뒤찾기



Illustration by 이선 seon@hanmail.net

"밤의 소란으로(실제로 일면 일면 같은) 평범한 수줍은 여성이 마음에 대해 유감할 수 있어야 한다. 여성은 개를 유감은 여성 개인의 경험으로 한정되어 이야기하는 것은 남에서 유감인 영역에서 유감있게 드러나야 한다." - 에어

달빛 아래 평화롭게 나돌아 다니는 미친년 아님 여자 되기

맹맹 편집위원

기집애가 싸돌아 다녀서는 안 될 늦은 시각, 친구와 언니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문득 미친년 널뛰기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그런 생각이 든 시점은 하루하루를 치열하게는 아니지만 그럭저럭 바쁘게 살아가며 소소한 충격을 받으면서 자라나는 스무 살, 매일 말도 안 된다고 남들이 판단하는 상상을 지웠다 다시 했다 또 지워버리는 아쉬움과 답답함이 푹 핑거져 나오던 때였다. 무겁고 엄숙한 공기가 위에서 아래로 짓누르는 중력과는 반대 방향으로 뛰어 올랐다가 다시 내려앉고 또 다시 뛰어 오르는 반복적이면서도 리드미컬한 널뛰기를 하는 미친년의 표정은 한 번씩 뛰어오를 때마다 새롭게 신나게 변할 것 같다.

여자가 집 안에 있다. 여자가 집 밖으로 나간다.
여자가 걷는다. 여자가 뛰다. 여자가 날뛰다.
가집에가 날뛰다. 미친년이 날뛰다. 미친년이 날뛰다.

또 이러한 생각의 이어짐은 이왕이면 가만히 있는 여자 보다는 날뛰는 미친년이 나올 것이라는 판단에 다다르게 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할지는 되는 대로 생각하기로 했다.

— 김이민경, 「미친년 날뛰기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어린 시절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엄마에게 듣는 가장 심한 잔소리는 “밤늦게 싸들아다니지 말 것”이다. 동생과 나는 단지 성별이 다를 뿐인데, 심지어 내 동생은 나보다 나이가 어린데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훨씬 자유로운 이동권을 지닌 것에 대해서 나는 꽤나 심한 동경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술한 성폭행, 여성을 상대로 한 연쇄 살인 사건들은 ‘딸’가진 엄마를 몹시도 불안하게 했다. 이렇거나 위험한 세상에서 밤거리를 활보하는 여성들은 자신의 정조를 내팽개친 ‘미친년’이나 다름없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특별한 상황에 발생하는 굉장히 이례적인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가부장적 질서의 구조적인 폭력 속에서 배태된다.¹⁾

전쟁을 선포하지 않았지만(동시에 종전은 언제 이루어질지 알 수가 없는) 여성들은 일상적인 폭력에 노출되어 있다. 비 오는 날 특정한 옷을 입은 여성들에 대한 연쇄살인이 일어나고, 밤늦은 시간에 택시를 탄 여성이 성폭행 후 살인되고, 여성(들)만이 사는 집에 남성(이웃인, 경비업체

직원인)이 침입하여 성폭행을 한다.(이런 술한 사건 사고들은 피해 여성뿐만 아니라 다른 대다수의 여성들을 움츠러들게 하는 총성과도 같다.) 여성을 가두는 공포, 그것은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나 있기에 대항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일까? 서울에 갓 상경한 나의 여자친구가 가장 먼저 하고 싶다고 한 일은 남자친구를 사귀는 것이었다. 자신에게 있어 각종 성범죄들로 얼룩진 서울의 밤거리는 너무나도 위협적이며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남자친구를 빨리 사귀고 싶다는 말이었다. 참 말도 안되는 대안이다 싶었지만 생각해보면 그 친구가 느꼈던 공포감에 비해 보기로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은 턱없이 적었다. 밤거리를 돌아다니면 만날 수 있는 인상적인 풍경은 여자친구를 바래다주는 것으로 보이는 남자 친구들의 모습이다. 자신의 집 방향과 같다면 그나마 다행이겠지만 여자친구의 안전을 위해 그 늦은 시간 그 먼 길을 함께 가야만 한다. 여자친구는 남자친구에게 미안한 마음을 지울 수 없고, 혼자 집으로 돌아가게 될 남자친구에게도 밤길은 무섭다. 위험한 밤거리를 다녀야 하는 여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남성의 보호가 아니다. 보호하겠다는 말은 곧 스스로 힘을 가질 권리를 빼앗는다는 의미와도 같다. 보호와 통제라는 가늠 요소를 없애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비난의 화살은 밤늦은 시간 거리에 나오는 여성들에게 돌릴 것이 아니라 범죄(성폭행, 살인 사건)를 일으키는 당사자와 그런 범죄를 의례적으로 받아들이는 사회 인식에 보내져야 한다. 빛과 소리만으로도(실체가 있건 없건 간에) 경험할 수밖에 없는 여성의 공포에 대해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 여성을 가두는 공포는 여성 개인의 경험으로 한정지어 이야기하는 것을 넘어서 공적인 영역에서 공공연하게 드러나야 한다.

1) 김현아, 「전쟁과 여성」, 여름언덕, 2004.



Illustr by A-sen aecoss@hanmail.net

"만약이면, 나는 당연히 원심으로, 네 스스로도 충분한 '이름다운 밤'을 즐기고 있을 것
 이다. '복잡'이 많은 네 좋은 밤'을 여전히 네 허영'이기에만 화려한 수밖에는 없는 것
 이다." _ 꿈의택배

밤거리의 나를 내버려둬요.

꿈의택배 편집위원

나는 먼저, 집에 들어오자마자 평소에는 웬만해선 잘 잠그지 않는
 보조 잠금 장치까지 꼭꼭 걸어 잠갔다. '그 일' 때문인지, 신고 벗기가 아
 직 불편한 새 샌들 때문인지 내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다. 나의 그
 날은 평범한 날이었다. 매주 목요일에 있는 모임을 끝내고 가벼운 맥주
 한 잔씩을 나누고는 먼저 집으로 향하던, 그 날은 그런 평범한 날이었다.
 그러니까, 그 일이 있기 전 까지는 말이다.

내가 온수역에서 집으로 갈 때면 늘 이용해오던 길이 있다. 빌라 단
 자를 잇는 작은 길인데 왼쪽 담 위로 개나리 나무며 넝쿨나무들이 자라
 있다. 나는 어느 봄의 낮에는 그 개나리꽃의 빛깔을 감탄했고, 밤이면 달

빛과 붉은 가로등 빛에 반사되어 그 나뭇잎의 밤의 운치를 만들어내는 그
림자를 감탄하곤 하는 길이다. 밤에는 사람의 발길이 뜸하긴 해도, 그런
운치를 감상하다보면 혼자 걸어도 좋은, 나에게서는 그런 길이였다.

그 날도 나는 아무도 없는 길을 혼자 걸다가 지난겨울, 여기 눈이
평평 내렸던 풍경을 새록새록 기억해내며 그 날의 소복하얀 눈길이 참
아름다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밤 11시가 훌쩍 넘어선 이 길에는, 사
람이 거의 없고 어두컴컴하다. 그런데 가만 보니 저기 앞서서 누군가 걸
어가고 있다. 나보다 한참 앞서 있는데, 조금 걸어가니 그 아저씨가 보이
지 않는다. '어, 어느새 교회 옆길로 가셨나보네?'라며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는 지나가고 있는데, 나는 얼마 안 가 그 아저씨와 마주치게 된
다. 그러나, 이것은 끔찍하게도 불편한 대면이다. 그는 자동차 옆에 서 있
었다. 오른손으로 열심히 마스터베이션을 하며, 나는 '아, 드디어
내가 이런 걸 당하는구나.' 생각하며, 되돌아 갈 수도 없고 무조건 이 길
을 빠르게 지나가버리자, 라고 생각하며 잔걸음으로 그 옆을 걷기 시작했
다. 그런데 이제 그 아저씨는 아예 나를 향해 본격적으로 몸을 돌리고는
열심히 '그 운동'을 하고 있다. 그는 이미 절정에 이르기 직전인 듯 보였
다. 한창 흥분한 채, 그러곤 내게 말까지 저는 게 아닌가!! 차마, 내 글에
담기조차 싫은 그런 말을 나는 순간적으로, 갑자기 그 아저씨가 나에게
달려들 것만 같은 공포심에 '악~' 비명을 지르며 내리막길을 뛰어갔다.
나도 예상치 못한 비명이었다. 그것도, 철저히 공포심에서 기인한. 그런데
뛰어 내려가며 생각해보니 '아니지, 아니지... 가만... 내가 왜 이러고
있지?' 하는 생각이 들어 난 그 자리에 가만히 멈춰 섰다. 그리고는 뒤를
돌아 소리쳤다. '아저씨, 경찰에 신고 할거야!!' 라고 아니, 그런데도 그는
여전히 희희대며 '이리 와봐'라며 나를 향한 유혹의 말 걸기를 멈추지
않는다. 급기야 나는 '뭐, 야이 새끼야!!' 하고 뽕 소리를 지르고는 씩씩거

리며 뒤돌아 집으로 향했다. 씩씩한 '척'. 물론 나는 이어지는 어두운 지
름길로 차마 들어서지 못하고, 큰 길로 향했다. 그러곤 생각나는 대로, 방
금 전까지 함께 있던 친구에게 전화를 했는데 어찌나 놀랐는지 심장이
하도 벌렁거려서 전화기에 대고 한동안 말을 제대로 하지를 못했다. 불행
인지지, 다행인지지 내가 그런 '본격적인' 길 위의 성희롱 범(흔히 '변태'
라고 불리며 여학교 앞의 '바바리맨' 과 같은 형태로도 자주 출몰하곤 하
는)을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던 것이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나는
'저런 놈한테는 육해도 싸다 싸'라며, 최근에는 입에 담아본 적도 없던 말
을 '그 놈'을 향해 수 없이 중얼거렸다. 미친 새끼 미친 새끼 미친 새끼
미친 새끼.....

대체 그 어둡고 먼 데서 내가 걸어오는 걸 어찌 알았을까? 설사 그
가 알았다고 하더라도 어둠 속에서의 내 형체만을 볼 수 있었을 것인데,
그에게는 '지금, 여기에, 하늘하늘한 치마를 입은 여자가 있음' 이라는, 나
의 그 '존재만으로' 그렇게 흥분이 되는 걸까? 근데 어찌나... 있잖아, 아
저씨, 미안한데 당신한테 '존재만으로도 큰 의미'가 되는 거에는 난 무
척, 별로 관심 없거든 정말이지 나는 그만, 심하게 단순하고 동물적이고,
타인에 대해 폭력적인 그 흥분에 놀라고 말았다. 평소에 여성주의에 대해
공부하고, 고민해오며 '내가 길에서 혹은 지하철에서, 성희롱을 당하게 된
다면 어떻게 대항해야 할 것인가?' 에 관하여 고민해오곤 했다. 호루라기
를 준비한다, 그 남자가 놀라도록 소리를 지른다, 지하철역에서 오히려
그의 발을 세게 밟아버린다 기타 등등. 그러나 나의 그 상황에서 이전의
그러한 고민은 쓰일 겨를이 없었다. 호산술은 무슨, 경찰은 무슨. 별안간,
나 스스로도 놀란 비명 소리만 겨우 뛰어나올 뿐이었다. 내 상황에서 가
장 통쾌하게 대처할 수 있는 말은 '에게게... 저기도 겨우 고민한 주제에
어디서 내밀어?' 라는 것은 많은 '언니들'의 이야기들을 통해 나도 익히

알고 있었다. 하지만 한 성격에다 한 까칠한 말투로 들레가라면 서러운 나였음에도 그런 말을 할 입이 도무지 떨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여자라서 행복한’ 내가 ‘여자라서 불행해요’ 라고 말 할 때 1,2위를 다투는 이유는 밤거리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이다. 밤은 모든 여자에게 있어 공공의 적이다. 밤거리에서는 어떤 여자도 안전할 수가 없다. 내리막길을 뛰어 가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했을 때 느꼈었던, 내가 바보 같고 부끄럽다는 그 생각은 곧 수정되어 정리해야 했다. 그것은 ‘변태에 대처하는 우리들의 자세를 현명하게 숙지하지 못했다는 부끄러움’이라기보다는 ‘왜 내가 이런 상황에서 도망을 가야 하는 거지?’ 라는 되물음에 가까웠었던 것이다. 그 밤은, 그 길은 그의 것이 아니었는데 나는 그 길에서 도망쳐야만 했다. 단순히 그 남자가 흥분의 대상에 일방적으로 나를 설정했다는 것보다도 더 내가 화가 나는 것은, 그는 그 날 이후 내 밤길을 빼앗아 버렸다는 것이다. 그 일이 있은 후로, 나는 내가 좋아하던 그 길을 쉽게 가지 못하고 있다. 봄의 그 길에 만발한 개나리의 풍경을 기억하는, 겨울날 흰 눈이 평평 내렸던 그 길에서 핸드폰으로 멋진 사진을 찍은 기억이 있던, 밤에 더 운치 있다고 생각했던, 좋은 친구와 같이 걸으며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는 기억이 있던, 그 길을, 그는 한 순간에 나로부터 앗아가 버린 것이다. 거기 아저씨들, 밤거리의 나를 그저 홀로 내버려둬요.

‘여행지에서 민트 맛의 밤공기를 마시며 혼자 걷는 것을 무엇보다 좋아하는’ 나의 한 친구가 ‘여행지에서 늦은 밤에 혼자 걷는 것은 위험하다고 하여 숙소 옥상에서 그 기분을 대신해야²⁾ 했던 것이 지금 생각해도 너무 아깝다고 썼던 그 심정을 나는 백만 번 천만 번 동감한다. 그녀 만큼 어둡고 선선한 바람이 있고 분위기 있는 밤거리 산책을 좋아하는

2) 랠라, 『여행지로부터 보내는 서신, 『성공회대 여성주의 저널 14권 창간준비호』, 2007.

나이지만 내가 밤을 산책하는 것은 내 안보를 담보로 하고서야 가능하다.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만 했다. 지방에 계시는 나의 엄마는 전화 할 때마다 거의 항상 ‘집에 일찍 들어가거라’를 강조하시는데, 엄마는 내가 일찍 들어간다고 걱정을 하실 것이다. 어떻게 한대도 내 엄마의 걱정을 완벽히 덜어드릴 수는 없겠지. 아마도.

어떻게, 언제쯤, 나의 밤길은 편안해 질 수 있단 말인가? 여자들의 밤길은 과연 명치 좋고 들직한 ‘남친’을 대동해야만, 코미디에 자주 쓰이는 소재인 ‘치한 방어용 호신술’을 익히고 난 후에만 즐거울 수 있는 걸까? 나에게서는 그런 ‘완소 남친’도 없고, 굳이 시간 내서 치한 방어용 호신술을 배울 생각도 아직 없는데 그렇다면 난 영영 불안과 공포 속에서 벌벌 떨며 밤길을 맞아야 하는 걸까? 악, 끔찍해.

말하자면, 나는 온전히 진심으로, 나 스스로도 충분한 ‘아름다운 밤’을 즐기고 싶은 것이다. ‘무섭지 않은 나 홀로 밤길’은 여전히 내 희망사항에만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걸까?

110쪽과 114쪽에 사용된 일러스트는 이선 님의 작품입니다.

일러스트 사용을 허락해주신 이선 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선 님의 E-mail: roeossi@hanmail.net

당신이 만들어 가는, 또 하나의 여성주의

당신은 여성주의자가 아니라고요? 여성주의에 대해 잘 모른다고요? 상관없습니다. 여성주의가 뭐 별건가요? n엔 편집위원들이 다 알아낼 수도 없고, 다 펼쳐 보일 수도 없는 수많은 여/남의 경험과 삶 속에 세상을 바라보는 다층적인 시각이 삶을 살아내는 또 다른 힘이 또 다른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 경험과 그 삶과, 그 시각과 그 목소리와 만나고 이어지길 바랍니다. 과제물이 됐건, 일기가 됐건 평소에 적어왔던 글들을 PC 속에서 꺼내 n엔과 만나게 해주세요. 여러분의 감수성과 저널 n엔의 만남은 더욱 풍부한 여성주의 삶-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예요.

n엔 편집위원이 아니더라도 저널 n엔에 글을 살을 수 있어요.

글을 보내주실 곳 : feminism-n@janbo.net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 땐

<http://club.cyworld.com/feminism-youNme/>



세미나

흔적

동굴 속의 우리들, 그리고 삶에 대한 고통

성공회대 여성주의 모임 미엔 세미나

—『페미니즘 도전』(정희진, 2005)의 서문을 읽고 내 인생의 서문을 쓰자

김건우,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집으로 들어가자 누군가가 요리를 하고 있다.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집안에 진동한다. 그 누군가는 방금 세탁이 끝난 빨래를 널고 있다. 그 누군가의 뒷모습은 우람하다. 멍치도 있고 어깨와 등판도 넓다. 그 누군가는 나의 아버지다.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가 있다. 그 누군가는 분주히 밥을 먹고 거울을 한 번 쳐다보고 나에게 학교 언제 가냐고 물어본 뒤 집을 나간다. 그 사람은 나의 어머니이다. IMF때 아버지의 사업 실패 후 어머니가 경제권을 쥐게 되자 우리 가족의 삶은 바뀌게 되었다. 과거 가부장적 권위와 경제권까지 쥐고 있었던 아버지는 집안의 절대자였다. 그땐 가족 내 중대사 결정은 아버지가 내렸으며 우리는 그 결정에 따라가기만 했다. 하지만 어머니가 경제권을 쥐게 되면서 아버지의 권력(?)이

어머니, 그리고 결국엔 누나와 나에게 분산되자 집안은 하나의 작은 민주주의 사회가 되었다. 모든 결정엔 가족 모두 참가하고 같이 결정을 내렸다. 집안일은 주로 아버지가 하고 각자 맡은 일을 한다. 예를 들어 직장인인 누나와 어머니는 돈을 벌고 아버지는 집안일을 하며 돈을 벌고 나는 집안일을 보조하며 학교를 다니는 식의 분담이 시작되었다.

어렸을 적 세상은 누구의 말처럼 '종이 딱지'만 했다. 세월이 흐르고 머리가 커지면서 내가 '누구'이며 너는 '누구'인지를 알아갔다. 그것은 교육으로 알아갔고 교육은 다양한 이분법을 만들었다. 짙은 선악의 기준이 세워졌고 동시에 남자와 여자라는 절대적 기준이 세워졌다. 그때 당시엔 항상 나는 '이것만 알면 세상의 대부분을 알 것 같아'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하나의 알은 두 개의 물음을 탄생시켰고 두 개의 대답은 네 개의 물음을 탄생시켰다. 세월이 흐른 뒤 눈앞에 펼쳐진 것은 세포 분열을 하듯 늘어난 물음의 바다였다.

중학생 시절 인간은 크게 남성과 여성으로 나누어진다고 생각했다. 이 생각은 절대적인 것이었다. 하지만 하리수가 '당당히' 등장하고 그에 반해서 홍석천의 커밍아웃은 '이상히' 여겨지고 TV에서 중고등학생의 동성애를 문제시하는 프로그램들을 보면서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 인간의 성(性)이 두 개 뿐일까?

정희진씨는 "숨겨진 진실에 대한 알아간 고통스러운 것"이라고 했다. 동굴에 갇혀서 그림자만 보던 수인이 동굴 밖으로 풀려나 그림자의 진실을 보았을 때 수인은 진실을 본 경이로움과 함께 여태까지 속아서 살았다는 '고통' 또한 느꼈을 것이다. 중고등교육을 받으며 구축해온 '진실'이

라고 여겨진 생각들이 어쩌면 잘못된 생각들이라 여겨질 때의 고통도 비슷했다. 세포분열이 진행될수록 어느새 과거의 생각들을 수정해갔고 어쩌면 과거 '진리'라고까지 여겼던 성 이분법 또한 잘못된 생각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결국 사회적 성으로서 개인은 각자 다양한 종류의 성을 보유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러한 생각은 나에게겐 충격이자 '고통'이었다.

아버지의 절대적 권위 상실 후 우리 가족은 더 화목하고 즐거운 집이 된 것 같다. '남자 혼자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라는 신화에 사로잡혀 있었던 아버지는 가끔 술을 먹고 자신의 현재 상황을 한탄하기도 한다. 아버지를 보면 과거 권력자의 권력 상실을 보는 듯해서 뜻 모를 안타까움이 생겨난다. 현재 이러한 가정이 늘고 있다. 가족 내 경제권 분할로 인한 전통적 남녀 성역할의 변화뿐만 아니라 남성스러운 여성, 혹은 여성스러운 남성과 같은 다양한 사회적 성의 등장으로 위와 같은 가정이 생겨나고 있다. 이것은 새롭게 생겨나는 이 시대의 '진실'이다. 성별 이분법을 해체하고 인간을 남녀로 구분하는 것이 아닌 하나의 인간이라는 생각이 뿌리내리도록 하는 것이 현재의 '진실'이라고 생각하며 이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는 '고통'을 견안을 준비를 해야 한다. 특히, 남성은 현재까지 누렸던 특권들을 포기해야하는 부분이 있다는 점에서 '고통'은 남성들이 더 많이 준비해야 한다.

'Off Style'을 외쳐라!

남래 편집위원

'예뻐 보이고 싶다'에서부터다. 예뻐 보이는 여자들을 흠쳐보기 시작했다. 지하철에서며, 길거리에서며, 느티나무 주변에서며, TV에서며, 인터넷에서며, 친구들을 만날 때며, 스타일이든 얼굴이든 맛이 났든 예쁜 것을 가지고 있는 여자들에게선 눈을 떼지 못했다.

'저 여자를 예뻐 보이게 하는 것은 대체 무엇인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실은 하나도 놓치지 않고 보고 있었다. 머리카락이나 옷 같은 아주 기본적인 것에서부터 맴시나 자세나 표정, 어투 같은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놓치지 않고 살펴보고있다.

이럴 때조차 발동하는 치밀한 분석력은 결국 나를 이런 결론으로 이끌었다. 중요한 것은 자신만의 스타일을 갖는 것이라는 것(이것은 케이 블 채널 <On Style>에서도 가장 강조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뻐 보이는 여자들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고, 내 스타일보다는 그 여자들의 스타일을 욕망하는 일을 멈출 수가 없었다. 자기만의 스타일을 갖췄기에 예뻐 보이는 여자들, 어쨌든 트렌드 속에 있지만 디테일하게는 다종다양한 그 모든 스타일을 나 혼자서 다 욕망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나의 스타일은 그녀들의 스타일을 부분부분 모아놓은 것이 되어버렸을 것이다.

어제 낮에는 알바 중이었는데 택배아저씨께 전화를 받았다. 인터넷에서 주문한 구두가 도착한 것이다. 작년 봄에도, 가을에도 나를 괴롭혔던 플랫슈즈를 기어코 사고야 말았다. 저녁에 피근을 하고 '리얼 세미나'에 가기 위해 온수역에 내렸다. 학교로 가는 길에 마주친 한 여자의 블라우스와 가디건이 참 잘 어울린다. 다음에 꼭 저런 스타일로 입어보고 싶다.

그리고 세미나에서는 다이어트에 대해 이야기했다. 아름다움의 기준이라는 것이 여성들로 하여금 스스로의 몸을 얼마나 혐오하고 해치게까지 하는지를,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터무니 없는 기준이며 기형적인 것인지 하는지를, 그러면서 나는 토로하게 되었다. 예쁜 옷을 입고, 예쁜 스카프를 두르고, 예쁜 구두를 신고, 예쁜 가방을 메는 것을 나는 욕망하며 그 욕망을 채울 때 즐겁다고, 그러나 마음 한 구석에는 늘 씁쓸함이 떠나지 않았다. 그 욕망은 얼마나 타자화된 욕망인가? 나는 여성들의 외모를 통제하는 수많은 기준들에, 욕망을 만들어내는 소비문화 속에 이토록 길들여져

있단 말인가? 나는 그 욕망을 과연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트렌드와 디자인들을 끊임없이 욕망하고, 소비하고 또다시 욕망하고, 소비하는 일은 언제 끝날 것인가? 나는 이제 좀 자유로워지고 싶다. 나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규제하는 '스타일'이나 '트렌드'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다.

그런 것 따위는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의 매력은 또 어떠한가? 내가 좋아하고, 달고 싶은 많은 사람들이 뉴욕의 '모던 시크' 스타일은 흉내조차 낼 수 없는 자신만의 스타일로서 충분한 매력을 갖고 있지 않은가? 그래, 한 번 해보자. 옷은 많은데 정작 입을 옷이 없다는 말은 이제 그만 하자. 입지 않는 옷들이 옷장에, 서랍장에 차고 넘치도록 많은데 이번 봄엔 어떤 자켓을 살지, 어떤 블라우스를 살지를 끊임없이 물색하는 일은 그만두자. 더 이상 거울 앞에서 삼십 분씩 한 시간씩 씨름하지 말아야지, 길거리에서 만나는 여자들을 타자화하는 시선으로 바라보지 말아야지.

하지만 습관이라는 게 너무 무섭다. 욕망 앞에서 나는 자꾸 약해진다.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 나는 저녁에 만날 그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며 입을 옷을 골라 입고, 머리를 묶고 새 구두를 신느라 또 허둥지둥 출근해야 했던 것이다. 전철 안에서 이러지 말아야지 하면서 흘금흘금 그녀들의 구두와 자켓과 머리스타일을 놓치지 않았던 것이다. 모습을 비추어 볼 수 있는 거울이나 유리창 같은 것만 있으면 새 구두가 잘 어울리는지 알아보는 예쁜 상태인지 끊임없이 비추어 보았다. 아, 그리고 이 따사로운 햇살과 살랑거리는 봄바람이 찾아오면 사려했던 티셔츠와 청바지, 귀걸이와 스카프 등조차 포기해야 한다는 사실에 슬퍼지려 하기도 했다.

'S라인'이니 V라인이니 하며 미의 잣대들은 한도 끝도 없이 내 몸을 혐오하게 한다. 나는 왜 몸이나 스타일로 그 의미와 가치를 평가받아야 하는 것일까? 그러한 시각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진짜 나의 시선일까? 'S라인'이 아니어도, 사시사철 운동화만 신는대도, 어떤 스타일의 옷에 어떤 가방을 매치해야 하는지 모른대도, 최근 유행하는 짧은 머리를 소화하지 못한대도, 나는 나대로 나를 바라봐 줘야 하는 게 아닐까? 'off style'도 한 가지 방법이다.

n

여행,

관개,

노동

[illegible]

— 1980 —

삶은 여행, 여행은 또다시 삶

— 여름에 떠난 라오스 여행기

공의택배 맨집이루

전혜린이 말 한 것처럼 나에게도 '집사의 피가 한 방울 섞여있는' 것인지를 기본 적도 없는 곳을 그리워하곤 했다. 나를 아는 이 하나 없는 곳을 정처 없이 떠도는 것을 말이다. 여기가 아닌 새로운 곳, 지금 내가 갈 수 없는 어떤 곳에 대한 떠남의 동경이 내 속에는 있다. 그래서 나에게서는 동경인, 그런 막연한 곳에 이미 달은 이들의 여행기를 찾아 읽었고 이국적인 풍경과 이야기에 늘 매료되었으며, 그 속에서 내가 여행자가 되어 걸곤 했다. 그랬던 내가, 늘 꿈만 꾸던 내가, 이렇게 여행기를 쓰고 있다면 당신, 믿으시겠어요?

1) 전해린, 「먼 곳에서의 그림을」, 「목마른 계절」, 범우사, 1994.

어떻게 해서 나는 혼자 여행을 떠나게 되었을까?

그것도 생전 처음 타국으로 떠나는 여행에.

친구들은 용감하다고 했고, 아빠에선 "어떻게 너가 저길 혼자 갈지냐. 이번에 안 가면 안 되겠냐"고 하였고 나는, 내가 무모하다고 생각했다. 어느 날 들었던 라디오에서는 여행사에서 비행기표를 예약만 해두고 실제로 결제는 하지 않는 사람들이 무척 많다고 했다. 그 라디오 DJ는 그들이 그렇게 '상상 여행'을 한다고 덧붙였다. 떠날 수 없는 사람들이 인터넷 서핑으로 지금은 가지 못하는 곳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고, 사진을 보고, 마치 떠날 것처럼 비행기표를 예약하며 '상상 여행'을 하고 있다고. 나도 어쩌면 그런 '상상 여행'에 속했을지 모른다. 친구와 떠나기로 약속을 하면서도, 그 친구는 몰랐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불확실했으니까 말이다. 친구의 사정으로 동행인이 없어진 난 잠시 망설였지만 홀연히 혼자 떠나기로 했다. 나는 학교를 일주일이나 빠지는 '중대 결장'을 하면서까지, 첫 여행을 혼자 하는 두려운 모험을 감행하며 까지. 이번 여름 안에, 꼭 떠나야만 했다. 실은 나의 떠남은 필사적이었으니까. 여기가 아닌 낯선 어떤 곳. 다른 언어로 말하고, 다른 음식을 먹고, 다른 생김새를 하고, 다른 것을 보고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곳. 도피라고 말해도 좋다. 그래, 어쩌면 도피가 확실할지도 모르지. 하지만 그런 것쯤은 아무래도 괜찮았다. 도피로서의 여행도 여행에 대한 이유로는 꽤나 그럴싸하잖아? 돌아오고 난 후의 정적이 두려웠지만, 일단 떠나기로 했다. 돌아옴을 두려워한다면 떠날 수 없는 게 분명하니까. 그렇다면 난 앞으로 끝없는 두려움 때문에 어떤 것도 행하지 못하게 될 테니까, 일단 나는 당장은 떠나는 것만 생각하기로 한다.

공익단체가 여행한 경로

8월 17일	서울 출발 ~ 께오승, 홍콩을 경유해 태국 방콕 도착
8월 18일	태국 방콕 카오산 로드
8월 19일 ~ 20일	태국 치앙마이 트레킹
8월 21일	치앙마이 ~ 치앙롱 (솔로보트를 타고)
8월 22일	치앙롱 ~ 라오스 백병 (솔로보트를 타고)
8월 23일	백병 ~ 라오스 루앙프라방 (솔로보트를 타고)
8월 23일 ~ 26일	라오스 루앙프라방
8월 26일 ~ 28일	라오스 방비앙
8월 28일 ~ 30일	라오스 비엔티안
8월 30일 밤 ~ 31일 아침	농카이 ~ 방콕으로 가는 밤기차
8월 31일	방콕 출발 ~ 대만 께오승 경유
9월 1일	께오승 출발 ~ 한국 인천 도착

'라오스, 그게 어디데?' 라는 질문에 관하여

"라오스? 거기가 어디데? 왜 하필이면 거기야?"

여행을 떠나기 전, 떠나고 난 후, 돌아온 후에 내가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마주한 질문은 그것이었다. 사실 굳이 라오스가 아니라도 크게 상관없었다. 그게 어떤 나라든, 나에게 중요하지 않았다. 다만, 그곳이 여기와 다르기만 하면, 여기가 아니라면, 새로운 것들과 조우할 수 있는 공간이라면 그게 어디든, 그래서 선택한 곳이 라오스였다. 사람들에게 아직은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캄보디아의 앙코르 왓이나 일본 혹은 중국처럼 한국 사람들에게 지나치게 익숙하지 않은, 그러나 배낭여행자들 사이에서 그렇게나 좋다고 입소문이 나있다면 그 낯선 나라, 라오스.

공중에서 '저가항공' 팀, 결성되다!

갑작스러운 변한 비행기 일정을 이리저리 따라다니며 하루에 세 번이나 비행을 타게 된 바람에, 나는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게 되었다. '우리의 인연은 이 저가 항공기 덕택'이라며 우리는 '저가항공 팀'으로 스스로를 명명하였다. 믿을 수 없게도 카오산을 경유해서 방콕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나를 포함해 배낭여행을 하기 위해 떠나는 한국의 대학생 10명뿐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세 번 비행을 함께 옮겨 타다 보니 또래인 우리들은 자연스럽게 친해졌다. 내가 가장 나이가 적긴 했지만 거의 비슷한 또래였다.

카오산 로드, '카오스' 로드!!

10명인 우리들은 택시를 나눠 타고 태국 방콕에 있는 '카오산 로드'로 향했다. 어디로 가든, 동남아에서 여행자들의 길은 모두 카오산 로드로 통한다는 말은 정확하다. 그대로 태국을 여행하든, 라오스로 가든, 캄보디아로 가든 카오산 로드로 가면 해결 된다. 그리고 바로 이곳에서 내 계획에 뜬금없이 '태국 치앙마이 트레킹'이 추가된 것이다. 카오산에서 한껏 친밀해진 우리들 중 대다수가 치앙마이 트레킹을 계획하고 있었고, 나에게도 함께 하겠냐는 제안을 했다.

별이 빛나는 밤의 치앙마이

여행을 시작하자마자 만난 친구들과, 카오산 로드에서 하루 만에 헤어질 뻔한 내가, 계획에 없던 트레킹에 합류한 것은 정말 잘한 일이라고



여행사 가이드 '복키'와 '저가 항공 팀, 그리고 트레킹을 함께 한 세계의 친구들!!

생각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두 가지이다. 첫 번째는, 좋은 친구들을 얻게 되어 처음, 게다가 혼자 떠나는 여행에 대한 자신감과 익숙함을 기르게 된 것 같다는 것. 두 번째는 치앙마이 고산지대 마을에서 보낸 이 하룻밤 때문이다. 그것을 결코 잊을 수가 없다. 꺼만 하늘, 온통 어두컴컴한 그 마을의 하늘에, 진짜 영화에서처럼 그리고 동화에서처럼 별이 반짝 반짝 거리고 있었다. 하나가 아닌, 수없이 많은 수만 개의 별들이 거깃말처럼 말이다.



우리와 트레킹을 함께 한 여행사의 가이드들도 편인과 친구들. 난생 처음 코카인을 타 보는 것은 분명 흥미로운 경험이지만 텐지 나 때문에 코카인이 확대당하는 것 같은 기분에 코카인을 다시 타고 싶은 마음은 없었다.

이렇게 예쁜 도시, 루앙프라방



루앙프라방의 골목. 작은 골목 사이사이에는 작은 사원들이 자리하고 있다.

태국의 국경을 넘는 지루하고 외로웠던 슬로보트 기행이 끝나고, 드디어 라오스 루앙프라방에 도착했다. 루앙프라방에 닿기 바로 전 날 하룻밤을 묵은 '박명'에서 이스라엘 친구 'I-h'를 만났다. 더 이상 외로움을 지속하고 싶지 않을 때쯤 혼자 여행하는 이라를 만났고, 우리는 곧 친구가 됐다. 라오스에서 수도인 비엔티안 다음으로 큰 도시인 이 곳은 너무도 마음에 드는 곳이었다. 도시라기보다는 마을 같은 느낌인데, 골목 사이사

이로 작은 사원들이 들어서 있어 조용하고 평화롭다. 나는 걸거나, 혹은 자전거를 하루 15에 대여해 마을 구석구석을 돌아다녔다. 그러며 더 예쁜 루앙프라방과 마주칠 수 있었다.

그들의 언어로 말 한다는 것



라오스의 아침 시장. Tale Dala (달라 시장)

시장의 상인들은 당연하게 판매를 위한 기본 영어만을 한다. 값이 얼마라는 말 혹은, "Good for you", "Beautiful"과 같은 그런 말들 말이다. 그래서 내가 그게 뭐냐고 물어보거나, 그들이 나에게 답할 수 없었으니 난 가끔 오해를 하기도 했다. 나는 때때로 이곳의 사람들이 영어를 좀 더 잘 할 줄 알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 나는 곧 그런 나를 반성했다. 당연하지 않은가? 그들에게는 그게 필요하지 않은 것을.

상인이라면 물건을 팔기 위한 기본적인 말만 하면 되는 것이고, 상인이 아니면 굳이 그들 생활에 필수적이지 않은 타국의 언어를 배울 필요가 없는 것이다. 후에 방비양에서 길을 잃었을 때도 마찬가지다. 내가 지도를 갖고 가서 나무 그늘 아래서 쉬고 있던 한 무리의 마을 남자들에게 영어로 길을 물어 보았다. 그런데 그들은 영어를 전혀 말 하지 못하고, 나는 전혀 그들의 라오스어를 알아들을 수 없었다. 그 더운 태양 아래서 길을 잃어 땀을 뻘뻘 흘리며 당혹스러웠던 나는 '오, 이들이 영어를 조금이라도 할 줄 안다면!' 이라고 생각했지만 천만에, 그들의 삶에는 전혀 영어가 필요하지 않은 것이다. 영어라는 언어 하나만이 거의 세계에서 유일하게 통용될 수 있는 언어라는 사실은 가끔 내게 무섭게 느껴진다. 그저 자기들의 언어로 제 삶을 사는 라오스 사람들조차 영어를 할 수 있길 바라고 있던 나를 보면 더 그랬다. 여행 중에 영어권의 서양 여행객들을 보며 가끔 나는 그 중에 타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생각을 했다. 라오스 사람들은 여행객들을 무수히 대하는 각종의 사람들(여행자 숙소, 식당, 여행사 정도)을 제외한 현지인들은 거의 영어를 모르는데 그렇든 말든 그들은 그저 자신들이 평상시에 얘기하는 정도의 영어로 라오스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다. 적어도 난 아니었다. 그것은 내가 그들보다 한창 영어 실력이 떨어지는 '코리언 걸'이라서 그런 것은 물론, 더욱 중요하게는 내가 영어권의 사람이 아니기에 그럴 것이다. 그렇기에 나는 기본적인 단어로 말하려고 시도했고, 몸짓과 손짓과 표정으로 소통하려고 애썼다. 그리고 그건 많은 순간에 우리들 사이에 통할 수 있었다. 그들에게도 타국어 또한 나에게도 타국어인 영어는 우리 사이에서 그저 여러 의사소통의 방식 중 하나의 수단이었을 뿐이다.

나는 우에노 치즈코의 글에서 읽었던 '바이링글bilingual' 에 대한 내

용을 떠올렸다. 영어권 사람들은 영어가 모어라는 것만으로도 이 세계에서 압도적으로 유리한 입장에 서 있는데, 기묘하게도 영어를 모어로 하는 이 사람들 가운데는 바이링글이 의외로 적다는 것이다. 그의 언어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세계에서 소통이 가능하고, 갖가지 유리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이들에게는 엄청난 비용이 드는 타 언어 습득이 굳이 필요하지가 않은 것이다. 그렇기에 그들은 거꾸로 '모노(mono)링글' 이 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난 그들이 오히려 그 때문에 다른 문화에 대해 이해하거나, 생각해 볼 기회가 적다고 생각했다. 영어권이 아닌(예컨대 나와 같은) 사람들이 서툰 영어와, 몸짓과 발짓과 소리 등의 방식으로 현지인과 의사소통을 꾀할 때, 영어권 사람들은 그저 자신의 언어로 소통하길 밀어붙이는 것 같다는 인상을 받았다. 영어가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으니, 이들도 당연히 영어를 해야 한다는 그들의 작은 오만함이 나에게서는 강하게 느껴졌다.

내가 트레킹을 이유로 아무런 사전 계획 없이 태국에 머물게 되었을 때, 태국을 그저 라오스로 가기 위한 경로 정도로 생각했을 때, 내게는 그 곳에 대한 정보가 거의 아무것도 없었다. 그래서 그곳에서 물건을 사거나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 태국어를 전혀 모르는 내가 "Hello" 라고 인사할 수밖에 없었을 때, 정말 고맙다는 말을 그저 "Thank you, so much" 라고 밖에 표현할 수 없었을 때 그게 무엇보다 안타까웠다. 다른 나라를 여행한다는 것은 단지 그 곳의 좋은 풍경만을 보고 즐기다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문화와 사람들의 생활을 조금이나마 배운다는 것이라고 여겨왔다. 그랬던 내가 기본적인 감정 표현조차 그 나라 언어로

2) 우에노 치즈코 조한혜경, 『경계에서 말한다』, 생각의나무, 2004

할 수가 없다는 게 한편으로 부끄러웠던 것이다. 그래서 라오스에서는 어색하지만, 식당에 들어서서 작게나마 '싸바이 다'라고 인사하고, 음식을 갖다 주거나 값을 깎아 줄 때는 '킵 짜이'라고 인사했다. 그 나라에서 유창한 회화까지는 못한다고 해도, 기본적인 감정 표현 정도는 그 나라의 언어로 하는 것이 진짜 '여행'의 기본이라고, 나는 생각했다.

사진 대신, 무한한 상상을 드립니다……!



내게 유일하게 남아 있는 방비앙에서의 사진

루앙프라방에서 방비앙으로 가는 길에는 여행사 미니밴을 타게 되었는데, 그 후에 나는 결코 장거리 행에 그런 차는 타지 않기로 결심했다. 방비앙으로 향하는 길은 산에서 내려오는 아주 꼬불꼬불한 산길인데, 그게 거의 다섯 시간이나 이어진다. 그랬더니, 몇 년 전에 이미 달아난

줄 알았던 멀미 기운이 다시 스멀스멀 기어 나와 결국 나는 먹은 것들을 게워내는 의식을 치뤄야 했다. 과연, 내 DNA에는 멀미 유전자가 흐르고 있는 것인가? 어쨌든 한 번 속을 게워내고 나니, 그래도 훨씬 편해져서 잠은 절로 솔솔 오더라. 한 숨 자고 일어나니 꼬불꼬불한 산길은 이제 끝나고 거의 방비앙에 닿아 있었다. 날아간 한 통의 필름 때문에 이곳의 놀라운 풍경들을 내 속에서만이 간직될 수밖에 없는 것이 나를 건널 수 없이 아쉽게 만든다. 이곳은, 그 정도이다.

나와 '그들' 사이에서

버스를 타고 지나갈 때마다 이곳의 사람들은 우리를 유심히 살펴보는 것이다. 어쩌면 처음 보는데도 모를, 코가 높고 키가 크며 피부가 하얀 백인들의 모습 그리고 분명히 백인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자산들과 같지도 않은, 그런 동양인 여자에 나를 그렇게 호기심에 찬 눈을 하고는 유심히 살펴본다. 라오스 안에서 관광으로 발달된 몇몇 도시들을 제외한 곳은 그러한 관광 도시들과는 무척 다른 풍경을 갖고 있다. 도시와 도시를 잇는 길가에서만 해도 텔레비전 속의 오지탐험에서 나올 듯한 구조의 집을 짓고 사는 그 곳의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 비가 많이 오는 기후 탓인지, 땅에서 얼마 정도 떨어진 곳에서부터 오두막의 바다가 시작하고 있다. 여자들은 등에 어린 아이를 얹고 물을 펌프질한다. 그들은 아이의 엄마이기도 하고, 누나 혹은 언니이기도 하다. 거의 옷을 벗다시피 한 남자 아이들은 무리를 지어 놀고 있고 이따금씩 고개를 들고 길가로 나와서는 지나가는 버스를 신기한 듯 쳐다본다. 커다란 눈은 맑고 표정은 장난스럽다.

나는 지금 저들에게 어떻게 보이고 있을까? 난 저들에게 무엇일까?
나는 이곳에서 돈 몇 십 만 원쯤 들고 고작 낭만과 외로움을 소비하고
있는 것인가? 루앙프라방의, 여행자 거리를 향해 나 있는 식탁에서 밥을
먹을 때마다 고작 열 몇 살쯤 될법한 소녀들은 작은 상자를 안고 나에게
로 다가와 그 안에 담겨 있는 팔찌, 목걸이 같은 것을 보여준다. 우리 돈
으로 천원이 넘지 않는 그것들을 나는 몇 번 그들로부터 샀고, 후에 "이
미 샀어요" 라고 이야기해도 소녀들은 자리를 뜨지 않는다. 어느 날은
내 옆을 떠나지 않던 한 소녀에게 몇 살인지, 학교는 가는지 등을 물어본
적이 있었다. 그녀는 처음에 학교를 다닌다고 말 하더니 조금 있다가 말
을 바꿔 "당신이 이걸 사줘야 나는 돈을 벌어서 학교에 갈 수 있어요."
라고 했다. 아마도 그녀는 생존을 위해 영어를 배웠을 것이다. 어느 오후
소나기를 피해 잠시 머물렀던 작은 은행창구 앞에서, 찹찹 먹는 사냥을
하며 '루키'를 말 하던 한 소녀에게 끝내 왜 나는 그걸 사서 보내지 못했
던가?

후에 한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만난 한 한국인 언니는, 한밤의 카오
산 로드에서 꽃을 팔던 한 소녀가 아무도 꽃을 사 주지 않던 그 거리 한
복판에서 홀로 울던 것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팠다고 말했다. 라오스의
소녀와, 카오산의 소녀에게 우리는 팔찌 하나, 꽃 한 송이를 사 주는 것
 말고 어떤 것을 더 할 수 있었을까? 아니, 그녀들은 우리에게 오직 팔찌
하나, 꽃 한 송이 사 주는 것을 바랐을 뿐이다. "어머 어떡해... 저 작은
아이들도 저렇게 생존의 시장에 뛰어들다니, 너무 불쌍해" 라고 쉽게 말
해 버릴 수도 있는 그것을 경계하려고 한다. 그것이 위험하다고 생각한
다. 사회적인 빛이 분명 그 속에 있지만, 그래서 팔찌와 목걸이와 꽃을
아무리 열심히 판다고 해도 빠져나올 수 없을지도 모르는 삶이 이미 그

아이들의 작은 어깨에 무겁게 얹혀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그들을 '불쌍
하다'고 보는 순간 나는 강자가 되고 그들은 약자가 되어버릴 것을 나는
경계한다. 그럼에도 모두 살아가는 각자 삶의 방식이 있는 거라고, 그건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다 그렇게 사는 거라고 나는 그렇게 쉽게,
쿨하게 말 할 수만은 없을 것 같다.

미안하지만, 비엔티안



비엔티안의 하늘. 이 하늘만큼은 사용하지 않을 수 없다.

방비앙에서 이들을 보내고 마지막 여행지이자 라오스의 수도인 비
엔티안으로 갔다. 그러나 미안하지만, 나는 비엔티안에 이들을 배정한 내
계획을 후회했다. 차라리 루앙프라방이나 방비앙에서 하루를 더 묵는 편
이 훨씬 나았을 것이다. 내가 그렇게도 후회했던 비엔티안이지만, 위 사

진 속의 비엔티안의 하늘만은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

마지막 도시를 떠나며

방콕 수완나품 공항에서 그동안 너무도 그리웠던 '저기항공' 친구들 몇을 다시 만났다. 치앙마이 트레킹을 함께 했던 친구들 중 네 명과 우연히도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가 같았던 것이다. 우리는 예정대로 대만 까오슝에서 하룻밤을 머물곤 한국으로 향하게 된다.

여기는, '요람처럼' 멀컴거리는 밤기차 안입니다

벋속의 아기를 그냥 가만히 안아주는 것보다 가볍게 흔들어 재우면 엄마 양수에서의 느낌과 비슷해 아이가 잠을 더 잘 잔다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밤기차 2층 침대칸에 누워서 멀컴거리는 기차 안이 꼭 그 요람 같다는 생각을 했다. 요람이라기엔 조금 요란하지만, 나는 방콕으로 향하는 밤기차에서 이 여행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보았다. 멀컴거리며 달리는 기차에 가만히 누워 잠을 기다리고 있으려니 여러 생각들이 일어났다. 내 첫 여행의 마지막이 다 닳아 오고 있었다. 이 여행이 내 역사에 어떻게 기록이 될까. 학교에서는 이미 새 학기가 시작되었고, 다음 주면 난 까맣게 그을린 모습으로 다시 자극히 익숙한 일상 속으로 뛰어들게 되겠지. 누군가는 나에게 "당신은 여행을 더 해야 해요"라고 말했지만 지금 내게 그럴 용기와 마음과 기력이 내게 남아있을까? 이 여행이 나에게 무엇일까? 여행을 통해 나는 사람과 나 사이에 얽힌 온갖 감정들을 느꼈다. 누군가와 함께 있음으로 하여 얻을 수 있는 즐겁고 활기참, 철저히 혼자이

고 싶은 마음, 누군가와 함께 있었을 때 서로에게 불편이 되고 있는 듯한 느낌, 나에게 좋은 말뱃이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사람에 대한 그리움. 이러니 여행은 '스펙터클'한 것이다. 혼자여서 좋았다가 슬펐다가, 함께여서 기뻐다가 싫었다가, 혼자이고 싶었다가 함께이고 싶었다가, 그곳의 사람들로부터 여러 생각을 하며 고민 하곤 했다가, 그런 온갖 감정들이 설 새 없이 내 속을 휘젓고 다니니 말이다.

변화, 그리고 나와 여행의 시차



마지막 비행기를 타기 위해 기다리던 대만 까오슝 공항에서의 아침 하늘

문득 나는 '변화'에 대해 긍정하기로 했다. 생각해 보면, 나는 끊임없는 '변화'를 갈망했던 것이다. 내가 늘 새롭길, 어제와 같지 않고 오늘과 내일과 그 다음 날이 늘 새롭고 다르길 원했는데 그렇지 않다고 생각했

던 것 같다. 그래서 괴로웠다. 하지만 어제의 나는 오늘의 내가 아닌데. 여행이 내 일상에 들어오지 않았던 때, 여행을 결심했을 때, 내가 여행할 때, 그리고 여행 후 돌아온 후의 나는 분명히 다른데 그 변화가 비록 지금 나에게 예민하게 감지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나는 분명 하루하루 달라지고 있다는 것. 문득 생각 난 듯 그것을 인정하기로 했다. 여행 후에 돈금없게도 그런 마음이 들었다. 그냥 그러고 싶어졌다. 김정주는 자신의 여행 에세이에서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라는 시차를 견디다 가는 것이라고'3) 썼다. 삶은 끊임없이 그 시차를 여행하다 가는 것인데, 여행이란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시차를 견디다 오는 일종의 경험이고 그 경험의 끝에서 우리는 늘 새로운 시차를 견뎌야 한다고. 이를테면, 나는 '시차'를 인정하기로 한 것이다.

여행에서 돌아와서, 그리고 한 권의 여행에세이를 다 읽고 난 후 종종 나는 세계 지도를 오랫동안 들여다보곤 했다. 여기와, 하늘을 넘어 존재하는 나라들에서의 것들이 굉장히 '시적인 현상'처럼 느껴진다. 대만의 야시장에서 직감처럼 느꼈던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의 순간, 이곳과 반대에 위치한 사람들의 나라에서 우리의 밤이 그들의 낮이기도 하고, 밤에도 새하얀 백야를 이루기도 하는 것, 바람이 불고 사막이 이루어지곤 하는 것들이 말이다. 그 세상이 신비로워졌다. 여행 끝 무렵에 익숙한 서울에, 편안한 내 방에 얼른 돌아가고 싶었는데 한국에 온 지 하루도 채 다 지나지 않아 며칠 전이 벌써 그리워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괜찮아, 여행은 또 다른 떠남을 기억하도록 하니까. 돌아온 직후 써 두었던 이 글을 다시 다듬으며, 여행에 대해 꿈꾸는 것이 웬지 거의 내 일상의 한 부분이 된

3) 김정주, 『Passport』, 랜덤하우스, 2007.

것만 같은 익숙한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온갖 새로운 그 곳으로 떠남의 꿈이 내 속에서 끊이지 않는다.

한국에 돌아오니 차가운 9월의 비가 내리고 있었다. 가을이다. 나를 위해 공항으로 나와 준 친구는, 놀랍게도 긴 소매의 옷을 입고 왔다. 모든 사람들이 허를 내두르면 무더위 속에서 나는 떠났는데, 고작 2주 사이 벌써 이렇겐 계절이 바뀐 것이다. 얼마 전에는 내가 오랫동안 사랑해오던 뮤지션 이상은이 새 앨범을 냈다. 그 중 한 곡의 제목이 '살은 여행'이다. 그녀는 이번에도 정확했다. 그리고 그것은 나에게서 다시 해석된다. 삶은 끝없이 이곳과 저곳을, 당신과 또 다른 당신을 여행하는 것이고 여행에서 얻는 것은 또다시 삶이다. 한 소설가의 말처럼 여행은 삶을 나의 것으로 만든다. 그리하여 삶은 여행, 그리고 여행은 또다시, 삶으로……. 모든 것이 변화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의 나는 기다려왔던 가을을 두 팔 벌려 맞이하는 중이다.

* 이 글은 본래의 본량을 '대폭' 줄여 수정한 것입니다. 더 흥미진진한(?) 라오스 여행기는 여성주의 저널 리엔 클럽의 <온라인 저널 리엔>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http://club.cyworld.com/feminism-youNme>

계속되는 대화

우공uGonG 편집위원

이 글은 지난 9월 1일 '성적소수자의 부모, 형제, 친구들과 함께 하는 인권지지 네트워크 구축 프로젝트 <우리, 여기에 함께>'에 동성애자의 친구의 위치로 발표된 글이다. 이 날 이 자리에는 성적소수자의 어머니, 동생, 친구, 언니 등이 발표자로 나와 자신의 동생, 딸, 친구 등이 커밍아웃을 한 이후 어떤 생각들과 경험들을 하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하였다. 발표자뿐만 아니라 참석자들도 공통의 경험과 고민을 이야기하여 따뜻한 공감의 자리가 되었다. 이 날의 의미를 <우리, 여기에 함께> 프로젝트팀은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그동안 성적소수자 인권운동은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들에 관한 법률의 제, 개정과 사회적 인식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도 매우 중요하지만 실제 성적소수자들에게 더욱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바로 자신이 가장 사랑하고, 또한 가장 가까이에서 삶을 나누고 있는 부모님과 형제, 그

리고 친구들의 이해와 지지입니다.

그러나, 성적소수자가 가족과 친구에게 커밍아웃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실사 용기를 내어 솔직하게 말을 한다고 해도 그것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나 형제, 친구들도 충격을 받고 놀라며, 또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어떻게 대해야 좋은지 몰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우리 사회에서 성(性)정체성으로 인해 고립과 혼란, 고통과 소외를 당하고 있는 것은 성적소수자뿐만 아니라 성적소수자의 주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여기에, 함께〉 프로젝트는 바로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대안을 찾기 위한 첫 번째 시도입니다. 무지와 편견으로 인해 가족과 친구사이에도 차별과 소외가 생겨나는 것을 막고, 우리가 모두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노력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성적소수자들의 가족과 친구들이 가장 적극적이고 따뜻한 지지자로서 우리 사회의 성적소수자 인권의식의 함양에 밑거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행사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자료는 아래의 글들을 참조하길 바랍니다.

1. 〈우리, 여기에, 함께〉 프로젝트 홈페이지. <http://ksccr.org/together/>
2. 김영선, 「동성애자인 말을 격려한다: 트랜스젠더, 동성애자의 가족을 위한 포럼 열려, 여성주의 저널 『일다』, 2007년 9월 29일. (<http://www.ildaro.com>)

.....

레즈비언 친구가 이 포럼에 참여를 제안해 왔을 때 흔쾌히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친구가 레즈비언임을 제게 말해줬을 때도 저는 거부감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동성애를 인류가 할 수 있는 사랑의 한 형태라고 생

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이성 간의 사랑'만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가 처음 커밍아웃을 했을 때, 잠시 동안 머뭇거렸습니다. 그 때는 그 머뭇거림이 무엇 때문인지 더 생각하지 않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저는 그 당시 잠깐 동안 '알고로는 어떤 대화를 해야 할까?'라고 생각하며 그 친구와 저의 관계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와 저는 살면서 생기는 고민들을 말하며 친해졌습니다. 서로 고민을 말하면서 위로도 받고, 힘도 얻었습니다. 그 친구가 레즈비언이라는 말을 듣고 나서 저는 그 친구의 일상에 대해 조심해서 묻고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성애중심적인 사회에서 동성애자들의 일상생활은 '보호'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연애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할 때 '내가 그 말을 들어도 되면 이야기를 해줘'라고 먼저 말을 함으로써 그 친구가 맺고 있는 관계들을 조심해서 듣겠다는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친구는 이것이 이상한 입담을 제게 말해줬습니다. 자신이 레즈비언임을 말하기 전까지는 잘해오던 이야기였는데, 커밍아웃 이후 제가 갑자기 다른 태도를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때 제가 어떤 부분에서 머뭇거렸는지 알았습니다. 저는 동성애자들은 배려를 받기만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고민을 말하고 대화를 하고자 하는 친구의 말을 들으며 '배려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를 계속 생각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고, 이 부분이 대화를 자연스럽게 하지 못하게 하고 머뭇거리게 했습니다.

저는 제가 동성애자들을 대화할 수 있는 독립적인 주체가 아니라 '배려의 대상'으로만 생각했던 이유가 무엇일까를 좀 더 생각해보았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다 저는 그 친구가 처음 커밍아웃을 했을 때 제가 보인 태도를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동성애도 인류가 할 수 있는 사랑의 한

형태이니 당신이 레즈비언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 제 생각이요 태도였습니다. 저는 지금도 이 말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이 말 뒤에 구체적인 질문이 따르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동성애자들의 삶을 잘 알지 못 합니다. 저는 레즈비언 친구가 어떤 것을 겪었는지 구체적으로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위 말에 구체적인 질문을 따르지 않는다면, 마치 제가 동성애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나에게 자신의 삶을 더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친구가 말을 하는 걸 막은 건 아닐까' 고민했습니다. 즉 '나는 그 친구와 나 사이의 구분선을 명확하게 그어 버리고 대화를 막았던 것은 아닐까' 하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넌 동성애자, 난 이성애자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제 주변엔 이성애자 친구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친구들이 이성애자라는 것을 안다고 해서 그들을 다 안다고 생각하거나 대화를 중단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들의 삶에 대해 구체적인 질문을 하며 대화를 이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던진 질문을 제게 해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간 읽은 글과 미디어 등에서 보고 들은 추상적인 동성애자에 대한 지식으로 동성애에 대해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고 생각해 버렸던 것입니다. 동성애자들도 다양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 텐데 말입니다. 저는 이성애에 갇힌 대화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레즈비언 친구가 커밍아웃을 했을 때 마뭇거렸던 또 다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포럼 발표문이 그 친구와 충분히 대화를 한 후 작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부자연스러운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이번 포럼을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가 삶을 살아가기 위해

힘이 될 수 있는 중요한 대화의 자리 중 하나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친구인 한 대화를 멈출 수 없기 때문에 '충분한' 대화는 있을 수 없고 '계속되는 대화' 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페미니즘으로 바라본 KTX승무원

텔라Rello_편집위원

'노동'은 무엇인가. 어떤 것이 '노동'이 될 수 있는가. 시장 경제에서, 더군다나 그것이 현재 신자유주의적 시장 경제에서의 '노동'이라면, 그것이 여성의 '노동'이라면 어떤 내용일 것인가. 노동이라는 개념은 각 개인들이 능동적으로 의미부여를 할 수도 있지만, 현재 '노동시장의 유연화'로 인한 상황 속에서 각 계급/계층에게 수동적인 의미를 부여하게 할 수도 있다. 노예제 사회에서의 '노동'이 있었으며 현대의 '노동'이 있듯이 근대 경제학 이론에서 만들어진 노동의 개념 또한 시대에 따라 변해온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현재의 노동시장에서의 노동 개념이 각 개인에게 어떤 의미로 주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한번 생각해보게 된다.

자본 중심적, 생산 중심적, 시장 중심적인 성격으로 점철된 — 근대

페미니즘으로 바라본 KTX승무원

헬라Relia_편집위원

'노동'은 무엇인가. 어떤 것이 '노동'이 될 수 있는가. 시장 경제에서, 더군다나 그것이 현재 신자유주의적 시장 경제에서의 '노동'이라면, 그것이 여성의 '노동'이라면 어떤 내용일 것인가. 노동이라는 개념은 각 개인들이 능동적으로 의미부여를 할 수도 있지만, 현재 '노동시장의 유연화'로 인한 상황 속에서 각 계급/계층에게 수동적인 의미를 부여하게 할 수도 있다. 노예제 사회에서의 '노동'이 있었으며 현대의 '노동'이 있듯이 근대 경제학 이론에서 만들어진 노동의 개념 또한 시대에 따라 변해온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현재의 노동시장에서의 노동 개념이 각 개인에게 어떤 의미로 주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한번 생각해보게 된다.

자본 중심적, 생산 중심적, 시장 중심적인 성격으로 점철된 — 근대

부터 시작된 지배적 가치 체계가 그러하듯 — 노동시장에서 여성과 남성의 상대적 이분화는 '시장은 합리적 영역'이라는 경제학의 명제에 상응하는 것이었는지 물을 수 있겠다. 뽀폴⁴⁾이 얘기하듯, 여성은 산업 노동력으로는 비생산적이었으며 과연 합리적이지 않았을까. 사실 이와 같은 전제들은 근대 사회가 강화시킨 성별 분업의 논리와 맞물려 있다. 임금/무임금 노동, 시장/비시장 노동이라는 근대적 노동개념의 이분법은 자연스럽게 전자의 위치에 남성을, 후자의 위치에 여성을 두기 시작했다. 부각시켜서 설명하자면, 근대에서부터 그래온 것처럼 경제학의 대전제로 시장은 합리적 영역이며, 합리성은 이성의 발로이다. 이와 같은 이분화는 시장에서의 가치를 근거로 하여 노동에 차별적으로 등급을 매긴다. 시장에서의 가치등급화는 과연 공적 영역에서의 서비스 노동에 대해 어떤 등급을 매기고 있을까. 최근에 있었던 한 이슈는 이러한 나의 궁금증과 만나고 있었다. KTX 승무원에 관한 이슈가 바로 그것인데 이 문제는 현재 비정규직 문제에서 상징적인 문제가 되었다. 주목할 점은 KTX 승무원이라는 이슈가 합의하고 있는 사안들이 비정규직에 관한 문제임과 동시에 서비스직종에 대한 노동개념의 문제이며 또한 서비스 직종에 주로 종사하는 여성 노동자의 문제라는 것이다.

KTX 승무원들의 이야기가 'KTX 여승무원'의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각도의 사회구조가 이해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이 논의에서 앞서 던졌던 의문들을 다시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4) 뽀폴 Pupil "into the margin", Out of Margin, 1995 신고전주의 경제학에서 바라보는 여성관을 이야기하는데, 다음과 같다.
가) 모든 여성들은 결혼한다. 만약에 아직 하지 않았다면 곧 할 것이며, 비슷하게 모든 여성들은 아이를 낳았거나 낳을 것이다. 나) 모든 여성들은 경제적으로 남성에게 의존하거나 해야만 한다. 다) 모든 여성들은 주부들이거나 주부이어야만 하며, 그들의 재생산 능력은 그러한 기능에 특화된다. 라) 여성들은 산업노동력으로는 비생산적이다. 마) 여성들은 합리적이지 않다. 그들은 경제적 행위자로 부적합하며, 그들은 올바른 경제적 결정을 내리기가 어려운 존재이다.

우선 서비스 노동은 시장경제에서 어떻게 가치 절하되었던 것일까. '가치 절하'된 노동에 주요하게 여성이 참여해왔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이 신자유주의 시장경제와 맞닥뜨리게 되면서 지금의 KTX 승무원들처럼 고용 형태가 불안정해진 이유는 무엇일까.

앞서 말했듯이 근대 이후에 더욱 가시적이고 명시적으로 구분된 노동시장에서의 여/남의 구분은 가치의 차별화를 내재한다. 육체/정신의 이분법과 합리성에 기반한 시장은 '이성의 영역'이라 간주되었고, 상대적으로 시장 영역 내에서 반이성적 노동, 즉 '감정의 노동'이라 불리는 것들에 대해 가치 절하를 해왔다. 그러한 노동은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확대됨과 동시에 쉽게 늘어날 수도 있는 것이지만 역으로, 확대된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더욱 근본적인 확장을 위하여 쉽게 줄어들 수도 있는 탄력적인 속성의 노동으로 간주되어 왔다. 그러한 통념은 판매직과 같은 서비스 노동을 통해 확인된다. 쉽게 말해 기존 노동시장에 남성 노동이 있어왔고, 남성 노동은 이성의 노동으로 표상되었으며, 이는 합리적 시장경제의 대전제를 구성하게 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KTX 승무원들의 노동은 엄연한 생산적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근대적 발상의 잣대로 감정의 영역이라 가치 절하되어 평가되는 노동이다. 그리고 남성노동만이 존재했던 기존 노동시장에 여성 참여가 용이한 영역에서 수행되는 노동을 동등하게 노동이라는 개념에 포함시키고 싶지 않은, 가부장적 자본주의가 부여한 노동개념이다.

이러한 사회구조적 문제에 대하여 지속적인 투쟁을 하고 있는 KTX 승무원들의 이야기는 많은 의미를 내포한다. 그들이 이토록 장기적인 투쟁을 계속해 나갈 수 있는 이유로 20대 초반의 이들이 성 평등의식에 있어서 이전 세대보다 더욱 개방적이고 자유롭다는 것을 들 수 있다. 또한 무엇보다 이들이 궁극적으로 노동에 대한 필요를 절실히 느끼고

있으며, 신자유주의적 흐름에서 노동하지 않는 인간은 소외된다는 날 서린 세대를 겪고 있음에 더 주목하게 된다. '일하지 않으면 (물질적 생존에서든, 사회적 유대에서든) 죽는다'라는 명제 아래 더욱 치열하게 돌아가는 시장 경제에서 다시금 지배적 가치와 이데올로기로부터 배제된 여성들이 공식적 노동 개념 안에 진입하기 위해 투쟁해 온 오랜 역사가 있다. 그 가운데 지금도 여전히 KTX 승무원들의 주장이 있고, 최근에는 이랜드 노동자들의 구호가 있다. 이러한 일련의 투쟁들이 여성의 노동권을 어떻게 개념화하고 이를 제도적 틀 안에 혹은 사람들의 인식 속에 어떻게 위치 짓는지 우리들은 진지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더불어 '비정규직 문제'와 '사업장 내의 여성 노동자의 문제', 그 이상을 읽어낼 수 있어야 한다.

내가 종종 거리로 나와 이들의 투쟁에 지지를 보냈던 것은 어떤 이유에서일까. KTX 승무원들과 더불어 지배적 체제에 비추어 봤을 때 세상에 소수자로 살아가는 많은 이들의 치열함이 있었기 때문이며 후에 또 한명의 소수자, 또는 노동자로 살아갈 나의 일과 크게 다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함께 나누고

살고

페미니즘

'앤'들이
함께 나누고
싶은
페미니즘
도서

텔라Reila가 추천하는 책

『페미니즘의 도전 한국 사회 일상의 성정치학』(정화진 지음, 교양인, 2005)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책은 한국 사회에 있어왔던 이슈들을 여성주의의 입장에서 서술하고 있다. 이른바 스와핑 문제나, 상매에 여성들의 시위, 위안부를 소재로 한 누드 책자같은 주제들을 단순히 찬성/반대의 내용이 아니라 여성주의를 기반으로 재해석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이 책은 한국사회에서 페미니즘에 대해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에 대해 학문적으로 접근하기보다 풀어서 설명해 내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보다 쉽게 다가갈 수 있다.

『페미니즘과 정신분석』(여성문화이론연구소 정신분석세미나팀 지음, 여이엔, 2003)



엄격한 과학이론으로 비춰지는 정신분석학을 재미있는 이야기로 해석하고 있다. 프로이트, 라캉, 들뢰즈, 버틀러 등의 정신분석학 이론들을 분석하며, 기존 정신분석학에서 히스테리 환자들과 같이 대상화되어 왔던 여성들을 이론의 중심으로 끌어내고 있다. 더불어 이 책은 국내 최초의 페미니즘적 정신분석 이론 및 비평서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페미니즘의 위대한 역설 프랑스 여성항쟁권 투쟁이 던진 세 가지 쟁점 여성 개인 사회』
(조앤 W. 스콧 지음, 열피, 2006)



“해결하기 쉬운 문제는 주지 않고 오로지 역설만을 던지는 여성”
이 책의 원제 Only paradoxes to offer는 프랑스 페미니즘 역
사에서 기념비적 인물로 꼽히는 올랭프 드 구즈가 1788년에 쓴
논문(인간의 첫째가는 행복)의 한 구절이다. 이 문장은 저서 전
체의 내용을 특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저자 스콧에 따르면
여성주의 운동에서 역설은 지속적으로 제기된다. 이 역설은 성
적 차이를 수용할 것인가 거부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며 이 두
가지 필요에 대해 독자로 하여금 끊임없이 상기시켜 주고 있다.

곰의택배가 추천하는 책

『경계에서 말한다』(우에노 치즈코, 조한혜정 지음, 생각의나무, 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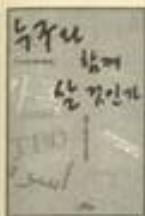
이 두 학자들의 편지에 빨려들지 않을 수가 없다. 우에노의 말
대로 “일독하고 압도”되었다.
국가와 국민, 돌봄, 청소년, 교육, 공동체, 역사 등의 경계를 넘
나드는 이들의 서신에 난 책장을 넘길 때마다 그들이 또 어떤
공을 주고 받게 될까 궁금했다. 언젠가는 나도 그들처럼 지적
이고 재미난 글을 주고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며 그
들을 부러워 하고 있다. 그리고 아마도 이 책을 처음 읽고난
후 그 때를, 나는 여자로서의 나를 선택했던 것 같다.

그래도 “당신도 때로는 기도할 때가 있습니까?” 라는 당신의 질문은 나를 울츠러리게 했니
다. 나는 저 세상을 향해 기도하는 것을 그만두고 이 세상에 머물러 싸우기로 했습니다. 그
것이 나의 페미니즘입니다. 해정, 당신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경계에서 말한다』, 우에노 치즈코의 세번째 편지 중 (p.142))

『누구와 함께 살 것인가 새로 쓰는 가족 이야기』

(도하나의문화 편집부 지음, 도하나의문화, 2003)



“또 하나의 문화 동인들이 펴낸 이 책은 이 시대의 ‘새로운 가
족’에 대한 것이다. 미디어와 정부가 만들어내는 ‘정상 가족’ 이
대물러가 더 이상 ‘정상’이 될 수 없을 만큼 다양한 가족들이
생겨나고 있는 현대의 중심에 서서, 이 책은 ‘그렇다면 너는 누
구와 살 것인가?’를 묻는다. 이 책은 나에게 ‘굳이 돈돈하고 돈 벌
어다주는 남편이 없더라도 내 아이를 파트너 삼아 살아갈 수
있지도 않을까?’라는 발칙한(?) 상상을, 그리고 ‘페미니스트들의
공동체를 꾸리면 정말 기절하게 재밌을 거야!’라는 신나는 상
상을 불러일으켰다. 정해진 남편, 혹은 아내, 혹은 부모님이 아닌
스스로 선택하는 ‘가족’을 고민하는 아들, 누구와 살 것인가?

날래에게 고민의 깊이를 더해줬던 책들

『섹슈얼리티 강의 두 번째(변해정 역음, 동녘, 2006)』



그동안 여성들의 섹슈얼리티는 억압과 피해의 경험이었던 것
은 달리 2000년대 초반 한국 사회의 섹슈얼리티가 놓여진 지형
에는 억압과 피해, 쾌락과 주체성이 공존하고 있다. 이 책은 연
애, 자위, 섹스와 임신, 미혼모, 성폭력, 상매매, 성적 자기 결
정권, 레즈비언, 포르노그래피 등과 관련해 더욱 혼란스럽고 모
순된 경험 속에 있는 여성들의 목소리를 살리고 그 경험을 해
석하는 주체적 협상 능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페미니즘』(재인 프리드먼 지음, 이후, 2002)



이 책은 페미니즘 이론을 '맑스주의 페미니즘', '자유주의 페미니즘', '급진주의 페미니즘' 등으로 분류하여 단편적으로 설명하는 방식을 피하고, 페미니즘 내부의 차이를 '평등인가 차이인가'를 둘러싼 입장의 차이로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다양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심하게 대립하는 것으로 보이는 '페미니즘들'을 근본적인 문제의식의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며 페미니즘을 보다 논쟁적인 것으로 파악하도록 한다.

『내셔널리즘과 젠더』(우에노 치즈코 지음, 비종출출판사, 1999)



젠더적 관점에서 일본의 전쟁과 전후 역사를 다시 쓰고 있다. 전쟁 시기에는 여성도 국민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은 결국 '여성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일본의 전후 '반성적 여성사'와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비판을 통해 보여준다. 그리고 '페미니즘은 왜 국가를 초월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라는 물음을 던진다.

명명의 페미니즘과의 두근두근 첫만남

『남자가 월경을 한다면』(글로리아 스타아넘 지음, 한실문화연구, 2002)



세상이 화 되집어진다면 가능해질 법한 발칙한 상상으로 시작되는 이 책은 읽는 이로 하여금 이제껏 하지 못했던 다양한 질문과 마주치게 한다. '남자가 월경을 한다면?', '남성의 말, 여성이 수다?', '신발이 맞지 않으면 발을 바꿔라? — 프랜스켄더에 관하여' 그리고 이 책을 덮을 때쯤이면 다른 책을 찾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행복한 페미니즘』(빌 홀스 지음, 큰나비출판사/시공사, 2002)



페미니즘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이 책의 원제는 모두를 위한 페미니즘이다. 페미니즘이 모두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지 궁금하다면 이 책을 추천한다.

uGonG이 남성(성)을 고민하는 남자들에게

『남자의 탄생』(잔인권 지음, 푸른숲, 2003)



'한국 남자들은 어떻게 길러지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어렸을 적부터 했던 생각들과 경험들을 인문학적 지식을 동원하여 쓴 저자의 일종의 '자서전' 같은 책이다. 이 책은 '남자의 탄생'에 대한 모범답안도 아니면 모범답안이 될 수도 있다. 남자들은 다양하다. 그렇기에 남자들이 자신과 저자의 삶을 비교하며 자신의 삶과 다른 점을 염두에 두며 읽을 때, 자신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과 자신의 위치를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남자는 원래 그래?』(모리오카 마사히로 지음, 리종, 2005)



남자들이 성적으로 '불감증'을 가진, 즉 '느끼지 못하는 남자'라고 말하며, 왜 남성이 이런 상황에 놓여있는지를 솔직하게 말해주는 책이다. '남성의 사정은 항상 오르가즘인가', '자위는 항상 만족감을 주는가?', '남성의 페티시즘의 정체는 무엇인가?' 등 직설적인 질문과 대답을 통해 남성의 성욕을 이야기하고 있다.

『남성 페미니스트』(출판 디그비 엮음, 토88년의문화, 2004)



'페미니즘'하면 '뭐, 저런 걸'이라고 말하며 불편한 심기부터 드러내는 남성들에게 추천한다. 아마, 페미니즘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졌든 놀라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책에 나오는 남성, 여성, 성전환자, 동성애자들의 생각에도 놀랄 것이다. '편견은 세상사는 데 득 될게 없음'을 확인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주류 미디어에서 사라진 목소리, 여기에서 살펴보자. '압소사 프로덕션'

'압소사 프로덕션'은 n엔 편집위원 날래의 영상 제작 공간입니다. 주류 미디어에 편입되기보다 스스로 미디어가 되어 자신만의 목소리를 내고자 합니다. 또한 자넨 n엔의 활동을 영상을 통해 더욱 풍부하게 하기 위한 고민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 주요 작품 소개 |

1. 〈년 무슨 생리대를 쓰니?〉/연출 날래/2007년 7월/14분

이 다큐에서는 우리가 널리 사용하고 있는 일회용 생리대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살펴보고 여성적이고 환경적인 대안 생리대를 소개하고자 한다.

● 볼 수 있는 곳: <http://blog.naver.com/nalaenalda/20039490315>

2. 〈명세아, 경례야 안녕〉/연출 날래/2007년 7월/4분 30초

국기에 대한 맹세와 경례에 반대하는 릴레이 1인 시위에 함께 한 여성주의자넨 n엔. 그들이 맹세와 경례에 반대하는 이유는?

● 볼 수 있는 곳: <http://blog.naver.com/nalaenalda/20039728899>

3. n엔청간호 미리보기/제작 여성주의자넨 n엔-압소사 프로덕션/2007년 11월/4분 12초

군사주의에 대해 n엔이 가졌던 문제의식과 물음을 던지는 과정을 영상으로 담았다. n엔의 곳곳한 열정, 애정, 고민, 방향, 글욕, 희망을 함께 엿볼 수 있다.

● 볼 수 있는 곳: <http://blog.naver.com/nalaenalda/20043855863>

피자매연대가 작은책을 펴내는 이유

피자매연대는 지난 2003년 여름부터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벌써 꽤 오랜 시간이 흘렀네요. 처음 피자매연대가 활동을 시작했을 때만 해도 사람들이 대안생리대가 뭔지 전혀 몰랐는데, 이제는 많은 분들이 대안생리대 하면 '아, 환경에도 좋고, 여성의 몸에도 좋은 거'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여성들이 '한번 대안생리대를 쓰기 시작했더니 이제는 일회용 생리대를 못쓰겠다'고 할 때마다 저희들은 뿌듯하고 즐겁습니다.

그런데 피자매연대가 대안생리대 보급운동을 시작한 이래로 면생리대가 일종의 상품이 되어 수많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누구나 클릭 몇 번만 하면 손쉽게 면생리대를 구입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일회용 생리대가 좋지 않다는 점을 많은 분들이 이해하고, 그에 따라 대안생리대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어찌 보면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오래 전부터 여성들이 써왔던 면생리대가 이제는 일회용 생리대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상품으로 취급되고 있다는 것이 피자매연대가 가진 불만이며, 문제의식입니다. 대안생리대와 쇼핑몰이라니,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지난 몇 년간 피자매연대는 대안생리대를 만들어 쓰자는 캠페인을 벌여왔지만 사실 이것이 피자매 활동의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새만금 방조제를 터서 갯벌을 살리는 운동, 평택 대추리 들녘을 지켜 평화를 지키는 운동, 한미FTA 저지하는 운동 등 많은 운동에 힘을 모아 왔습니다. 피

자매연대는 이런 운동을 통해 우리가 그저 상품을 소비하기만 하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 세상의 문제들을 바꿔나가는 능동적인 존재가 되길 희망합니다. 대안생리대라는 조그맣고 친근한 물건에 피자매연대는 이렇듯 커다란 희망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긍정하고, 자립의 가치를 지켜나가는 피자매연대의 운동이 우리들이 느낀 바느질로 한 땀 한 땀 만드는 달거리대에 온전하게 담기길 염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달거리대와 함께 펴내는 것이 '작은책'입니다. 달거리대에 미처 담지 못한 피자매연대의 소망과 많은 이야기를 조그만 책에 담아내고자 합니다. 인권과 평화와 생명과 여성 그리고 대안적 가치를 지키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더불어 환경에 부담이 적은 재생지에 우리가 살아가며 알면 좋을 정보들도 담아내려고 합니다. 피자매연대 홈페이지 <http://bloodsisters.or.kr> 에 오시면 작은책 시리즈를 읽어볼 수 있고, 살 수도 있습니다. 작은책 시리즈 첫 번째인 「우리의 삶을 되찾자」는 3천원이고, 앞으로 발간될 책들도 3천원 이하의 가격으로 판매됩니다. 함께 읽어주세요!

「우리의 삶을 되찾자」 차례

서문

- 제1장 마녀 조산사 그리고 산마
- 제2장 일관적인 절경과 병랑염 치료하기
- 제3장 월경 - 여성의 힘인가, 약점인가?
- 제4장 피임 - 피해나지 않는 마녀요
- 제5장 모두를 위한 에이즈 안내



n(엔)이 말해요 3

편집위원을 모집합니다

2007년 5월 창간준비호, 2007년 11월 창간호를 발행한 <여성주의 저널 n(엔)>은 2008년 5월 2호를 발행합니다.
<여성주의 저널 n(엔)>과 함께 할 편집위원을 모집합니다.
여성주의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이 편집위원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연락하세요!

전화_영동 016-9668-3307

E-mail_feminism-n@jinbo.net/

n

n(엔)

다시보기

n[앤] 창간준비호를 읽고,
멋없이 꼬적거리다

나비 사회과학부 4학년

몇 달 전 내가 참여하고 있는 여성주의 지향 모임에서 대학 내의 여성주의 언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그 모임의 구성원들은 학생, 회사원, 백수 등 매우 다양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만 매마침 학내의 여성주의 언론에서 활동하고 있는 친구가 있었던 것이고 그녀의 반응은 우리가 예상하듯이 '매우 힘들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요즘 여성주의 언론들은 사정이 어때요?'라고 묻는 누군가의 질문에 '어렵죠 뭐, 더 이상 활동을 하지 못하는 곳도 있고 최근에 성공회대에 여성주의 저널이 하나 생겼고……'라는 대답이 나왔다.

이 얘기를 굳이 꺼내는 이유는 학교 밖에서 리엔의 이야기를 들으니 반갑더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아니다. 이 대화가 바로 성공회대의 '여성주의 저널 리엔'이 위치하고 있는 바를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이다. 그렇다. 리엔은 심히 어려워질 수도 있는 길에 첫발을 내딛었다.

처음 리엔을 받아들이고 떨리는 마음으로 첫 장을 펼치던 기억이 난다. 나는 지난 몇 년 동안 학교에서 여성주의 소모임과 총여학생회를 거쳐 총여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그리고 다시 여성주의 소모임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활동을 해왔고, 어쩔 수 없이 이러한 나의 조건 하에서 리엔의 탄생에 다소 묘한 기분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하면 구리지만 심지어 나는 어떤 감동 비슷한 것까지 느끼고 말았던 것이다. 그것은 학내에서 '여성주의'를 이야기하는 어떠한 누군가의 이야기들이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연속될 수 있다는 안도감 때문이었을 수도, 아니면 뜻밖하고 싱그러운 그/녀들의 이야기가 나를 행복에 젖게 해서였을 수도 있다.

글을 부탁받고 다시 리엔의 창간준비호를 읽었다. 창간준비호를 처음 보았을 때의 그 두근두근 하는 마음에서 한 발짝 떨어져서 리엔을 읽는다. 분명 리엔의 이야기라고 부를 수 있는 어떤 흐름이 존재하고 있지는 않다. 처음 일만큼 자신들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는 그/녀들의 이야기처럼 이야기는 다양하고, 공감이 가진 하지만 그 이상을 기대하기에는 사실 조금 부족해 보이는 느낌이다.

그래서 나는 '리엔에서 다음에는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 것인가?'라

는 생각을 해본다.

최근에 하게 된 생각은 여성주의(어떤 정치든 마찬가지이다)가 경험주의에 포위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다. 여성으로서의 경험을 공유하고, 그것을 표현하고, 그것에 공감하는 것은 물론 중요한 일이다.

여성주의의 전사前史를 대략 알고 있다면, 여성만의 온전한 경험의 영역으로서의 여성주의가 결국에는 여성주의 담론을 어떻게 무력화시켰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를테면 피해자 중심주의 담론을 비롯한 '피해자' 담론이 대표적이다. 그래, 우리는 피해 받았다. 우리는 피해자이다. 자,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얘기할까?

여성들이 여성주의 담론 안에서 단순히 피해자로만 존재해서는 곤란하다. 단순히 아픔을 극복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아니다. 그것이 무기력함으로 변하도록 내버려두지 말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가능성의 향을 열어두자는 이야기이다. 생각보다 많은 이들이 리엔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을 것이다.

여성주의의 사유는 내가 알고 있는 사유의 방식 중 가장 색다른 것이다. 여성주의자들의 글을 읽을 때마다 흥분되고, 떨리던 순간은 없었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나는 여성주의적 사유의 매력을 충분히 알고 느끼고 있다. 그러나 조금 우려를 담아 이야기 하자면 여성주의라는 담론이(모든 담론이 그렇듯이) 만능이 아니라는 것이다. 해리웨이가 이야기 하듯이 모든 '객관성'은 국부적 달성에 불과하다. 그것은 당연히 여성주의에도 해당하는 바이다. 여성주의를 통해 모든 것을 설명할 수는 없

다.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말고 그러한 한계 하에서 이야기해야 한다.

여성주의는 어쩔 수 없이 정치를 구성한다. 차이 혹은 차별, 가부장제와 자본주의 안에서 개인이나 공동체의 운신, 그 순간과 순간사이의 개입과 불개입에 대한 모종의 선택은 이루어지고 그 기저에서 선택의 이유들을 논증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있을테면 어떠한 주의가 존재하는 이유, 혹은 의미일 것이다. 그렇기에 여성주의는 필연적으로 정치적이다.

개인의 느낌과 경험이 정치적인 의미가 되는 순간, 나는 그 순간을 잊는 이음새에 니옌이 위치하길 바란다. 굳이 지창한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다. 니옌의 이야기를 하면서 수많은 교집합들을 만들어 가면 되는 것이다.

창간준비호의 약간의 어긋남과 다소 어수선했던 이야기들이 조금 더 정돈되고, 니옌의 색깔이라 부를 수 있는 것들이 조금씩 생겨나길 바란다. 그리고 무엇보다 학내/학외에서 여성주의자들의 네트워크를 만드는 데에 니옌이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면 하고 바라는 바이다.

잔소리가 길어졌지만 결론은 니옌이 있어서 참 좋다는 말이다. 뭐, 싱거운 결론이지만 결국은 그렇다. 창간호가 나오면 역시 두근두근 하는 마음으로 니옌의 첫 장을 펼칠 것이다.

그러니, 니옌의 창간호가 발간되자마자 나에게 니옌 한 권을 건네 주기 바란다.

(창간호 비평글)

군사주의의 남성성에게

은실, 성공회대 재학생

이번 2007년 사회과학부 워크숍에서 니옌은 〈니옌이 묻는 방식〉이라는 제목으로 니옌이라는 저널이 대학 사회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물었다. 창간준비호를 바탕으로, 이것이 과거 여성주의적 흐름 속에서 이어지고 이 연속선상에 서있는 니옌이라는 저널은 이제까지 어떻게 행해 왔는지, 앞으로 어떻게 활동을 해 나갈지 여러 사람과의 소통 속에서 도전받고 도전하기를 원했다. 그러나 학우들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났다. 여성주의가 무엇인가를 몰라 정확하게 정의해주길 원하는, 다른 하나는 여성주의라는 말 자체에 반감을 표하는 것이었다. 전자를 묻는 사람들은 여성주의가 도대체 무엇인지를 모르겠다며 여성주의에 대한 정의와 그것에 대한 입장 표명을 해주기를 원했고, 이 물음은 니옌의 발제가 니옌저널에 대한 홍보용 발제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비평으로 이

어졌다. 후자는 여성주의라는 말이 남성을 배제시키고 대립하는 존재로 여기지 않는다는 견해를 표하며, 남성도 남성주의라는 것을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고 말한다. 이러한 견해는 전자의 물음에서 이어진 것이며 여성주의에 대한 반감과 불신에 대한 토로였다.

우리 사회에서 여성 문제는 장애인, 동성애자, 외국인 노동자와 종교, 인종, 민족 등과 같은 여러 요소로 차별받는 소수자 집단과는 다른 면이 있다. 피해자가 된 여성이 가해자를 상대로 자신의 피해 사례를 설명할 때, 그 여성은 경험과 언어가 불일치한 상태에서 스스로를 수없이 검열하며 자신의 경험과 언어 사이에서 오는 긴장과 분열을 해석해내기 위해서 자신의 기저에 깔려있는 인식 체계를 상대화해야 한다. 언어와 자신의 경험에 대한 해석이 사회에서 어떻게 규정되고 해석되느냐에 대한 고민 없이 현재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의 삶의 방식이나 조건이 객관적으로 여겨지는 사회에서는, 여성이 자신의 경험을 말하는 것은 정치적인 행위가 되고, 자신을 남성과는 다른 특별한 대우를 받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은 것이 된다. 여기서 여성에게 요구되는 것은 이러한 자기 분열의 재해석뿐만이 아니다. 자신의 경험 말하기와 함께 자신도 다른 피해자일 뿐이라고 주장하는 가해자를 넓은 마음으로 인정해주고, 피해 여성이 경험 말하기에서 자신의 피해는 자신의 피해일 뿐만 아니라 가해자의 피해도 막기 위한 것임을 증명하라고 끊임없이 요구된다.

군사주의에 대한 논의들도 이러한 맥락 속에서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여성은 자신이 군사주의 문화들로 상처를 받았음을 설명하고 여성과 남성의 관계성을 설명한다. 여성이 여성성에 대한 규제로 피해를 받은 만큼 남성도 남성성에 대한 편견으로 피해를 받았음을 증명해 낸다. 우리는 여성주의의 말하기 방식 속에서 나 말고도 그러한 사회적 구조로 피해 받았을 다른 이들을 배려해야만 하는 것을 읽을 수 있다.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여성이나 군대를 갔다 오지 않은 남성은 논의에 대상에서 쉽게 배제된다. 군대를 다녀온 남성들이 사회에 나온 후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도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하고 군대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 지도 모르면서 피상적으로 이해하고 이에 대해 왈가왈부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군대에 다녀온 남성들은 군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한다. 자신이 경험한 일을 엄청난 일인 양 과대평가하고 미화해서 이야기 하는 경우가 많은 데 이것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미화하는 것이라고 표현한다. 군대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없으므로 사회에 나와서야 비로소 불만을 표출하며 고통스럽기 때문에 이를 미화하는 것이라고 한다. 자신의 언어로 자신의 고통을 그 집단을 벗어나 사회에 나와 말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사회에 나와 말을 하고 그 말이 통용된다는 것은 그 사회에 부합하는 가치관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군대를 갔다 온 남성은 시민권을 획득한다. 즉, 대한민국의 정상적인 남성으로서 기득권을 획득할 권리를 얻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말하기 방식은 여성의 것과 매우 다른 측면을 보여 준다. 여성은 피할 수 없는 경험을 미화하지 않는다. 오히려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모른다. 여성은 자신이 이미 배제된 논의 구조 속에 끼어들어 군대를 통해 이런 피해를 받고 있다고 이야기 하는 것 자체가 무리이고, 만약에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군대를 갔다 온 남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비이성적인 사람으로 간주된다.

우리는 잘 모르기에, 그렇지만 우리가 고통을 받고 있기에 군대를 해부하고 분석한다. 여성주의의 눈으로 본 군사문화는 젠더와 국가에 대해 이야기 하고 전쟁이 아닌 평화 상태는 어떤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 논의한다. 군대에서도 남녀 성별 분화에 기여하고 있고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어 오고 있는 것인가 분석한다. 군사주의에서 시작되었던 문제의식은 사회 구조로 확장되어 나간다. 과거는 현재를 규정하고 현재는 미래를 만

든다. 그렇기에 과거와 현재에 대한 분석에서 다른 미래를 창조할 힘을 찾기 위해 여성주의의 시각을 통해 우리 사회 문화의 왜곡을 시정하고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으로 가는 것이다.

반성을 하게 되는 사람은 항상 피해자이므로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치유를 하기 위해 가해자에 대한 대안을 만들 수밖에 없게 된다. 왜냐하면 문제는 자신만이 바뀌면 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 모두가 공유하고 함께 조금씩 시정해 나갈 때 비로소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팽팽'은 예비역을 위한 힐링 프로젝트를 제안한다. 그러나 이는 여성주의가 제기한 여타 문제와 다름없이 남성들 자신을 치유의 대상으로 놓는 것을 자존심 상해한다. 자존심 상해하는 것도 여러 가지의 이유가 있고, 남성을 모두 같은 한 집단으로 치부해 버린다고 문제 삼는 것도 여성주의에 있어서 고민되어야 할 민감한 문제라고 생각된다. 여성주의가 추구하는 것은 단지 여성의 권익향상이 아니기에 삶의 과정의 치유의 문제에 있어서 여성주의를 알지 못하고 여성주의에게 반감을 갖는 사람들에게 말 걸기를 할 때 이 고민이 함께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실 나는 군사주의라는 주제를 보았을 때 내가 처해 있는 현실, 나의 가정에 대해 가장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저널 11월에서도 물론 군대를 구성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분석을 먼저 하게 되겠지만 그 이후에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현실, 가정에 대해 많은 이야기가 나오길, 내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현실 속에 어떤 군사주의 문화가 숨어 있는지 이야기 해주고 함께 고쳐 나갈 수 있기를 바랐다. '꿈의 택배'가 쓴 학교 문화의 문제점은 우리 모두가 불편해 했던 현실의 한 부분이라 여겨진다. 군사주의 문화의 문제점이라 언급된 집단주의, 권위주의, 획일성, 상명하복 등의 성격은 학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의 다양한 집단 속에 녹아 있다. 가정에서도 이러한 성향이 다분히 보이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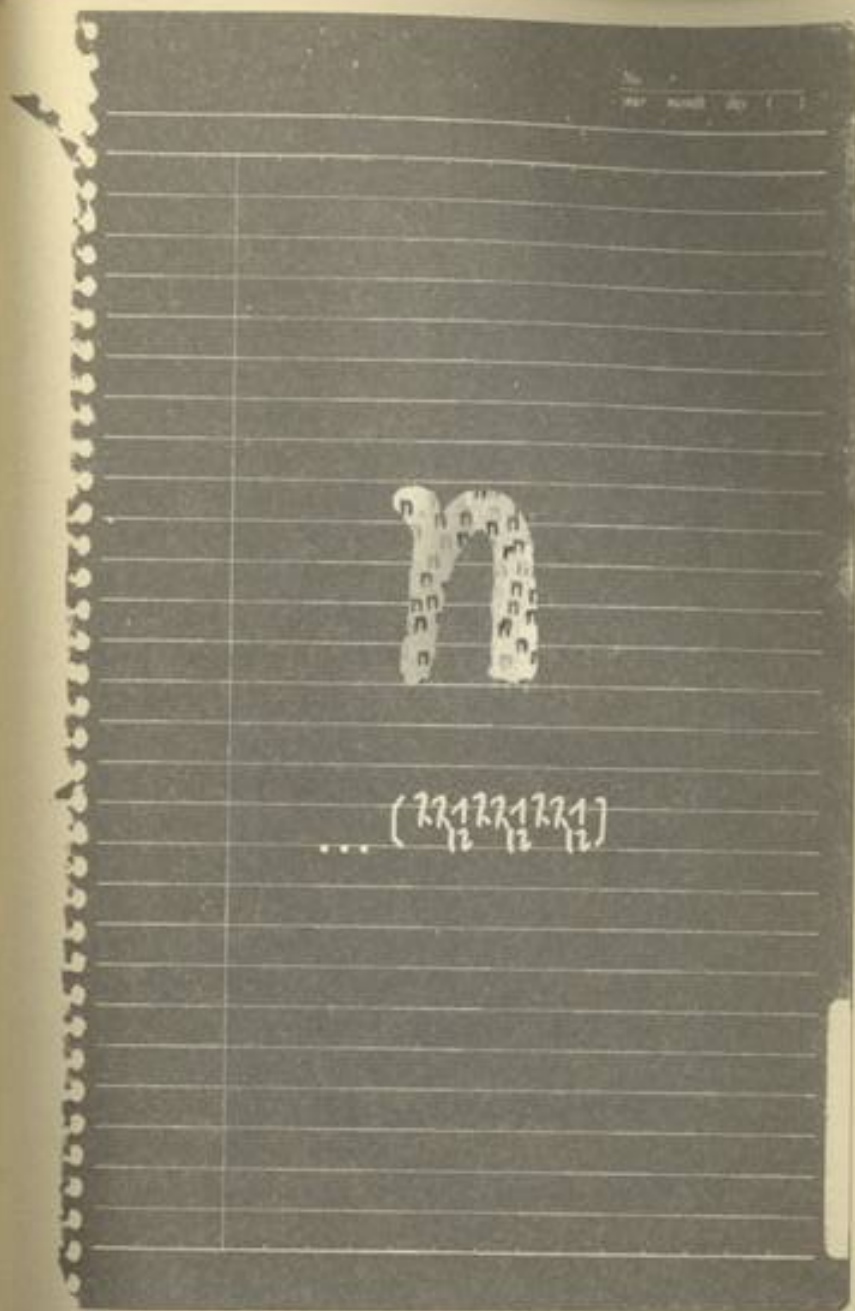
이는 군사주의 문화가 단지 그 문화의 특성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가부장제적 모순 같은 것들과 결합해서 나타난다는 것이다. 그리고 단지 내가 피해자가 되어서 상처를 입게 되는 것보다 더 큰 혐오스러움은, 나의 상처가 상대방의 의미화의 정도가 달라짐에 따라 내가 받는 혹은 그가 입는 상처가 달라진다는 점에서, 내 안의 군사주의 문화가 다양한 상황들과 조건 속에서 발현되었을 때일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여성주의에서 비판하는 가부장적 요소와 군사주의 문화의 병존을 가능하게 하고 이를 당연하듯이 받아들이게 하는가.

남성이 군대에 대한 반론을 국가가 아닌 여성이나 장애인에게 보내고, 대체 복무가 도입되어 군대는 선택의 문제로 바뀔 듯 보이게 되면서 군사주의 문화를 말할 때 더욱 정교해야 한다. 더욱이 이는 생존의 문제와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평등을 말할 여지가 좁아지고 말하는 것 자체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군사주의 문화는 단지 개별적으로만 나타나지 않는다. 사회 문화 여러 면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군사주의 문화는 더욱 견고히 형성되는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문화에 대해 도전하고 해체해야 한다. 여기에서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은 여성주의적 시각이지만 이 작업은 여성들만이 해나가야 하는 것은 아니다. 스스로 자신 안에 있는 모순과 타자성을 찾고 서로 소통하고 공유하는 것이 그 해결점이 될 것이다.

후기

나에게 비평제안이 왔을 때 내 속에서 일어난 처음 반응은 '영? 비평?'이었다. 어떤 방식으로 쓸지 고민하다가 글을 보기도 전에 나에게

비평이라는 형식자체가 엄청난 부담감으로 다가왔다. 글을 읽고 나서 어떤 식으로 써야겠다고 생각했으면서도 비평이라는 틀 속에 내 말을 어떻게 담을까 하는 것은 여전히 고민이었다. 비평이라는 말이 이토록 위계적이고 권력적이었던가. 글을 쓰고 있는 내내 나는 스스로 '나는 비평을 쓰고 있어'라고 상기시켜야 했고 잣대를 들이대며 수많은 검열을 거쳤던 것 같다. 니옌이라는 저널에서 말하는 페미니즘의 다양함은 나에게만 편안함으로 다가왔다. 비평 또한 니옌이 될 수 있도록 다른 이름으로 편안하게 다가 왔으면 한다.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11월 창간준비호가 나오기 전부터 2007년 9월 10일 현재까지

총 1백3십만7천9백원의 후원을 받았습니다.

맨 처음 여성주의 저널을 만들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고 11월 편집위원들이 모였을 때, 저널을 제작할 비용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가 가장 힘든 문제였습니다. 학교로부터 공식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도 없었고, 우리가 만들 저널에 대해서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과연 누가 우리를 믿고 후원을 해줄까 걱정도 많았습니다. 가장 가까운 친구들과 가족으로부터 시작해서 학교 기관과 학생회, 교수님 등을 찾아가 우리 저널에 대해서 설명하고 후원을 부탁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천원이든 십만 원이든 금액으로는 따질 수 없이 소중한 후원임을 느낍니다. 여성주의 저널 11월은 그렇게 모인 힘으로 만들어지는 것이기에 후원해 주시는 분들과 모임이 늘어가는 것을 보면서, 어떤 저널을 만들 것인지, 저널을 통해 어떻게 말을 걸 것인지 고민이 깊어져갑니다.

희미한 꿈처럼 느껴졌던 창간준비호를 발간한 이후에 11월 편집위원회도 받을 수 없을 만큼 많은 분들의 관심과 후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고, 여성주의에 대한 고민을 나눌 수 있었고, 창간호로 이어갈 수 있는 힘을 얻고 있습니다. 후원뿐만 아니라 더 다양한 기회를 통해 여러분과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묻는 방식, 성공시대 여성주의 저널 11월」은 그 이름처럼 끊임없는 물음을 통해 성찰과 대화, 관계맺기와 변화의 움직임을 만들기 위한 저널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금은 저널11월 제작과 활동에 쓰입니다. 아래의 후원 이화에 어느 곳으로부터도 지원을 받지 않았으며, 100% 여러분의 후원을 통해 재정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후원금으로 재정을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음을 밝히기 위해 후원금액을 밝힙니다.

그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여러분과 11월이 길을 만들어 갑니다.

(이하 가나다 순)

재학생 (총 24명)

김광 10,000 / 강효주 3,000 / 김소형 5,000 / 권의재 10,000 / 내비 20,000
 남래 10,000 / 박명 10,000 박동민 3,000 / 박비곤 5,000 / 박준성 5,000 / 박해운 3,000
 박요경 4,000 / 송예슬 5,000 / 송현아 20,000 / 신유빈 5,000 / 양철모 5,000
 유민 3,000 / 이경준 5,000 / 이승미 5,000/ 이진선 5,000 / 정현주 1,000 / 조재 5,000
 조성혁 66,800 / 한지선 10,000

졸업생(총 2명) 김세경 20,000 / 우공 10,000

교수(총 7명)

권해태 15,000 / 박경태 10,000 / 박승호 10,000 / 신경원 10,000 / 안진열 10,000
 이남석 10,000 / 조화연 20,000

교직원(총 1명) 송용환 10,000

기관(총 4곳)

사회과학부 학생회 80,000 / 아르바이트학생 이대호 오하우등 100,000
 인권평화센터 100,000 / 총학생회 200,000

학교 밖(총 8명/곳(개인 6명, 기관/단체 2곳)

백승민 50,000 / 서울대 교지 『관악』 50,000 / 소병돈 50,000 / 이아람 10,000
 중앙대 여성주의 교지 『누지』 100,000 / 최경란 100,000 / 황가영 10,000 / 황금원 100,000

거리모금(미확인) 11,100

총 46명/곳(개인 40명, 기관/단체 6곳)

총 1,307,900원 (2007년 9월 10일 현재 후원 현황은 계속 추가됩니다)

▶ 후원 계좌번호: 국민은행 235001-04-139527 김이민장(여성주의저널엔)

창간준비호 결산

2007년 11월 18일까지의 결산 내역입니다.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단위: 원

날짜	내용	들어온 돈	나간 돈	남은 돈
20070528	문구류		1,400	
20070531	창간준비호 발송비(타학교)		2,700	
20070601	후원금 소계	699,800		
20070601	창간준비호 제작비		457,300	
20070607	후원금(황금원)	100,000		
20070608	후원금(인권평화센터)	100,000		
20070609	결산이자		25	
20070706	후원금(서울대학교지 관악)	50,000		
20070718	후원금(중앙대 여성주의교지 누지)	100,000		
20070807	후원금(백승민)	50,000		
20070813	후원금(최경란)	100,000		
20070814	후원금(우공, 남래, 영봉, 민경, 황가영)	49,000		
20070821	발송비(아람 해외발송)		6,000	
20070827	창간준비호 비행글 기고자(다혜) 사례 및 구입비용(적주제)		20,000	
20070830	후원금단 공개 대자보 문구류(황해일, 전지호)		1,800	
20070901	후원금(소병돈)	50,000		
20070904	후원금(이승미)	5,000		
20070904	자출금 정산(4/28 창간준비호 홍보 pc전 2회)		5,000	
20070928	리얼화인행비(참석자들과 식사)		36,000	
20071012	후원금(5/28일 거리모금)	4,100		
20071019	인터뷰진행비(관인숙 선생님 사례 선물 구입)		20,000	
20071112	복사용지		1,800	
20071115	창간호 홍보 대자보 문구류(황해일, 무니예일, 모장지)		2,500	
20071118	창간호 홍보 PC 문구류(제작 시비)		2,000	
	총 계	1,307,926	556,300	751,626

창간준비호 목차_2007년 5월에 발행

*창간준비호 2007년 5월에 발행되었습니다. 창간준비호를 읽고 싶은 독자분들은 리얼 클럽에 글을 올려주시거나 메일 전화를 주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창간준비호 발간사

또 하나의 감수성으로, '내가 읽는 방식, 여성주의 저널 리얼'을 발행하며

리얼의 이야기

- 15 페미니스트라는 낙인찍힌 사람 | 공의택배
- 23 남성, 그리고 여성주의 PART 1 | 우공uGonG
- 33 월경하는 평화 | 행행
- 39 아프고 아팠던 나와 나에게 | 물물이
- 47 부업대기로 태어나 살림꾼으로 진화하다 | 날래

수다의

- 59 수다나 싹싹 about 혼자살기 | 정리_날래

여성과 여행

- 73 나와 마주보다 | 만효
- 76 여행지로부터 보내는 서신 | 헬라

리뷰Review

- 85 4년이 된 '그 여자들의 물결, 『알다』 | 우공uGonG
- 91 내 멋대로 청춘들, 새로운 관계로의 길 찾기 | 공의택배

리얼 다시보기

- 101 리얼을 본다는 것의 의미 | 다해茶海

..(협찬)

- 후원명단
- 독자모임을 합니다
- 편집위원 모집
- '불편한 세미나'
- 편집후기

편집후기...

날래

페이지를 넘기는 손가락 끝마다 생기가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나 스스로가 생기가 나야 한다. 나의 목소리에 또 다른 목소리들이 겹쳐질수록 그것은 더욱 강력하고 할거야 될거야 된다. 나의 목소리가 나뉘어, 각각 우리가 부르는 노래에 힘이 되길 바란다.

행행

눈물을 흘려 놓아줘야 했던 상처 무릎 창문으로 덕분에 그럭저럭 또다시 글쓰기가 되었다. 언제쯤이면 물어들어 글을 쓸 수 있을까? 당분간은 쓰라린 내 신 앙이었으면 좋겠다. 글을 많이 다들여요.

공의택배

창간준비호 때 보다 더 깊은 의미를 품고있었다. 왜 이젠 글을 쓰면 무슨 깊은게 없을까? 봄에서 여름, 여름에서 가을 그리고 가을은 겨울로... 하지만 '난' 계절처럼 사라지 않는 나와 다양한 마음들이란 한스니 말이다. 겨울 편지라고 한다. 지금보다, 더 그리고 나는 그런 나를 사랑스런(이) 사랑받았(으)다.

헬라Helis

이젠과 함께하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싶어. 그래서 글쓰기하고 그리고 '정말'하게 보낼 수 있길 바란다.

우공uGonG

창간준비호도 그랬지만 창간호는 우리들의 새로운 '결합'이었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우이를 필자로 하고, 우이는 스스로가 가진 주관적인 것을 필자로 한다. 우리는 모든 '정당' 일을 했다. 실제로는 계속된다.

성공시대 여성주의 저널 n[엔]

창간호(통권 2호) | 2007. 11.

펴낸이 /n[엔] 편집위원회

편집위원 공의택배_flybutterfly@naver.com

날래_nalae@jinbo.net

맹맹_kbaboda@hotmail.com

렐라Rella_

우공uGonG_autougong@gmail.com

인쇄 2007년 11월 26일

발행 2007년 11월 29일

본문디자인 /n[엔] 편집위원회

E-mail feminism-n@jinbo.net

웹페이지 <http://club.cyworld.com/feminism-youNme>

표지 및 내지그림 곁